

제26권 제1호 / Vol.26 No.1

KDI 경제전망

KDI Economic Outlook

2009 상반기

KDI

KDI 경제전망 연구진

總 括	金 炫 旭(研究委員)
綜 合 豫 測	李 載 濬(副研究委員) 李 相 圭(主任研究員)
國 內 總 生 產	李 載 濬(研究委員) 李 相 圭(主任研究員)
景 氣	李 載 濬(副研究委員) 朴 芝 願(主任研究員)
消 費	金 榮 一(副研究委員) 朴 廷 嫻(研究員)
設 備 投 資	李 漢 揆(副研究委員) 李 河 沅(研究員)
建 設 投 資	李 漢 揆(副研究委員) 許 秀 炅(研究員)
經 常 去 來	李 時 昱(副研究委員) 李 相 武(主任研究員)
資 本 去 來	宋 敏 圭(副研究委員) 柳 慧 瑛(研究員)
勞 動 市 場	金 熙 三(副研究委員) 金 裕 景(研究員)
物 價	辛 鈺 夏(研究委員) 權 導 亨(研究員)
通 貨 金 融	宋 敏 圭(副研究委員) 柳 慧 瑛(研究員)
財 政	俞 翰 郁(副研究委員) 李 相 敦(研究員)
世 界 經 濟	李 相 圭(主任研究員) 金 美 和(研究員) 韓 奎 淑(研究員) 李 南 炅(研究員)
編 輯 幹 事	朴 芝 願(主任研究員) 金 賢 愛(研究行政員)

『KDI 經濟展望』은 國內外의 經濟動向을 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中短期 經濟展望을 함과 동시에 展望을 둘러싼 不確實性 要因과 對策을 研究하여 提示함으로써 政府의 經濟政策 樹立은 물론 企業의 經營과 學界의 研究活動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年 2回 半期 發刊합니다. 本 報告書의 內容은 出處 및 執筆者를 明示하는 한 自由로 引用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958-4114 팩스번호 958-4088

※ 본 자료는 KDI 홈페이지 (<http://www.kdi.re.kr>) 로 접속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目 次

要 約

第 1 部 國內外 經濟動向

I. 國內經濟 動向	3
1. 國內總生產	5
2. 景 氣	15
3. 消 費	15
4. 設備投資	19
5. 建設投資	23
6. 輸出入 및 國際收支	29
7. 勞動市場	37
8. 物 價	45
9. 金融市場	50
10. 財 政	58
II.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63
1. 要 約	65
2. 主要 國家別 經濟狀況	72
3. 換率 및 金利	101
4. 原資材 및 半導體 價格	104

第 2 部 經濟展望 및 政策方向

I.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111
II. 2009~10年 國內經濟 展望	125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127
2. 2009年 國內經濟 展望	127
3. 2010年 國內經濟 展望	129
III. 政策方向	133
1. 財政政策	135
2. 通貨政策	138
3. 金融政策	139
4. 勞動市場政策	142

第 3 部 懸案分析

經濟懸案 分析	147
최근 우리나라 수출 급락세의 특징 및 요인 분석	149
외국자본 유출입 패턴 변화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159
민간소비의 구성항목별 추이에 대한 분석	171

요 약

I.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급락세가 부분적으로 진정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 내수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수출도 저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

■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락했던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경기 급락세 완화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개선 및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부분적으로 완충됨과 동시에 수출 수요도 소폭 개선되었던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따른 외환수급 여건 개선 및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가 및 환율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민간소비의 급락세도 진정

－ 확장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정부 지출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SOC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빠르게 증가

－ 이와 더불어, 2월 이후 수출 급감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재고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급락세에서 벗어난 것도 경기 급락세 완화에 기여

■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

● 내수관련 지표들은 민간의 소비·투자가 2003년의 신용카드 버블 붕괴 시기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선행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 경기애 후행하는 고용 상황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당분간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대외거래 부문에서도, 무역수지가 2월 이후 흑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수출은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위축된 모습을 유지

- 수출은 2월에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계약기간이 장기인 선박 수출을 제외할 경우 감소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등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수요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등 불안이 완화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미국 정부가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장기국채와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을 결정하는 등 각국의 안정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

-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자본의 유출압력이 작년 4/4분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모습이며, 금리와 환율 등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음.

-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의 외채 지급불능 가능성으로 인한 유럽계 은행들의 부실 확대 우려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실물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교역도 위축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선진국에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아시아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성장률을 급락시킨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따라서, 최근 우리 경제의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당분간은 현재 수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우리 경제가 작년 4/4분기의 급락세에서 점차 진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수준과 이미 계획되어 있는 추정만으로도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이 여전히 매우 불투명하며, 경기가 단기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거시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변경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됨.

■ 이와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실이 극심한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민간부문의 부채구조조정 노력도 지속될 필요**

-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제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체되었던 부채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규율이 이완되지 않도록, **구조개혁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침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 위기극복 과정에서 추진되는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 혹은 미시경제 정책들의 급격한 변경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향후 수개월 동안 경기 안정세(혹은 회복세)가 유지될 경우, 현재의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할 필요
- 특히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나, 향후 정부부채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

II. 2009~10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 **세계경제:** 2009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2010년에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제
 -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개도국의 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의 PPP환율 기준)이 -1%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
 -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침체상태에서 완만히 회복되어 2010년에는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
- **유가:** 2009년 원유도입단가는 2008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70달러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가정
-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제
 - 2009년 1/4분기 통화가치(실질실효환율 기준)는 2008년 연평균 수준에 비해 비교적 크게 하락한 상태이나,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정상화되면서 변동성 축소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상향 안정화되는 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가정

2. 2009年 國內經濟 展望

- **경제성장률**은 대외여건 악화 및 내수침체로 인해 -2%대 증반을 기록할 전망
 - 상반기까지 -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다소 회복하면서 연간으로는 -2%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상반기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될 전망이다, 하반기에는 저금리와 물가안정에 기인하여 소득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16% 내외의 급락세를 나타낼 전망
- **건설투자**는 재정지출 확대의 상당부분이 SOC 관련 투자에 배정됨에 따라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회복이 예상되나, 민간 건물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2008년(4.1%)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9%대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도 원화 가치 하락의 시차효과 및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2008년(4.6%)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10%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 안정 및 내수부진 등에 기인하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60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2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08년(14.4%)보다 크게 하락하여 -18%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경기침체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2008년에 22.3%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4%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2008년(124억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크게 축소된 8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8% 내외까지 상승하며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중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2009년 연평균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 2009년초 4%에 근접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하향 안정, 낮은 수준의 총수요압력 등에 기인하여 빠르게 낮아질 전망
 - 한편 근원물가의 경우 상승세가 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둔화됨에 따라 2009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3. 2010年 國內經濟 展望

-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환율, 물가 및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2009년에 급속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
 - 건설투자는 SOC 관련 공공부문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 건설부문의 부진이 점차 개선되면서 전년의 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은 원화 가치의 안정 및 내수회복 등에 기인하여 8%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출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9년 수준보다 축소되어 21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기인하여 적자규모가 11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3.5%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는 2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서 2%대 중반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

2009~1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8	2009					2010
	연간 ^p	1/4 ^p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2.2	-4.3	-4.1	-3.4	2.7	-2.3	3.7
민간소비	0.9	-4.4	-3.6	-2.7	3.0	-2.0	3.6
설비투자	-2.0	-22.1	-23.0	-19.0	2.0	-16.0	10.5
건설투자	-2.1	1.7	1.8	1.5	4.0	2.3	1.8
상품수출(물량)	4.1	-14.1	-15.1	-11.8	2.5	-9.8	6.3
상품수입(물량)	4.6	-18.1	-16.6	-11.2	7.6	-10.0	8.1
경상수지	-64	86	57	39	26	208	101
상품수지	60	83	74	64	66	287	211
(수출증가율)	(14.4)	(-24.0)	(-29.0)	(-22.5)	(5.5)	(-18.5)	(15.7)
(수입증가율)	(22.3)	(-32.9)	(-32.0)	(-30.0)	(4.0)	(-24.1)	(19.5)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124	2	-17	-25	-40	-80	-11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6 (4.3)	3.9 (4.9)	2.9 (4.0)	2.1 (2.9)	2.2 (2.2)	2.8 (3.5)	2.5 (2.2)
실업률 (계절조정)	3.2	3.8 (3.5)	3.8 (3.9)	3.7 (3.9)	3.7 (3.7)	3.8	3.5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Ⅲ. 政策方向

1. 財政政策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경기여건 악화 및 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하여 재정정책 기조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당히 확장적으로 나타날 전망
-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
 - SOC 분야를 비롯하여 진행사업의 조기 완료 및 확정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하는 한편, 예산의 조기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적시성을 제고
 -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추진체계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집중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할 필요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들은 경기회복 추세에 맞추어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한시성을 최대한 견지
 - 예산편성 단계부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을 통해서도 재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출조정을 도모
 -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소득과약률을 제고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

2. 通貨政策

■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경기회복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세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금리 인상 필요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통화당국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위험에 유의하여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 및 저금리 정책기조를 적기에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

- 현재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세가 높지 않으나, 향후 국제금융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급락하였던 총수요압력이 경기회복에 따라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우선 은행채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정책금리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3. 金融政策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펀드와 기금의 설립목표와 운영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적 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할 필요

- 먼저,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자본 부족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율적인 자본확충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펀드와 기금을 투입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
- 펀드와 기금의 설립목표도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유동성 공급 지원 등 경기 안정화 기능은 한시적이며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

- 이와 더불어, 펀드와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능의 중첩 또는 자의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확립

- 펀드와 기금의 운용절차 및 관리 등 운용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제적 정책대응의 필요성’과 ‘자금지원의 효율성’ 간에 균형과 조화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은행차입 의존성향 축소 및 가계의 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점진적이고 상시적인 금융기관의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을 유도**

- 회사채 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 및 엔젤캐피탈 육성 등 기존의 금융시장 균형발전 정책을 기업의 자금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기업금융의 은행차입 의존성향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은행의 시장성 수신투자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유동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가계부문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부채상환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계가 스스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국내 외화 수요의 구조적 개선 차원에서 대응**

- 장기 외화채권 발행 등 대체적 외화공급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외화차입에 제한을 두기는 어려우며,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직접규제가 채권시장을 급격히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

- 따라서, 기업의 외화대출 심사에 있어서 외화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우량의 외화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문에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외화수요의 구조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외화유동성 감독기준의 개선을 통해 단기외채 비율을 축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외화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

- 이와 더불어, 현재 만기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감독기준에 시장성(marketability) 및 유동성(liquidity) 등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4. 勞動市場政策

■ 일자리 나누기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일자리 나누기를 경제 전체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조정, 교육훈련 실시, 임금 삭감 등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진행 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교대제 전환, 전환 배치, 다양한 직무훈련에 대한 지원 등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
- 한편,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고용을 연장하는 데에 사용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

■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구제와 함께 내실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꾸준히 추진

- 고용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 대상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한시적 확대는 불가피한 대책으로 판단됨.
- 현금지급 확대보다는 취업알선·교육훈련·보육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함.

■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소홀한 취약근로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 실업자는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재취업을 돕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
-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생계곤란에 직면한 신규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 복지지원을 통해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신속히 제공하고, 이를 위해 일선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할 필요

■ 향후 경기회복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노동시장 제도 개혁 논의가 주로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맞추어지고 있으나, 향후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

第1部

國內外 經濟動向

國內經濟 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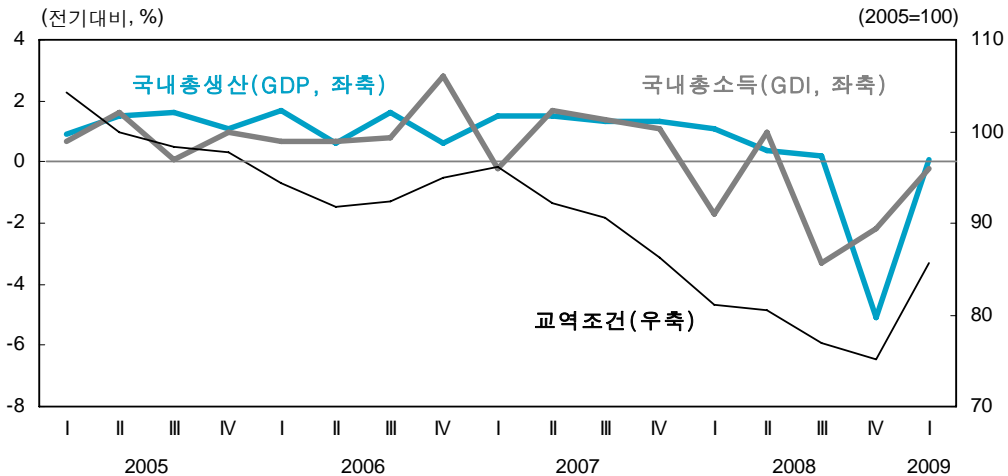
1. 國內總生產
2. 景氣
3. 消費
4. 設備投資
5. 建設投資
6. 輸出入 및 國際收支
7. 勞動市場
8. 物價
9. 金融市場
10. 財政

1. 國內總生産

금년 1/4분기 중 국내총생산은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순수출과 정부지출 증가에 힘입어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

- 작년 4/4분기에 크게 하락한 국내총생산(GDP)은 금년 1/4분기에도 -4.3%를 기록하였으나, 계절조정 전기대비로 0.1% 증가하면서 급격한 경기침체는 진정되는 모습
-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증가율은 작년 하반기 이후 급속히 하락하였으나, 금년 1/4분기 중 급락세가 다소 완화
 - 2008년 3/4분기 이후 국내총소득은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해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금년 1/4분기 전기대비 -0.2%를 기록하여 하락세가 완화

국내총생산 및 국내총소득의 성장률



주: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100, 2009. I. 는 1~2월의 평균임.
 자료: 한국은행.

■ 세계경제 침체가 심화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면서 상품수출이 급락한 가운데 주요 내수지표들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정부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급락세는 진정되는 모습

- 민간소비는 작년 4/4분기에 급락한 이후 금년 들어 내구재와 서비스에 대한 소비 지출이 늘어나면서 전기대비 0.4% 증가하는 등 하락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며,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확대에 힘입어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냄.
- 설비투자는 작년 4/4분기 이후 기계류 및 운수장비를 중심으로 하락세를 지속한 반면, 건설투자는 토목건설 등이 크게 확대되면서 소폭 상승
- 해외수요 감소가 지속됨에 따라 상품수출 증가율이 -14.1%까지 하락하였으며, 상품수입 증가율도 -18.1%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출 증가율을 크게 하회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7			2008					2009
	연간	3/4	4/4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1/4 ^P
국내총생산(GDP)	5.1	4.9	5.7	2.2	5.5	4.3	3.1	-3.4	-4.3
		(1.3)	(1.3)		(1.1)	(0.4)	(0.2)	(-5.1)	(0.1)
총소비	5.1	5.3	4.7	1.6	3.9	2.6	2.0	-1.9	-2.0
		(0.8)	(0.5)		(1.1)	(0.2)	(0.2)	(-3.4)	(1.2)
민간소비	5.1	5.4	4.7	0.9	4.0	2.3	1.4	-3.7	-4.4
		(0.9)	(0.4)		(1.1)	(-0.2)	(0.0)	(-4.6)	(0.4)
총고정투자	4.2	1.5	3.1	-1.7	-0.5	0.6	1.8	-7.3	-7.5
		(-1.1)	(3.1)		(-1.6)	(0.1)	(0.1)	(-6.5)	(0.2)
설비투자	9.3	4.0	8.0	-2.0	1.5	1.1	4.3	-14.0	-22.1
		(-3.0)	(3.8)		(-0.4)	(0.4)	(0.2)	(-14.2)	(-9.6)
건설투자	1.4	-0.2	0.4	-2.1	-1.9	-0.3	0.2	-5.6	1.7
		(-0.4)	(2.9)		(-2.5)	(-0.3)	(0.1)	(-3.0)	(5.3)
총수출	12.6	9.3	17.5	5.7	11.0	11.5	9.3	-6.9	-10.5
		(1.7)	(6.5)		(0.0)	(2.7)	(-0.4)	(-8.9)	(-4.2)
상품수출	11.9	8.1	17.5	4.1	11.1	10.9	8.5	-11.6	-14.1
		(1.5)	(7.1)		(-0.7)	(2.5)	(-0.9)	(-12.6)	(-3.4)
총수입	11.7	7.8	15.9	3.7	9.7	8.9	9.0	-11.2	-18.4
		(0.6)	(5.6)		(-0.8)	(2.9)	(1.1)	(-14.2)	(-8.7)
상품수입	10.9	6.4	16.2	4.6	11.8	10.0	10.6	-11.6	-18.1
		(0.3)	(5.9)		(0.1)	(3.0)	(1.2)	(-15.7)	(-7.0)
국내총소득(GDI)	4.8	5.9	3.7	-1.2	2.4	2.0	-2.6	-6.2	-4.6
		(1.4)	(1.1)		(-1.7)	(1.0)	(-3.3)	(-2.2)	(-0.2)

주: 1)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 경제활동별로는 수출 감소 등으로 제조업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서비스업의 성장세도 위축된 반면 건설업은 토목건설을 중심으로 증가

●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작년 4/4분기에 크게 하락한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였으나, 건설업은 전기대비 6.1% 증가하면서 상승세로 전환

●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은 운수 및 보관업의 감소폭이 확대되면서 하락

- 운수 및 보관업(전년동기비, %): ('08. 3/4) 4.2 → (4/4) -1.2 → ('09. 1/4) -7.4

경제활동별 국내총생산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7			2008					2009
	연간	3/4	4/4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1/4 ^p
국내총생산(GDP)	5.1	4.9	5.7	2.2	5.5	4.3	3.1	-3.4	-4.3
		(1.3)	(1.3)		(1.1)	(0.4)	(0.2)	(-5.1)	(0.1)
농림어업	4.0	8.2	-0.7	5.5	7.4	4.4	4.2	6.4	1.2
		(0.8)	(-2.9)		(5.8)	(0.8)	(0.6)	(-0.1)	(-0.4)
제조업	7.2	6.3	10.2	3.1	9.1	8.4	5.6	-9.1	-13.5
		(2.5)	(2.4)		(1.2)	(1.7)	(0.1)	(-11.9)	(-3.2)
전기가수도업	3.8	3.4	7.3	5.1	8.3	3.9	6.2	1.4	8.2
		(2.5)	(3.4)		(1.4)	(-2.8)	(4.5)	(-1.6)	(8.0)
건설업	2.6	1.5	2.2	-2.4	0.8	-1.5	-1.0	-6.3	0.6
		(0.5)	(1.3)		(-1.4)	(-2.2)	(1.1)	(-4.2)	(6.1)
서비스업 ¹⁾	5.1	5.1	5.6	2.5	4.4	3.3	2.6	-0.1	-0.5
		(1.1)	(1.2)		(0.8)	(0.1)	(0.5)	(-1.4)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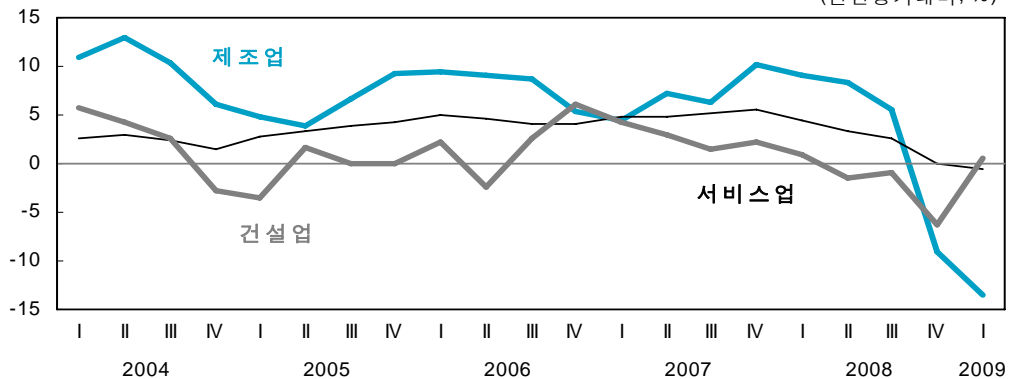
주: 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운수창고 및 통신업,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문화 및 오락, 기타서비스업 포함.

2) ()안은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주요 부문별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



- 금년 1/4분기 내수부문의 성장기여도가 -3.6%p로 침체상태를 지속하였으나, 순수출의 성장기여도가 4.3%p로 증가하면서 경기급락을 완충함.
 - 내수(재고제외)의 성장기여도는 금년 들어서도 민간소비의 부진이 지속되고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투자 위축이 지속되면서 침체된 모습
 - 재고부문의 성장기여도는 -5.3%p를 기록
 -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수출의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수입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4.3%p까지 상승

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

(기여도: %p, 기여율: %)

	2007			2008					2009
	연간	3/4	4/4	연간 ^p	1/4 ^p	2/4 ^p	3/4 ^p	4/4 ^p	1/4 ^p
내수(재고 제외)	4.7	4.1	4.1	0.6	2.7	2.0	1.9	-3.5	-3.6
(기여율)	(93.0)	(82.9)	(72.8)	(29.1)	(49.3)	(45.0)	(60.7)	(103.3)	(82.4)
민간소비	2.8	2.9	2.4	0.5	2.3	1.2	0.8	-2.0	-2.5
설비투자	0.9	0.4	0.7	-0.2	0.1	0.1	0.4	-1.3	-2.1
건설투자	0.3	0.0	0.2	-0.4	-0.4	0.0	0.0	-1.0	0.0
총수출	5.0	3.7	6.9	2.4	4.6	4.8	3.9	-3.0	-5.5
총수입	4.5	3.0	6.0	1.5	4.0	3.6	3.6	-4.6	-9.8
순수출	0.5	0.7	0.9	0.9	0.6	1.2	0.3	1.6	4.3
(기여율)	(10.4)	(14.4)	(16.0)	(41.6)	(10.4)	(27.7)	(9.5)	(-46.0)	(-99.4)
국내총생산	5.1	4.9	5.7	2.2	5.5	4.3	3.1	-3.4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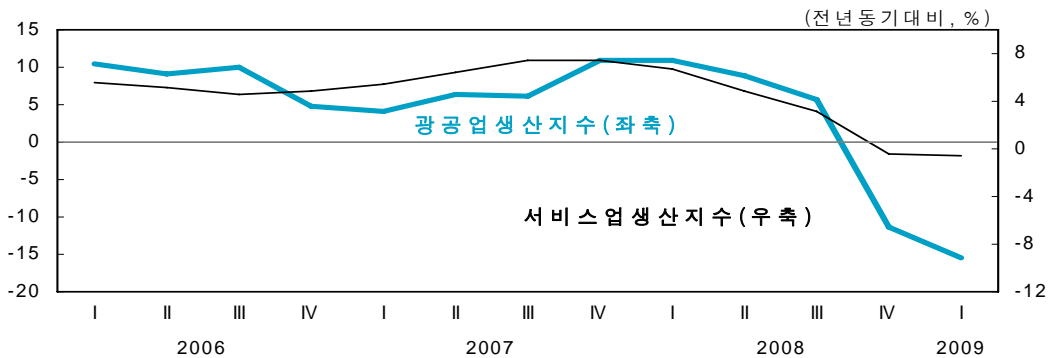
2. 景氣

대부분의 경기관련지표들이 작년 4/4분기에 급락하였으나 금년 들어 급락세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

■ 생산 증가세는 작년 4/4분기에 급락하였으나, 금년 1/4분기 중 급락세가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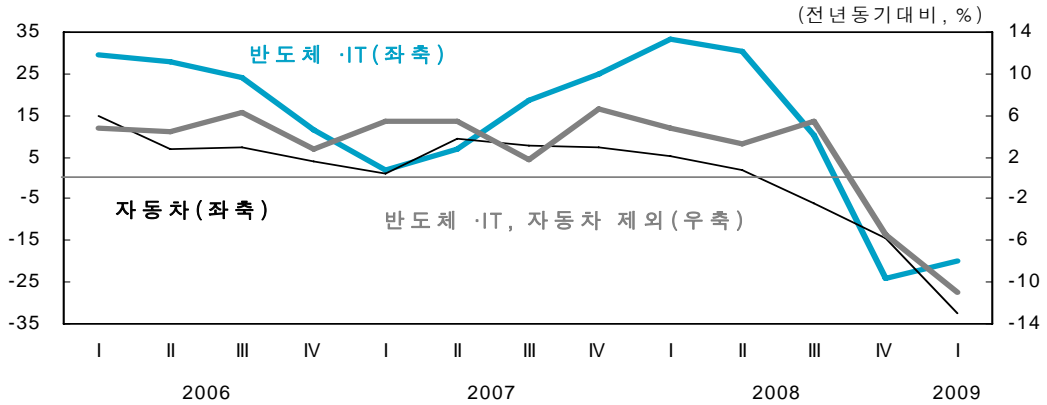
- 작년 2/4분기 이후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되어 온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은 4/4분기부터 급락하며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였으나, 금년 1/4분기중에는 감소세가 크게 완화
 - 광공업생산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은 작년 4/4분기(-11.3%)부터 급락하여 2009년 1/4분기에는 사상 최저치인 -15.5%를 기록하였으나, 계절조정 전기대비 증가율은 작년 4/4분기(-11.9%)에 비해 큰 폭으로 둔화(-2.8%)
 - 서비스생산의 전기대비 증가율도 작년 4/4분기의 -1.9%에서 0.3% 증가로 전환

광공업생산과 서비스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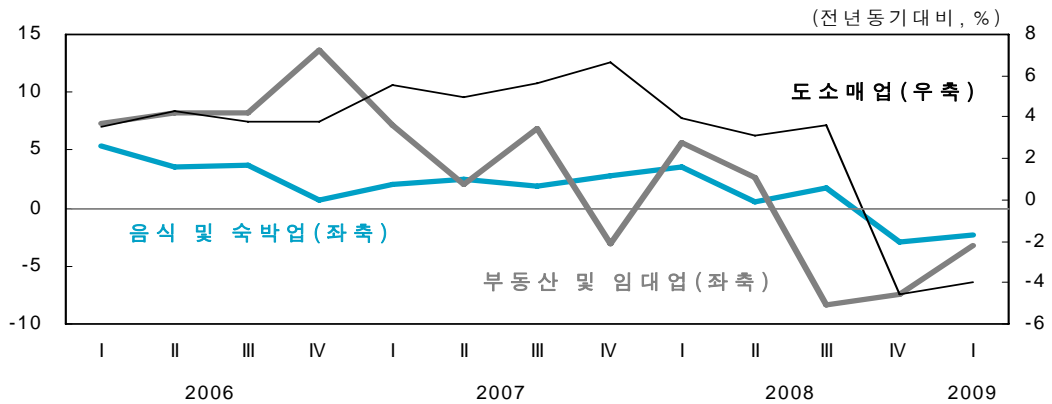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은 반도체·IT 부문과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급격히 감소
 - 전기대비 증가율로 보면 반도체 및 IT 생산의 급락은 금년 1/4분기에 다소 완화('08. 4/4분기 -24.9% → '09. 1/4분기 9.4%) 되는 모습이나 자동차 생산의 감소세는 확대('08. 4/4분기 -3.4% → '09. 1/4분기 -19.9%)

부문별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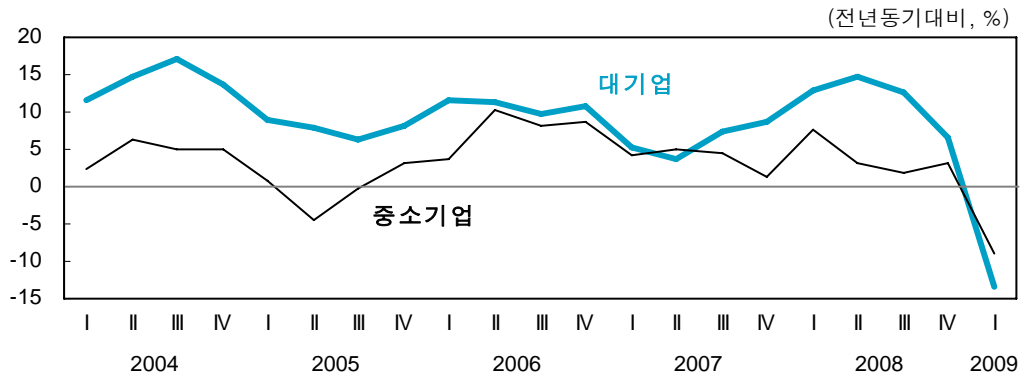
- 서비스생산은 작년 하반기부터 크게 위축되었던 도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부동산 산업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둔화되며 전기대비 0.3% 증가(작년 4/4분기 -1.9%)
 - 반면, 운수업의 감소세는 지속되는 모습('08.4/4분기 -5.7% → '09.1/4분기 -5.5%)

부문별 서비스생산



-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생산이 모두 빠르게 위축되는 가운데, 수출출하와 내수출하의 감소세는 다소 완화되는 모습
- 작년 하반기 이후 대기업의 생산이 중소기업보다 빠르게 감소하면서 금년 1/4분기에는 대기업의 생산이 더 큰 폭으로 감소
 - 중소기업 생산 증가율이 2008년 3/4분기 3.1%에서 2009년 1/4분기에 -15.5%로 감소한 가운데, 대기업 생산 증가율은 동기간 중 6.6%에서 -16.7%로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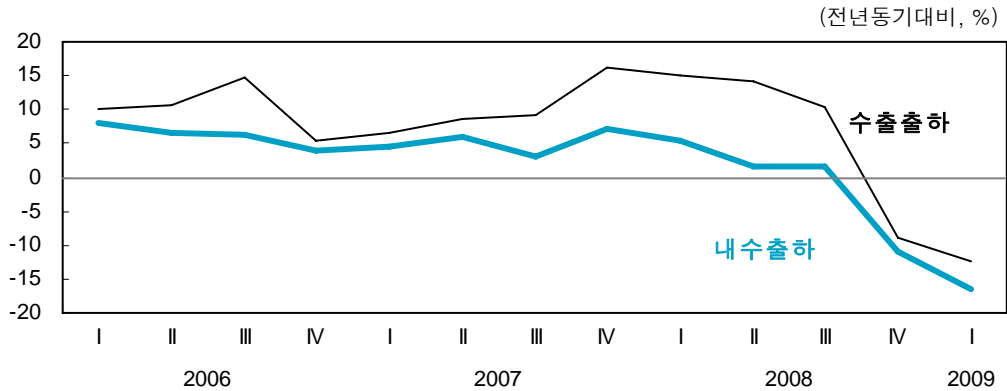
대기업 및 중소기업 산업생산



● 수출출하와 내수출하의 감소세가 전년동기대비로는 심화되었으나, 전기대비로는 상당폭 둔화

— 전기대비 수출출하 증가율('08.4분기 -14.0% → '09.1/4분기 -1.5%)과 내수출하 증가율('08.4분기 -9.4% → '09.1/4분기 -5.3%)의 감소폭이 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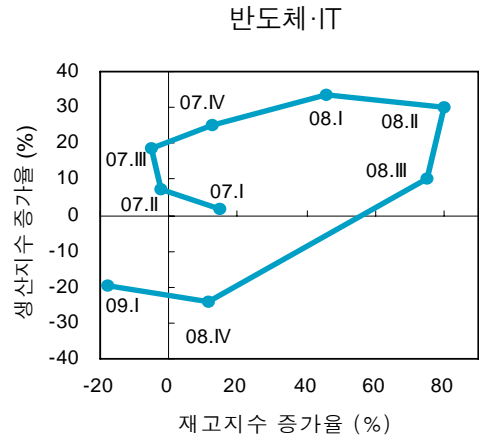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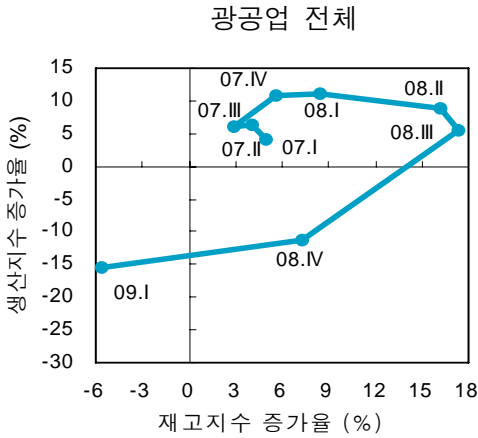
수출출하와 내수출하



■ 생산·재고 순환은 재고 조정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 향후 생산부문의 회복 가능성을 시사

● 재고 증가율은 금년 1/4분기 -5.7%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반도체·IT부문의 재고 증가세는 작년 3/4분기의 75.0%에서 금년 1/4분기 -17.9%로 급격히 감소

생산·재고 순환



생산·출하·재고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2008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p	1월	2월 ^p	3월 ^p
광공업생산지수	10,000	6.9	10.9	8.9	5.6	-11.3	-15.5	-25.5	-10.0	-10.6
자동차	1,101.2	-3.7	5.3	1.7	-6.2	-14.5	-32.6	-49.2	-20.2	-26.3
반도체IT산업 ¹⁾	1,970.4	9.5	33.5	30.2	10.3	-24.2	-19.8	-31.8	-15.1	-12.2
자동차반도체IT산업제외	6,928.4	1.9	4.8	3.2	5.5	-5.5	-11.0	-19.0	-6.3	-7.2
서비스업생산지수	1,000	3.4	6.7	4.8	3.2	-0.4	-0.5	-1.1	0.1	-0.6
도·소매업	218.3	1.4	4.0	3.1	3.6	-4.6	-4.0	-2.4	-4.1	-5.2
금융 및 보험업	152.6	9.7	16.1	9.8	9.6	4.5	6.7	4.3	7.5	8.1
출하지수		2.4	9.1	6.6	5.2	-10.1	-14.8	-23.4	-9.3	-11.2
내 수		-0.7	5.4	1.7	1.7	-11.0	-16.4	-24.9	-10.6	-13.3
수 출		7.1	14.9	14.3	10.3	-8.8	-12.4	-21.3	-7.6	-8.4
재고지수 ²⁾		12.3	8.5	16.2	17.3	7.3	-5.7	0.4	-4.9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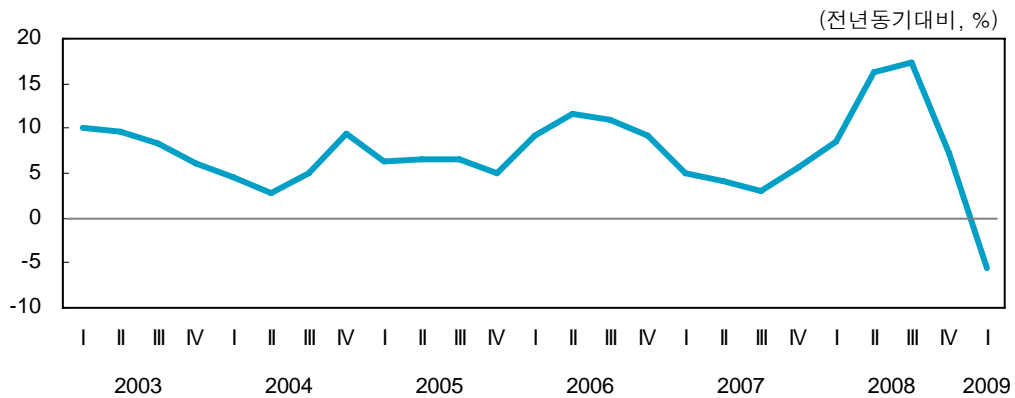
주: 1) p는 잠정치.

2) IT산업은 컴퓨터 및 주변장치, 통신 및 방송 장비,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을 포함하며 반도체부문은 제외.

3) 재고는 연말, 분기말 기준임.

자료: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각 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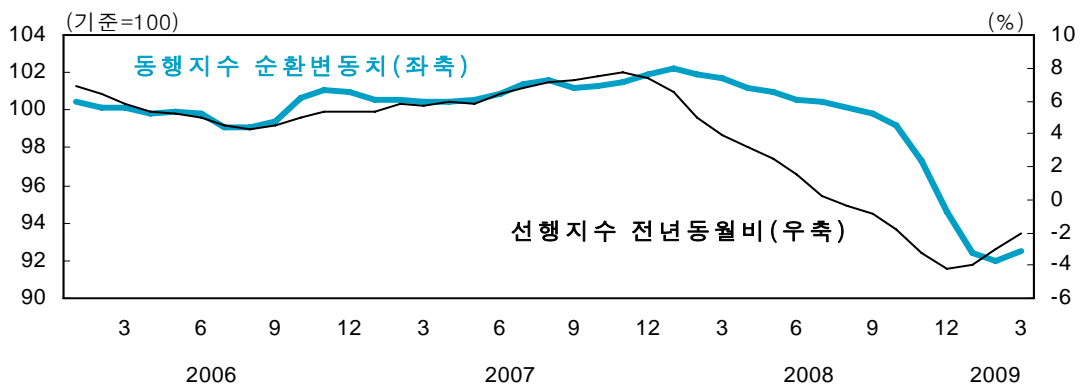
재고지수 추이



■ 경기종합지수는 1/4분기 들어 소폭 개선되는 모습

- 선행종합지수(전년동월비)는 2007년 말 이후부터,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초 이후 13개월 동안 하락세를 지속해 왔으며, 2008년 4/4분기에 급격히 하락
 - 선행종합지수는 기계수주액, 자본재수입액, 종합주가지수 등의 항목에서 감소하였고, 동행종합지수는 광공업생산지수, 제조업가동률지수, 내수출하지수 등의 항목에서 하락
- 그러나, 선행지수는 전월대비로 3개월 연속 상승하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도 14개월 만에 상승하는 등 경기종합지수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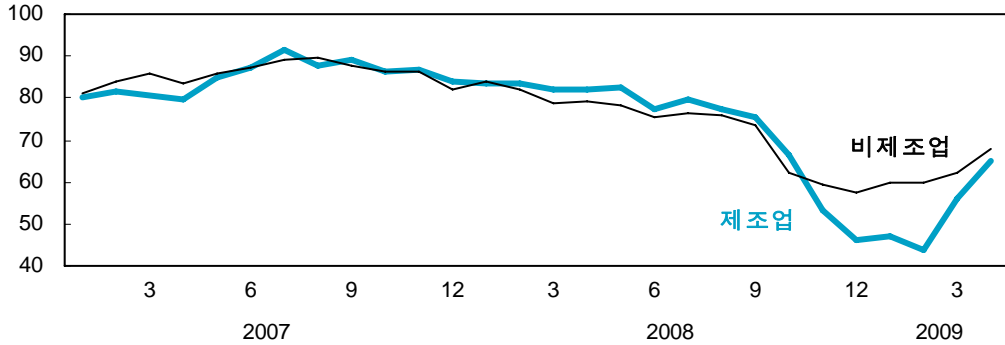
경기종합지수



■ 기업경기실사지수도 급격한 하락세에서 다소 진정되는 모습

- 2008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악화되어온 기업경기실사지수 실적치가 금년 들어 점차 개선되고 있는 모습

기업경기실사지수 실적치(계절조정)



자료: 한국은행.

기업 경기 실사지수

		2008				2009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BSI (한국은행)	제조업*	75 (78)	66 (77)	53 (64)	46 (52)	47 (45)	44 (51)	56 (48)	65 (58)	(67)
	수출기업	76 (81)	73 (82)	56 (69)	40 (51)	39 (40)	40 (40)	58 (45)	74 (61)	(75)
	내수기업	70 (77)	63 (75)	52 (62)	50 (53)	52 (47)	45 (54)	57 (52)	65 (59)	(68)
	대기업	75 (86)	73 (81)	55 (68)	42 (52)	45 (43)	43 (46)	61 (48)	74 (63)	(76)
	중소기업	71 (75)	63 (77)	53 (63)	47 (52)	48 (45)	42 (50)	55 (50)	65 (58)	(68)
	비제조업*	73 (79)	62 (75)	59 (63)	58 (60)	60 (57)	60 (61)	62 (58)	68 (61)	(68)
BSI* (전경련)		75.4 (94.1)	64.3 (82.0)	52.1 (62.8)	52.5 (57.0)	63.7 (54.8)	67.8 (71.3)	76.8 (72.0)	85.7 (82.1)	(95.0)

주: 1) ()은 전망BSI(Business Survey Index).

2) *는 계절조정 지수.

자료: 한국은행, 전경련.

3. 消 費

작년 4/4분기 이후 소비관련지표들은 급격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며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는 모습

■ 작년 9월 이후 지속되어온 소비관련지표들의 급락세는 최근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민간소비는 여전히 위축된 모습

- 민간소비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작년 4/4분기 급락(전기대비 -4.6%)을 기록한 이후, 금년 1/4분기에는 소폭 상승(전기대비 0.4%)함으로써 급락세는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축된 모습(전년동기대비 -4.4%)
 - 형태별로도 모든 구성항목에서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내구재, 준내구재 및 해외소비의 위축이 두드러짐.

민간소비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¹⁾	2006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연간 ^P	1/4	2/4	3/4	4/4 ^P	1/4 ^P
민간소비 (계절조정 ²⁾)	100.0	4.7	5.1	0.9	4.0	2.3	1.4	-3.7	-4.4
소비재 ³⁾	39.5	3.8	4.5	2.1	6.1	3.1	2.5	-3.3	-
내구재	8.0	9.5	9.1	0.4	7.7	6.7	-0.3	-11.9	-
준내구재	7.0	3.5	3.2	-1.5	4.5	0.3	0.9	-9.8	-
비내구재	24.5	2.3	3.4	3.6	6.0	2.8	3.9	1.6	-
서비스	56.8	4.3	5.0	2.7	4.0	3.4	2.6	1.0	-
해외소비 ⁴⁾	1.1	37.5 [0.7]	15.4 [0.4]	-56.8 [-1.5]	-26.6 [-0.7]	-36.0 [-0.9]	-39.8 [-1.1]	-146.5 [-3.1]	-
가계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2.5	4.2	7.4	2.9	3.7	3.9	2.0	1.7	2.2
정부소비		6.6	5.4	4.2	3.6	4.0	4.5	4.7	7.2

주: 1) 비중은 2008년 연간 기준임.

2) 전기대비임.

3) 소비재는 민간소비 중 가계의 내구재, 준내구재 및 비내구재에 대한 소비의 합계임.

4) []는 순해외소비(=거주자의 해외소비 - 비거주자의 국내소비)의 민간소비증가율에 대한 전년동기대비 기여분
자료: 한국은행.

- 소비재판매액지수 등 월별 소비관련지표들도 작년 9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하락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축된 모습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작년 4/4분기에 내구재 및 준내구재를 중심으로 급락(전기대비 -3.5%)을 기록한 이후 금년 1/4분기에는 전기대비 소폭 증가(0.4%)함으로써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지만, 여전히 위축된 모습(전년동기대비 -4.9%)을 보임.
 - 또한, 소비재출하지수도 여전히 위축된 모습(전년동기대비 -9.5%)을 보임.

소비재판매액지수 및 소비재출하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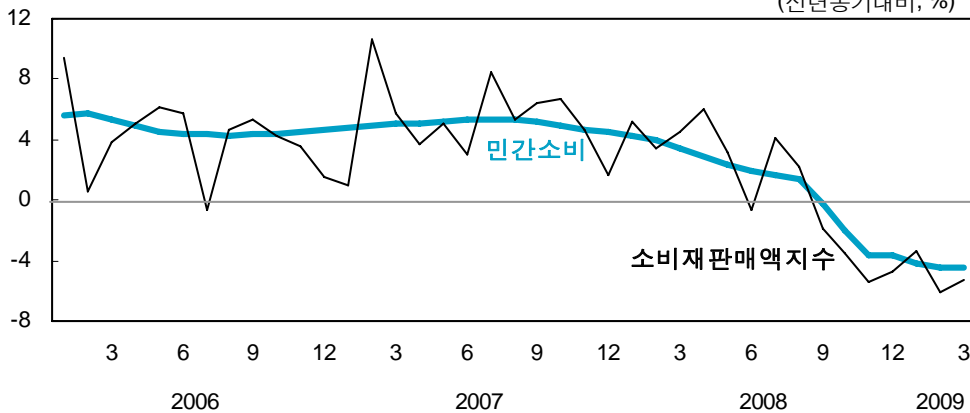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6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P	1월	2월 ^P	3월 ^P
소비재판매액지수 (계절조정 ¹⁾)	4.0	5.1	1.0	4.4 (1.1)	2.9 (-1.3)	1.4 (-0.1)	-4.2 (-3.5)	-4.9 (0.4)	-3.3 (-2.1)	-6.1 (5.2)	-5.3 (-1.9)
내 구 재	13.8	9.6	1.9	9.5	8.7	0.0	-9.9	-13.6	-20.8	-3.7	-15.1
승용차	6.4	6.2	-2.0	9.6	7.1	-4.9	-19.5	-21.3	-30.9	-9.1	-22.4
준내구재	4.0	3.9	-2.4	3.8	-2.1	0.6	-9.9	-0.9	-1.2	-0.5	-0.8
비내구재	3.1	5.2	0.7	1.9	0.3	1.2	-0.4	-1.5	5.1	-8.4	-1.1
소비재출하지수 (계절조정 ¹⁾)	6.6	6.0	1.4	5.6 (2.8)	4.2 (-1.1)	2.0 (-3.2)	-5.8 (-4.5)	-9.5 (-1.4)	-15.6 (-0.8)	-3.9 (3.1)	-8.1 (-1.3)

주: 1) 전월(기)비임.
자료: 통계청.

민간소비와 소비재판매액지수

(전년동기대비, %)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최근의 소비 급락세의 완화는 생산부문의 하락세 진정,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의 효과 및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의 축소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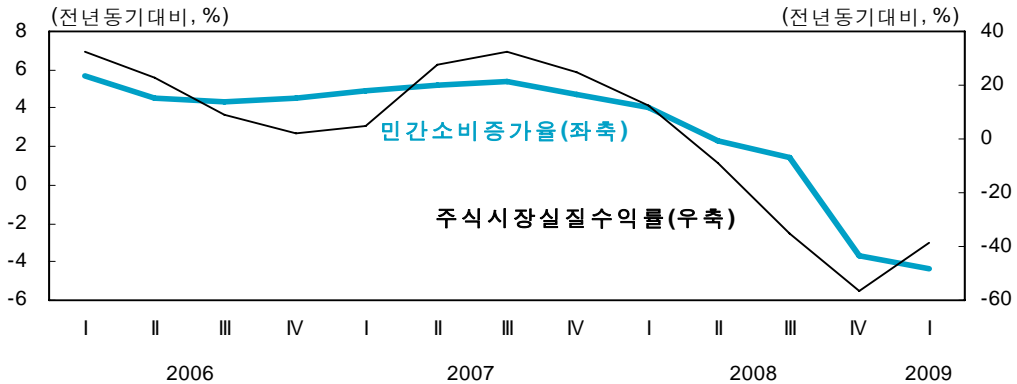
● 생산 등 실물경제의 급락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는 모습은 주가반등 및 환율 안정화로 이어지면서 가계소비 하락을 완화하는데 기여

－ 국내총생산은 금년 1/4분기에 소폭의 증가(전분기대비 0.1%)를 기록함으로써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며, 작년말 이후 유가 및 원자재가 하락에 따른 교역조건 개선도 민간 소비 하락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또한, 정책금리의 지속적인 인하 및 최근의 신용경색 완화, 정부소비 및 SOC 투자 등의 정부지출 증가도 민간소비 하락을 완충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임.

－ 정부소비는 재정지출 확대과 조기집행에 힘입어 금년 1/4분기에 7.2% 증가를 기록

민간소비 증가율과 주식시장 실질수익률



자료: 한국은행, 한국거래소.

● 한편, 소비심리는 작년 9월 이후 국제금융위기의 심화에 따라 위축된 모습을 지속하였으나, 금년 4월 개선되는 모습

－ 금년 1/4분기까지 위축된 모습을 보였던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 들어 대부분 항목에서 큰 폭의 상승을 기록하였는데, 특히 현재경기판단 및 향후경기전망 관련 심리지수의 급상승이 두드러짐.

－ 이러한 소비심리의 상승은 최근 실물경제의 급락세가 진정되고, 주식시장 반등 및 환율 안정 등 국제금융위기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소비자심리지수

	2007	2008				2009				
	4/4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소비자심리지수	103	102	85	92	84	84	84	85	84	98
현재생활형편	83	81	67	74	71	72	72	75	70	82
생활형편전망	93	93	72	83	77	79	80	76	72	95
가계수입전망	100	98	87	94	85	83	83	83	82	91
소비지출전망	114	113	102	104	94	91	91	91	91	100
현재경기판단	75	66	40	39	35	35	33	38	35	65
향후경기전망	89	96	52	70	58	65	66	65	64	100

자료: 한국은행.

■ 고용사정 악화 및 여전히 높은 가계신용상환부담 등은 소비여력을 약화시켜 본격적인 소비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

- 구직단념자 등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및 고용률 감소 등 고용시장 불안은 빠른 소비 회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취업자 증감(전년동기대비, 천명): ('08.3/4) 142 → (4/4) 54 → ('09.1/4) -147

–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8.3/4) 1.9 → (4/4) 2.5 → ('09.1/4) 3.3

- 또한, 높은 가계신용에 따른 신용상환부담 등도 소비여력을 약화시킬 여지가 있음.

– 가계신용잔액(조원): ('06말) 581.9 → ('07말) 630.6 → ('08말) 688.2

– 가계신용상환부담* (%): ('06말) 67.3 → ('07말) 70.2 → ('08말) 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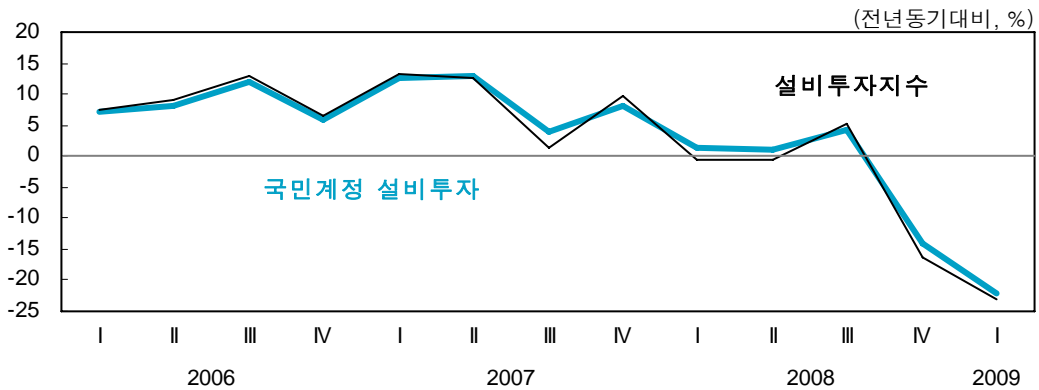
* 가계 신용상환부담은 (금분기 가계신용/전년도 GNI)*100을 대용변수로 사용함.

4. 設備投資

설비투자의 급락세는 진정되고 있으나, 당분간 본격적인 회복세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

-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 이후 기계류 부문을 중심으로 급속히 둔화되면서 4/4분기 중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낸 후 최근까지 침체상태를 지속
- 2007년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둔화되어 온 설비투자는 2008년 3/4분기부터 감소세로 전환
 - 국민계정 설비투자(전년동기비, %) : ('08.3/4) 4.3 → ('08.4/4) -14.0 → ('09.1/4) -22.1
 - 설비투자지수(전년동기비, %) : ('08.3/4) 5.3 → ('08.4/4) -16.2 → ('09.1/4) -2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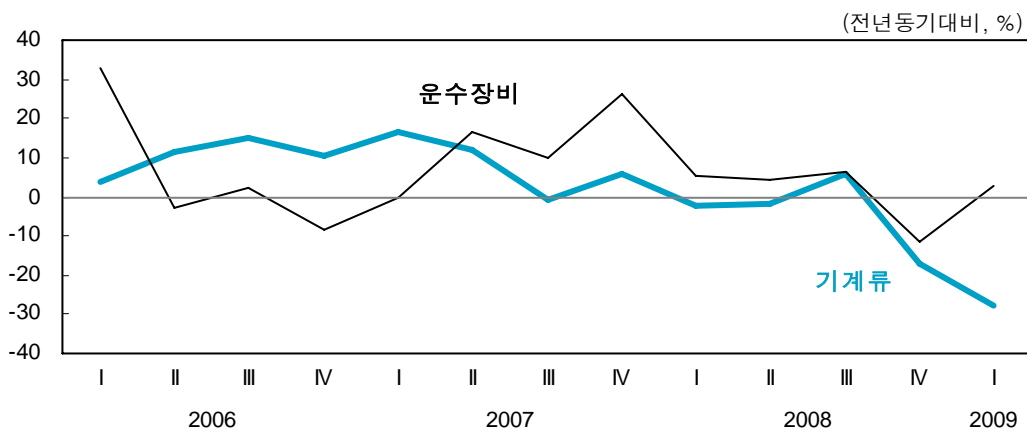
국민계정 설비투자과 설비투자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기계류 부문은 작년 3/4분기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설비투자 침체를 주도
 - 2009년 1/4분기 기계류 부문의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1998년 4/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7.7%를 기록
 - 반면 동기간 운수장비 부문의 설비투자지수 증가율은 민간부문 전용기 구입 등의 일시적인 요인 및 공공부문 투자지출 증가 등으로 인해 2.8%를 기록하며 증가세로 전환

형태별 설비투자지수



자료: 통계청.

설비투자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¹⁾	2008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p	1월	2월 ^p	3월 ^p
설비투자	1.00	-2.0	1.5	1.1	4.3	-14.0	-22.1	-	-	-
(계절조정)	-	-	-0.4	0.4	0.2	-14.2	-9.6	-	-	-
기계류	0.79	-2.7	-1.2	-0.1	6.5	-15.3	-	-	-	-
운수장비	0.21	0.4	12.2	5.1	-3.6	-9.9	-	-	-	-
설비투자지수	-	-3.2	-0.7	-0.5	5.3	-16.2	-23.0	-25.9	-19.5	-23.7
(계절조정)	-	-	(-3.8)	(-0.7)	(1.1)	(-13.5)	(-11.7)	(-5.4)	(-0.7)	(-1.5)
기계류	-	-4.0	-2.2	-1.6	5.6	-17.2	-27.7	-28.9	-26.2	-27.9
운수장비	-	0.6	5.2	4.4	6.2	-11.3	2.8	-8.9	17.8	0.8
기계류내수출하	-	0.0	1.3	0.6	6.5	-7.4	-12.3	-20.7	-5.3	-10.9
내수용자본재수입액	-	6.3	11.9	11.8	16.1	-12.1	-29.5	-34.2	-19.5	-33.2
기계류수입액	1.00	6.4	12.0	8.1	20.0	-11.5	-27.9	-33.5	-15.2	-33.3
기계류	0.69	2.7	2.9	6.4	16.7	-13.3	-30.0	-32.8	-21.6	-34.7
운수장비	0.31	15.4	44.4	12.0	27.4	-7.7	-22.7	-35.3	3.4	-29.8
국내기계수주	1.00	-5.5	25.2	8.4	-7.6	-39.5	-36.0	-46.9	-28.8	-30.2
(계절조정)	-	-	(-4.4)	(-14.0)	(-7.7)	(-21.2)	(1.9)	(7.4)	(3.0)	(-3.7)
기계류	0.82	-1.4	38.3	10.9	-10.0	-38.1	-45.3	-52.4	-44.2	-37.9
운수장비	0.18	-20.8	-25.2	-2.4	2.6	-43.7	29.6	-4.1	93.1	15.1

주: 1) p는 잠정치.

2) 2009년 1/4분기 설비투자는 속보치임.

3) 비중은 2008년 연간 기준이며, (계절조정)은 전기대비 증가율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 설비투자의 급락세는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침체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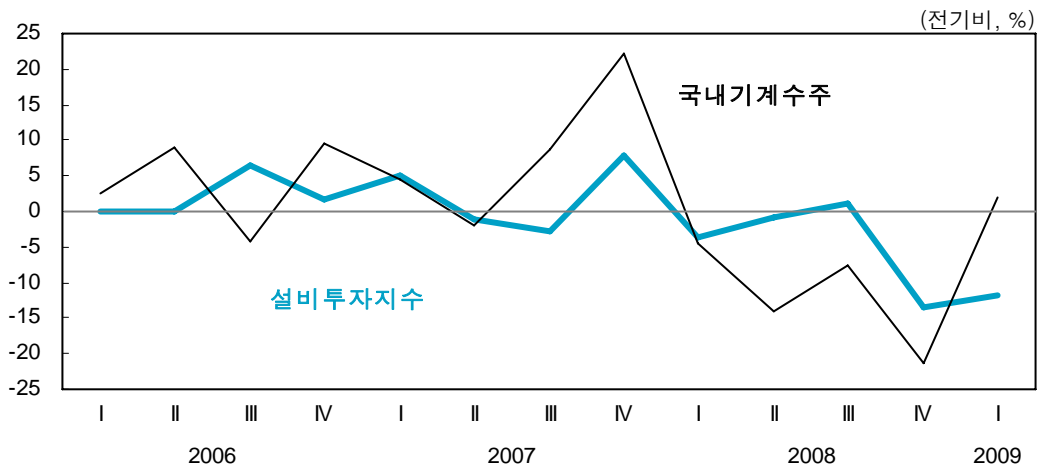
● 금년 1/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은 -9.6%를 기록하여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

— 국민계정 설비투자(계절조정 전기비, %) : ('08.3/4) 0.2 → ('08.4/4) -14.2 → ('09.1/4) -9.6

● 동기간 설비투자지수 및 국내기계수주의 증가율(계절조정 전기대비)도 감소폭이 축소되거나 증가세로 전환되어 설비투자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음을 시사

— 2009년 1/4분기 국내기계수주의 전기대비 증가율은 1.9%를 기록하여 증가세로 전환

설비투자지수와 국내기계수주(계절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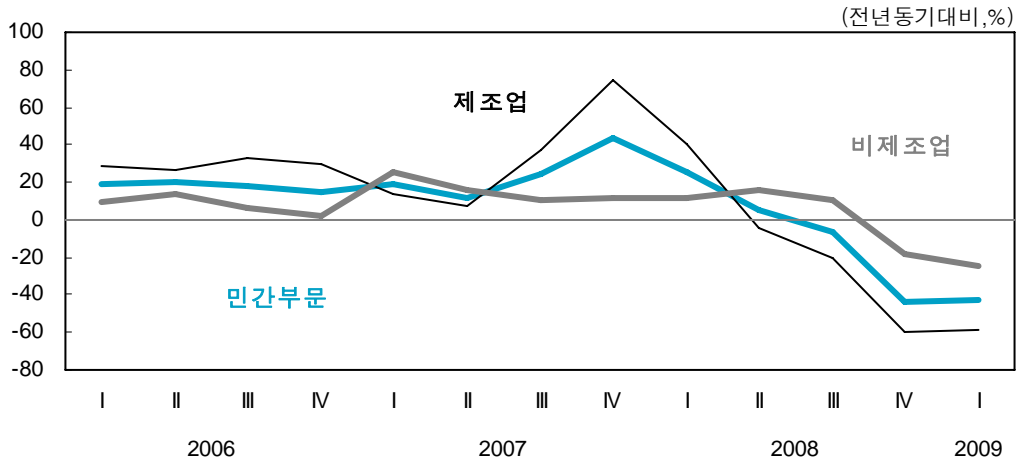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그러나 금년 1/4분기에도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가 전년동기대비 36.0% 감소하여 설비투자 침체가 상당기간 계속될 것임을 시사

— 제조업 부문의 국내기계수주는 2008년 4/4분기와 2009년 1/4분기에서 각각 전년동기 대비 59.8%와 58.5%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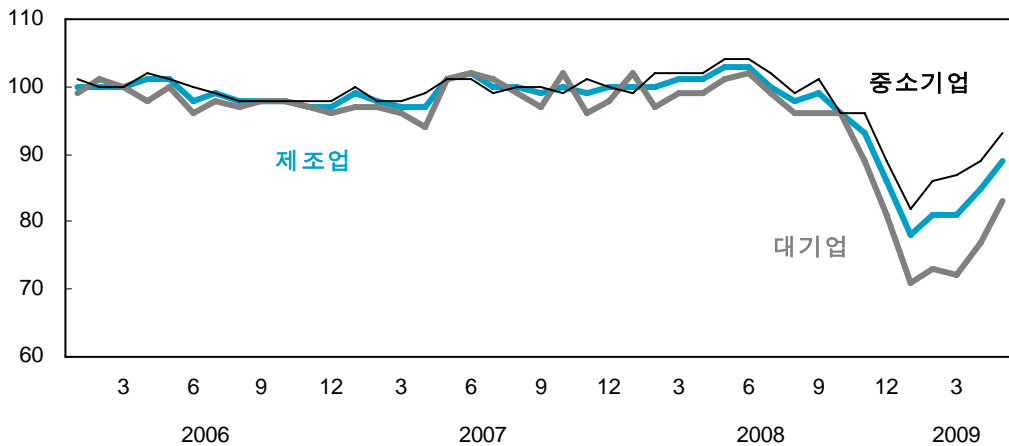
국내기계수주



자료: 통계청.

- 체감경기지표인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최근 다소 개선된 모습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을 기록
 - 특히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환경 악화로 수출기업 비중이 높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5. 建設投資

건설투자는 공공부문 SOC 관련 지출 확대에 힘입어 토목부문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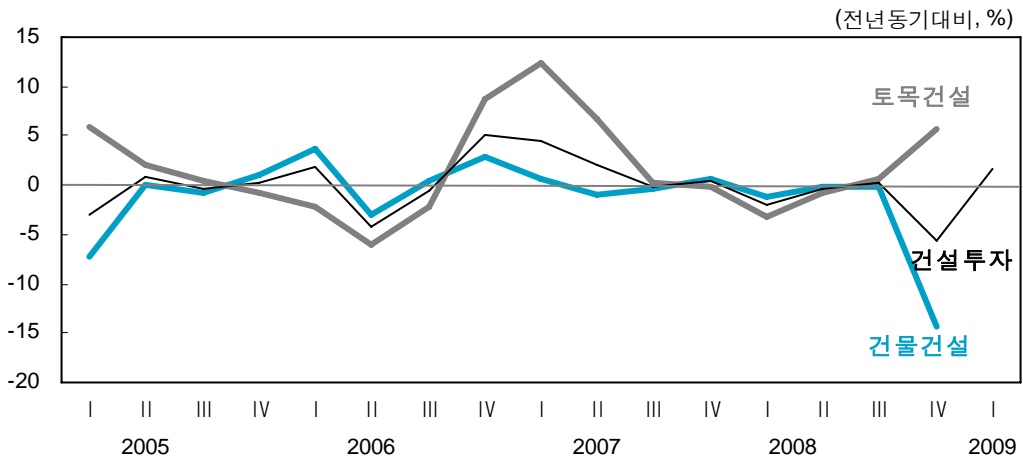
■ 금년 1/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7%를 기록하며 2008년 하반기의 부진에서 다소 회복하는 모습

● 2008년 중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건설투자는 지난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5.6%로 하락하며 큰 폭으로 감소

● 그러나, 2009년 1/4분기 중 건설투자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1.7%를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로 전환

－ 건설투자(전년동기대비, %): ('08.3/4) 0.2 → ('08.4/4) -5.6 → ('09.1/4) 1.7

건설투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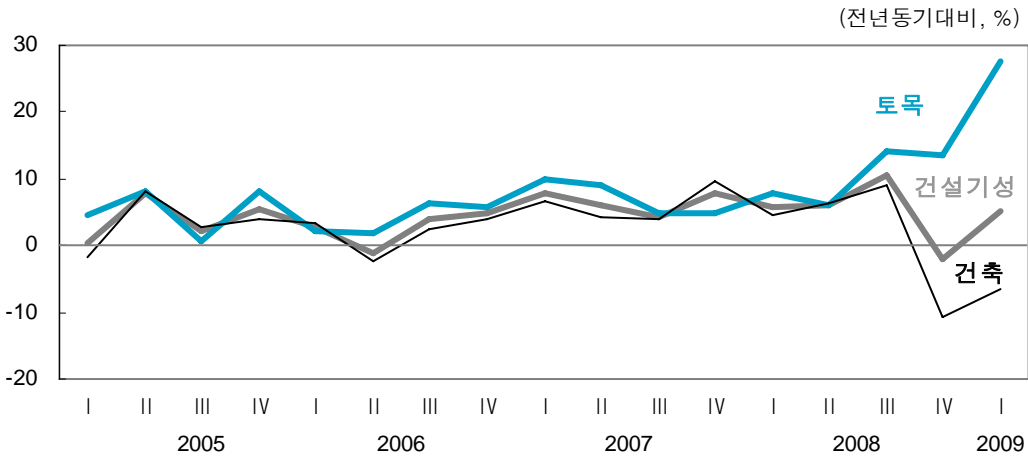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건설투자의 증가세 전환은 공공부문 SOC 관련 지출 확대에 힘입은 토목건설
부문의 실적 개선에 따른 결과임

- 부문별로 살펴보면 작년 4/4분기 건물건설투자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4.3%로
급감한 반면, 토목건설투자는 5.7% 증가를 기록
- 금년 1/4분기 건설기성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5.2%를 기록하여 증가세로 전환
 - 건설기성액(전년동기대비, %) : ('08.3/4) 10.6 → ('08.4/4) -2.2 → ('09.1/4) 5.2
 - 동기간 공공 및 토목 부문 건설기성액은 전년동기대비 각각 27.8%와 27.7% 증가하여
전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확대되는 모습
 - 반면 민간 및 건축 부문의 경우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각각 -5.6%와 -6.6%를 기록

건설기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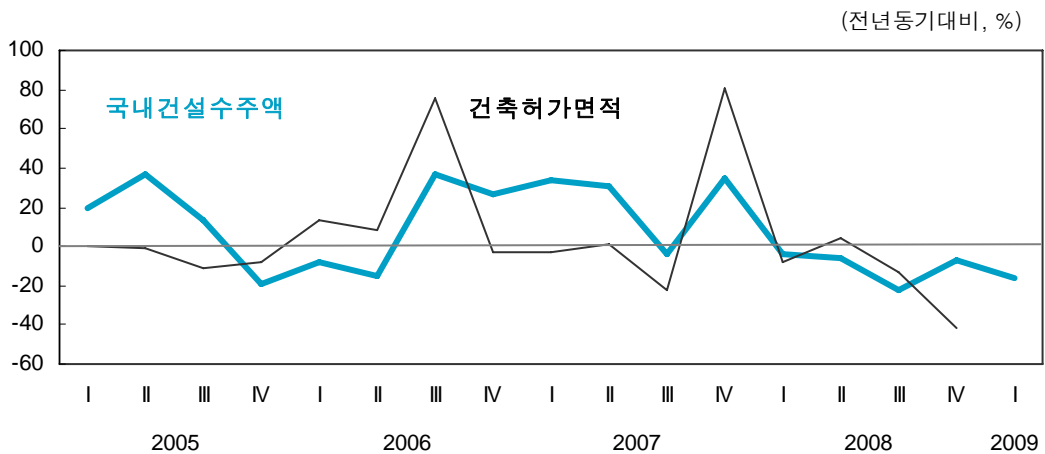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는 민간 및 건축 부문 건설수주의 부진으로 감소세가 지속
되는 모습

- 2009년 1/4분기 건설수주 증가율(전년동기대비)은 -16.5%를 기록하여 감소세가
지속
 - 건설수주(전년동기대비, %): ('08.3/4) -22.7 → ('08.4/4) -6.5 → ('09.1/4) -16.5

- 동기간 민간 및 건축 부문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각각 -38.4%와 -41.6%를 기록하여 감소폭이 전분기에 비해 크게 확대
 - 반면 공공 및 토목 부문 건설수주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전분기보다 확대되어 각각 22.0%와 58.3% 기록
- 2009년 2월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기대비 34.8% 감소하였으나 감소폭은 전월에 비해 다소 완화되는 모습

건설수주 및 건축허가면적 추이



자료: 한국은행, 국토해양부.

건설투자 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¹⁾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건설투자	1.00	-2.1	-1.9	-0.3	0.2	-5.6	1.7	-	-	-
(계절조정)	-	-	-2.5	-0.3	0.1	-3.0	5.3	-	-	-
건물건설	0.60	-4.3	-1.2	-0.1	-0.1	-14.3	-	-	-	-
토목건설	0.40	1.3	-3.2	-0.7	0.7	5.7	-	-	-	-
디플레이터	-	10.8	6.1	7.2	13.2	15.1	-	-	-	-
건설기성액	1.00	4.7	5.6	6.1	10.6	-2.2	5.2	-0.4	12.0	4.8
(계절조정)	-	-	0.5	1.0	2.7	-6.2	8.3	15.1	2.8	-7.4
공공부문	0.31	6.5	6.8	3.5	6.6	8.7	27.8	25.2	34.0	25.4
민간부문	0.64	1.7	3.0	4.6	10.5	-9.1	-5.6	-11.4	2.3	-6.8
건축부문	0.63	1.7	4.6	6.3	9.0	-10.6	-6.6	-13.0	-0.3	-6.0
토목부문	0.36	10.6	7.7	5.9	14.3	13.6	27.7	23.1	36.1	25.3
국내건설수주	1.00	-9.0	-3.7	-6.1	-22.7	-6.5	-16.5	-15.0	-20.7	-14.7
(계절조정)	-	-	-20.1	-1.6	-15.6	25.3	-22.2	-36.2	-7.0	15.3
공공부문	0.31	9.1	17.4	14.6	2.9	5.0	22.0	33.8	31.6	9.7
민간부문	0.64	-15.8	-14.1	-4.7	-32.3	-15.3	-38.4	-39.7	-46.5	-31.1
건축부문	0.66	-17.4	5.3	-6.3	-37.2	-25.5	-41.6	-44.8	-58.0	-26.7
토목부문	0.33	13.9	-23.3	-5.2	16.2	50.7	58.3	162.6	73.2	12.8
건축허가면적	1.00	-20.1	-8.3	3.9	-13.5	-41.9	-41.5	-48.3	-34.8	-
주거용	0.32	-41.0	-22.6	-13.8	-30.4	-58.5	-44.0	-63.1	-24.9	-
상업용	0.28	-6.9	-20.9	37.6	-10.0	-29.7	-49.7	-53.2	-46.1	-
공업용	0.15	13.2	20.1	5.6	23.3	6.1	-40.5	-38.0	-43.0	-

주: 1) 비중은 2008년 연간 기준임.

2) 2009년 1/4분기 건설투자(국민계정)는 속보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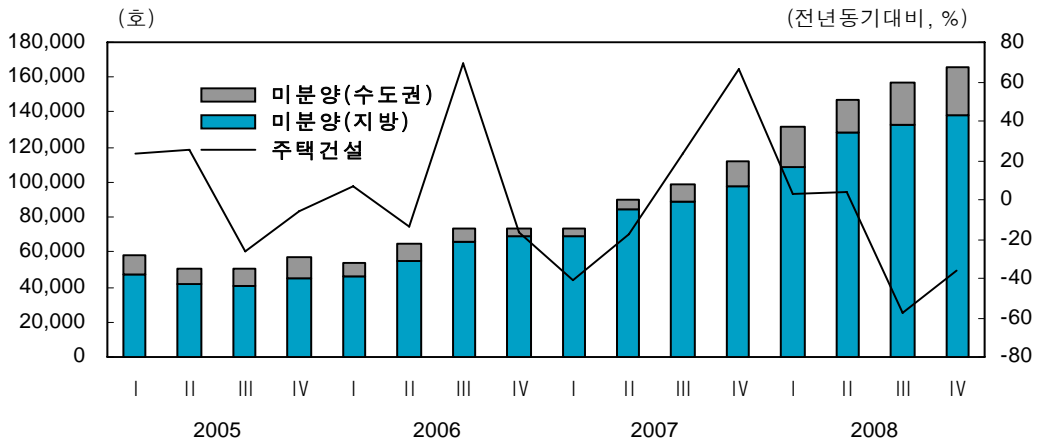
3) 2009년 1/4분기 건축허가면적은 1,2월 평균치임.

4) 계절조정은 전기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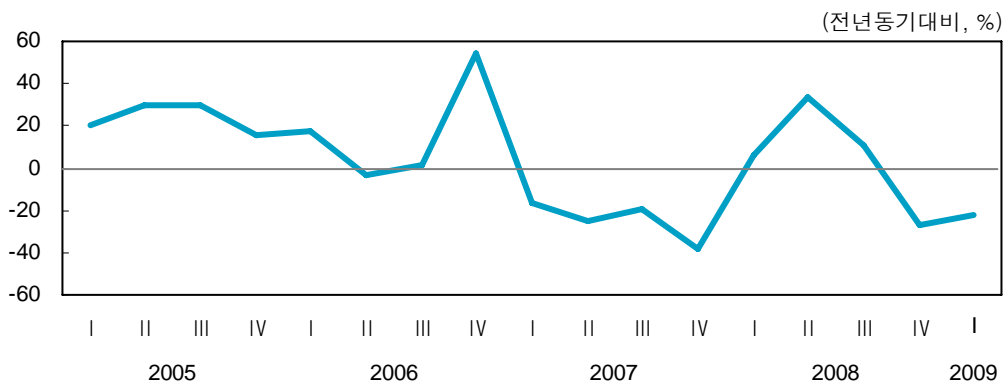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국토해양부.

- 작년 하반기 이후 주택건설실적은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미분양 주택수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택시장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
- 2008년 4/4분기 주택건설실적은 전년동기대비 36.3% 감소하여 전분기에 비해 하락폭이 둔화되었으며, 2009년 2월에는 전년동월대비 20.9% 감소
- 2009년 2월말 기준 미분양주택수는 162.0천호를 기록하여 전월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 지속
- 2009년 1/4분기 아파트 거래는 전년동기대비 21.8% 감소하였으나, 전분기에 비해 감소폭은 소폭 둔화

주택건설과 미분양 주택



아파트거래 추이



주택건설 동향

(천호,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주택건설	556.9 (18.6)	374.3 (-32.8)	51.3 (3.1)	83.9 (4.2)	63.6 (-57.9)	175.4 (-36.3)	-	9.3 (-55.1)	10.4 (-20.9)	-
아파트건설	476.4 (15.4)	263.1 (-44.8)	29.4 (-15.4)	44.1 (-23.8)	36.1 (-72.2)	153.3 (-39.6)	-	6.1 (-56.7)	6.7 (0.1)	-
미분양주택	112.2	165.6	131.8	147.2	157.2	165.6	-	162.7	161.9	-
아파트거래 ¹⁾	818.6 (-26.4)	854.2 (4.3)	228.5 (6.5)	255.9 (33.1)	202.3 (11.2)	167.3 (-27.2)	178.7 (-21.8)	46.4 (-39.7)	56.5 (-16.5)	75.6 (-9.6)

주: 1) 천건(필지수 기준).
자료: 국토해양부, 한국토지공사.

- 금년 건설투자는 주택경기 침체에 따른 주거용 부문의 부진으로 본격적인 회복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우나, 공공부문의 SOC 관련 지출 확대에 힘입어 토목건설 부문의 증가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2009년 정부 및 공공기관의 SOC 관련 지출이 10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는데 힘입어 토목건설투자의 증가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전망
 - 반면 건물건설투자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09년 하반기 중에도 누적된 미분양주택 물량의 부담 등으로 인해 주거용 건물 부문의 부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
 - 국내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비주거용 건물 부문도 부진한 상태를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예상

6. 輸出入 및 國際收支

수출은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작년 4/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수입 하락세가 더욱 큰 폭으로 나타나면서 무역수지는 흑자 기조를 유지

가.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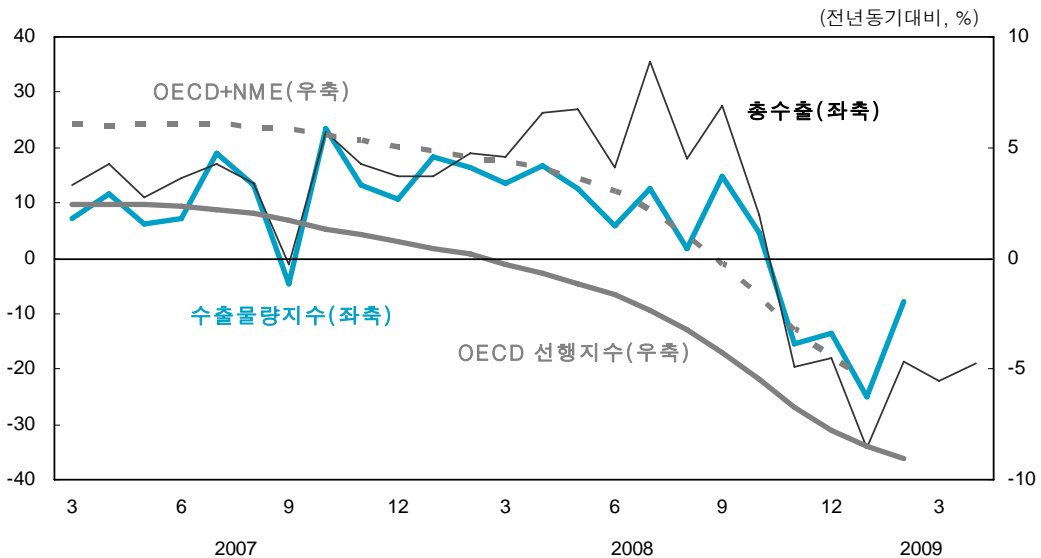
■ 수출은 작년 4/4분기 이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는 모습

● 수출은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감소세를 시험하며 지난 4/4분기 이후 하락세가 지속

— 감산 및 휴무 등으로 수출이 격감했던 1월을 제외하면 대체로 -20% 내외의 수출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수출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8년 11월) -19.5 → (12월) -17.9 → ('09년 1월) -34.2 → (2월) -18.5 → (3월) -22.0 → (4월) -19.0

OECD 경기선행지수와 우리나라 총수출액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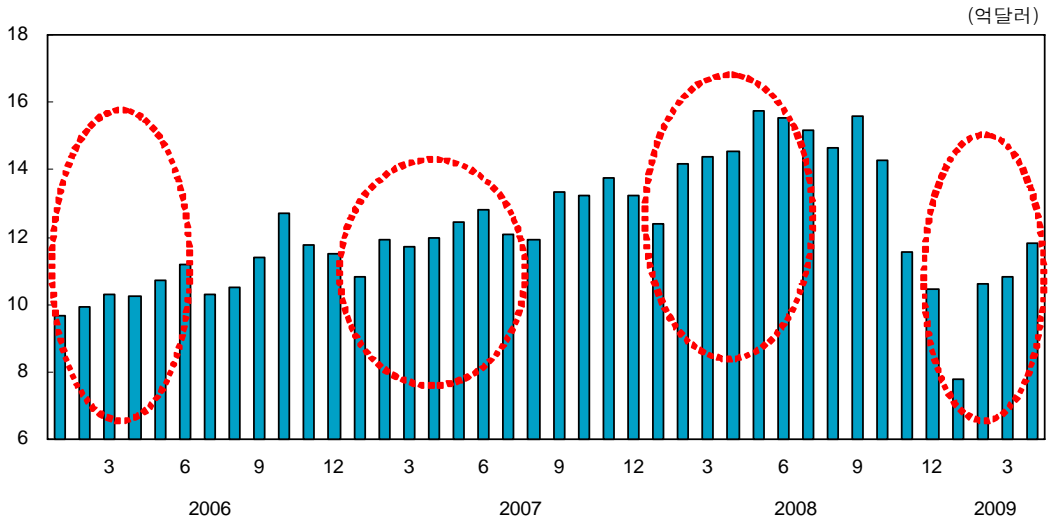
주: OECD+NME: OECD회원국 및 비회원국 주요 6개국(중국,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포함한 선행지수.
 자료: 지식경제부, 한국은행, OECD.

● 한편, 일평균 수출액은 1월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통상 상반기 중에는 일평균 수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OECD 선행지수가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를 본격적인 수출 회복의 신호로 해석하기는 다소 어려움.

* 일평균 수출액(단위:억원): (1월) 7.8 → (2월) 10.6 → (3월) 10.8 → (4월) 11.8

일평균 수출액 추이



■ 품목별로는 선박부문이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으나 다른 대부분의 품목들은 감소세를 기록

● 선박부문이 기 확보된 수주물량을 중심으로 견실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경우 물량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단가하락의 영향으로 수출금액은 감소

- 석유제품 수출물량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1월) 14.8 → (2월) 18.2 → (3월) 27.3 → (4월) 22.2

● 자동차 부문은 선진국 경기 둔화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감소세가 심화되고 있으며 반도체, 무선통신기기 등 주요 IT품목 수출도 부진한 모습

- 1~4월중 미국내 자동차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37.4% 감소를 기록(출처: Ward's Auto)

품목별 수출동향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비중 ¹⁾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4월 ²⁾
수 출	100.0	13.6	17.4	23.1	27.0	-9.9	-24.9	-19.0
(선박제외)	(89.8)	(10.2)	(17.2)	(23.2)	(21.9)	(-16.2)	(-30.6)	(-24.9)
중화학제품	91.7	13.8	17.6	24.1	27.9	-10.7	-26.0	-
반도체	7.8	-16.0	-15.6	2.6	-9.8	-39.7	-42.0	-26.2
무선통신기기	8.5	17.3	29.2	30.5	26.5	-9.2	-15.1	-18.0
컴퓨터	2.5	-22.5	5.9	-12.1	-28.4	-49.7	-49.9	-43.3
석유제품	8.9	56.8	64.0	101.7	100.9	-14.8	-41.1	-48.6
일반기계	8.8	21.2	33.6	35.7	28.6	-7.4	-37.1	-35.2
자동차	8.3	-6.0	8.7	-0.1	-13.2	-17.8	-45.8	-41.6
석유화학	7.6	11.5	22.4	22.8	25.9	-23.8	-33.1	-16.1
철강제품	7.1	29.7	13.6	33.5	56.4	15.6	-17.4	-12.4
선박	10.2	55.4	20.4	22.7	149.9	67.8	43.6	39.9
경공업제품	6.4	4.9	9.2	6.1	12.4	-7.2	-22.9	-

주: 1) 전체수출에서 차지하는 품목별 비중(2008년 기준).

2) 월전체 잠정치.

자료: 지식경제부, 「수출입 동향」 각호.

■ 지역별로는 對선진국과 對신흥시장에서 모두 감소세로 반전

- 중동, 중남미, ASEAN 등 지난해 수출호조세를 견인했던 對신흥시장 수출이 지난해 4/4분기중 감소세로 반전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는 모습

- 對신흥시장(중국, ASEAN, 중동, 중남미) 증가율 추이(전년동기대비, %): ('08년 3/4) 34.6 → (4/4) -8.8 → ('09년 1/4) -24.8 → (4월 1~20일) -19.6

나.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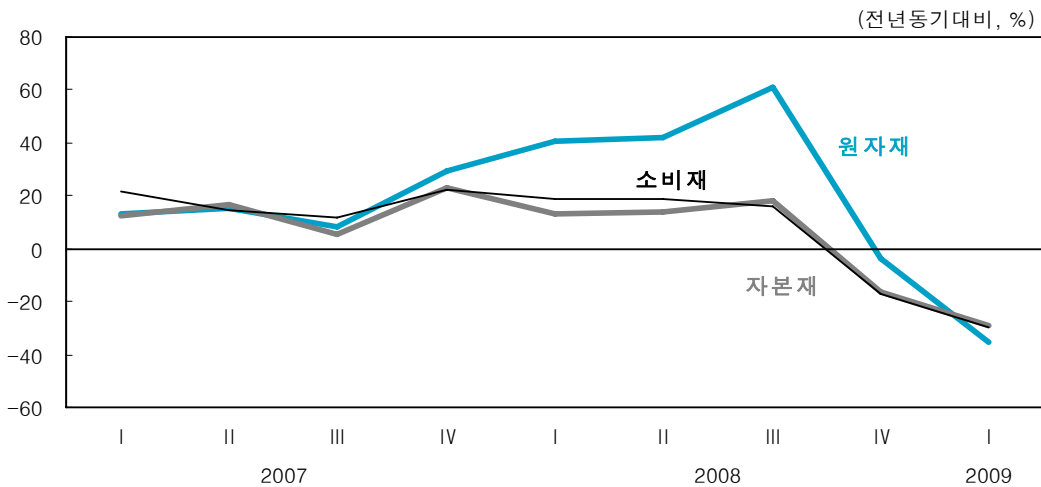
■ 원유 수입액의 감소 등 수입 감소세가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모습

- 원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 자원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업종에서 감소를 기록하며 전반적으로 수입 감소세가 확대

- 수입액 증가율(전년동기대비, %): ('08년 11월) -15.0 → (12월) -21.6 → ('09년 1월) -31.5 → (2월) -31.0 → (3월) -35.9 → (4월) -35.6

- 원유의 경우 도입물량은 소폭의 증가세(1~4월기준 3.0% 증가)를 기록하였으나 유가 하락으로 전체 수입액은 큰 폭의 감소세를 기록하는 등 원자재 수입은 하락세가 심화되는 모습
- 자본재도 기계류를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소비재도 하락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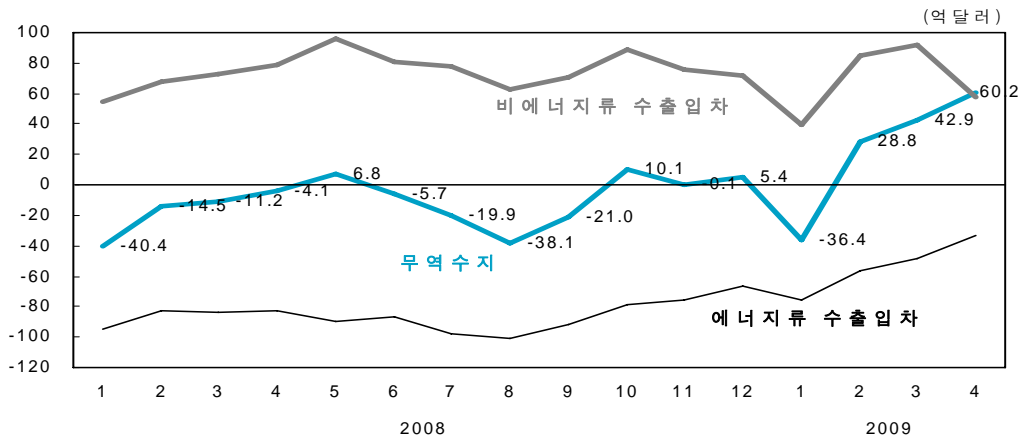
용도별 수입증가율 추이



다. 무역수지

- 수출이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수입 감소세가 수출 감소세를 상회함에 따라 무역수지는 흑자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이러한 흑자기조는 유가하락 등에 따른 에너지류 품목의 무역수지 적자규모 축소 추세에 상당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

무역수지 추이



주: 1) 에너지류 포괄범위: 수출은 석유제품, 수입은 원유, 석탄, 가스 및 석유제품.
 2) '09년 4월중 에너지류 및 비에너지류 수출입차는 4월 1~20일 기준.
 자료: 무역협회, 지식경제부.

라. 교역조건

■ 수입단가의 하락으로 교역조건은 전년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

- 수출단가지수는 석유제품을 중심으로 하락했으나 수입단가지수도 원유 등 원자재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며 교역조건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모습
- 유가하락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향후 교역조건은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

수출입 단가 및 교역조건 동향

(2005=100)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수출단가	103.8 (3.2)	108.4 (4.4)	105.0 (2.6)	113.7 (10.8)	115.7 (10.7)	97.3 (-7.9)	86.6 (-16.7)	84.9 (-17.7)
수입단가	114 (5.8)	138.1 (21.1)	129.7 (21.8)	141.2 (27.0)	150.5 (30.4)	129.6 (5.8)	101.1 (-20.4)	99.2 (-23.9)
원유	135.6 (9.1)	196.1 (44.6)	181.8 (62.2)	219.3 (70.7)	245.9 (76.7)	139.7 (-14.1)	85.0 (-51.6)	86.0 (-52.8)
교역조건	91.1 (-2.5)	78.5 (-13.8)	81.0 (-15.7)	80.5 (-12.7)	76.9 (-15.0)	75.1 (-13.0)	85.7 (4.8)	85.6 (8.4)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교역조건=(수출단가/수입단가)×100.
 자료: 한국은행, 「2009년중 무역수지 및 교역조건 동향」.

마. 경상수지

- 금년 1/4분기중 경상수지는 상품수지 흑자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며 흑자를 기록
 - 상품수지의 경우 유가하락에 따른 원유수입액의 감소 등으로 수입감소세가 수출 감소세를 상회하며 흑자규모가 확대
 - 서비스수지의 경우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여행수지가 흑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 규모가 전년 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되었으며 경상이전수지의 경우 대외송금 수입의 확대로 흑자기조를 지속하는 모습
 - 여행수지는 환율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기에 이어서 흑자추세를 지속
 - * 여행수입(단위: 억달러): '08년 1/4) 19.4 → ('09년 1/4) 29.0
 - * 여행지급(단위: 억달러): '08년 1/4) 49.5 → ('09년 1/4) 23.9
 - 이에 따라 1/4분기 경상수지는 85.8억달러 흑자를 기록
- 한편, 수입 감소폭의 확대로 상품수지 흑자규모의 늘어나며 향후 경상수지는 흑자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

경상수지 항목별 추이

(억달러)

	2008					2009			
	연간	1/4	2/4	3/4	4/4	1/4 ^P	1월	2월	3월 ^P
경상수지	-64.1	-52.1	-1.3	-85.8	75.2	85.8	-16.4	35.6	66.5
상품수지	59.9	-12.2	57.2	-34.8	49.7	83.5	-17.4	31.1	69.8
수출(BOP)	4,334.3	1,028.8	1,182.9	1,171.7	950.9	782.2	225.4	252.7	304.1
수입(BOP)	4,274.3	1,041.0	1,125.7	1,206.5	901.3	698.7	242.7	221.6	234.3
서비스수지	-167.3	-50.7	-42.7	-56.9	-17.0	-18.8	-7.1	-5.3	-6.5
여행수지	-80.5	-30.2	-27.7	-29.7	7.1	5.2	0.2	3.8	1.2
사업서비스수지	-145.1	-29.1	-29.0	-40.6	-46.4	-32.3	-10.8	-10.0	-11.5
소득수지	51.1	16.9	-6.5	13.6	27.1	8.3	5.6	4.8	-2.2
경상이전수지	-7.7	-6.1	-9.4	-7.7	15.5	12.8	2.5	5.0	5.3

주: P는 잠정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국제수지 동향(잠정)」 각호.

바. 자본수지

- 작년 4/4분기중 자본수지는 대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하였으나, 금년 들어서 순유출 규모가 축소
 - 직접투자수지는 내국인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가 함께 축소되는 가운데, 금년 1/4분기중 11.9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
 - 작년 3/4분기중 대규모 순유출을 보였던 증권투자수지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금년 1/4분기중 순유입(43.5억달러)을 기록
 - 외국인 국내 주식투자수지(억달러): (08년 9월) -39.6 → (10월) -40.4 → (11월) -17.5 → (12월) 4.8 → (09년 1월) 4.2 → (2월) -3.7 → (3월) 20.0
 - 외국인 국내 채권투자수지(억달러): (08년 9월) -28.2 → (10월) -48.0 → (11월) -51.3 → (12월) -21.6 → (09년 1월) 43.3 → (2월) -9.5 → (3월) -38.6
 - 내국인 해외 주식투자수지(억달러): (08년 9월) 25.5 → (10월) 51.0 → (11월) 17.6 → (12월) -1.6 → (09년 1월) 5.0 → (2월) 10.8 → (3월) -1.3
 - 파생금융상품수지는 작년 하반기 이후 환율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파생금융상품 관련 지급이 늘어남에 따라 순유출을 지속하고 있음.
 - 파생금융상품수지(억달러): (08년 9월) -28.6 → (10월) -39.1 → (11월) -15.6 → (12월) -35.1 → (09년 1월) -2.5 → (2월) -23.2 → (3월) -23.2

자본수지동향

(억달러)

	2006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연간	1/4	1월	2월	3월 ^P
자본수지	179.7	71.3	-509.3	-0.1	51.4	-29.8	-21.8
직접투자수지	-45.4	-138.4	-105.9	-11.9	-0.6	-5.5	-5.9
증권투자수지	-232.3	-260.6	-153.7	43.5	56.8	1.6	-14.9
파생금융상품수지	4.8	54.4	-143.3	-48.9	-2.5	-23.2	-23.2
기타투자수지	483.8	439.6	-106.0	10.0	-3.8	-6.1	19.9
기타자본수지	-31.3	-23.9	-0.4	7.3	1.4	3.4	2.4

주: P는 잠정추정치.

자료: 한국은행, 「각월중 국제수지 동향」.

- 기타투자수지는 작년 4/4분기중 금융기관의 해외차입금 상황에 따라 대규모의 순유출을 기록한 이후 한미 통화스왑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안정화되어 2009.3월 현재 19.9억달러 순유입을 기록
- 준비자산은 작년중 경상수지 적자 및 자본수지 순유출로 564.5억달러 감소했으나, 금년 1/4분기에 들어서는 90.2억달러 증가
-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합에서 오차 및 누락을 감안한 준비자산 규모는 2007년까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 2008년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한 후, 2009년 들어서는 다시 증가세로 전환

준비자산 및 외환보유액 증감 추이

(억달러)

	2005	2006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연간	연간	1/4	1월	2월	3월	4월
준비자산증감	198.1	221.1	151.3	-564.5	90.2	44.9	12.6	32.7	-
외환보유액 증감	113	286	233	610	51	5	-2	48	61.4
(외환보유액 잔액)	(2,104)	(2,390)	(2,622)	(2,643)	(2,063)	(2,017)	(2,015)	(2,063)	(2,125)

주: 외환보유액 잔액은 기말 기준. 외환보유액 증감에는 환율 변동에 따른 평가손익이 반영됨.
 자료: 한국은행, 「각월중 국제수지동향」.

-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외채관련 지표는 작년 3/4분기까지 급등한 후 소폭 진정되는 모습

외채관련 지표

(기말기준, %)

	2006	2007	2008	2008.1/4	2008.2/4	2008.3/4	2008.4/4 ^P
단기외채/외환보유액	47.6	61.1	75.1	66.6	68.3	79.1	75.1
유동외채/외환보유액 ¹⁾	56.1	77.8	96.4	81.8	85.6	97.1	96.4
총외채/외환보유액	108.8	146.1	189.1	157.3	163.4	177.5	189.1

주: 1) 유동외채 = 단기외채 + 상환기일이 1년 미만인 장기외채.

2) P는 잠정치(preliminary).

자료: 한국은행, 「2008년 국제투자 현황(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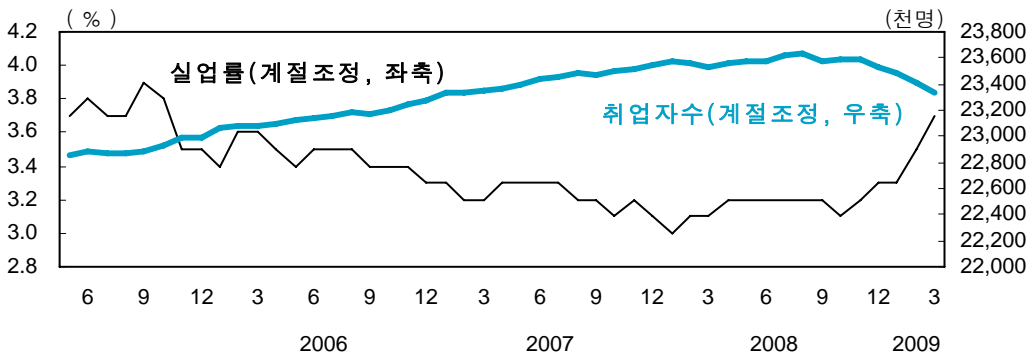
한국은행, 「2008년 외환보유액」.

7. 勞動市場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취업자 감소, 실업률 상승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 고용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명목임금도 하락하는 모습

- 1/4분기에는 취업자 증가율과 고용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실업률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고용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모습
 - 1/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율은 -0.6%로 전분기에 비해 0.8%p 하락
 - 취업자 증가율(전년동기비, %) : ('07.1/4) 1.2 → (2/4) 1.2 → (3/4) 1.3 → (4/4) 1.2 → ('08.1/4) 0.9 → (2/4) 0.7 → (3/4) 0.6 → (4/4) 0.2 → ('09.1/4) -0.6
 - 고용률은 외환위기 시기였던 1999년 1/4분기(-2.3%p) 이후 전년동기대비 최대폭(-1.1%p)으로 하락한 57.4%(계절조정 59.3%)를 기록했는데, 특히 15~29세(-2.1%p)와 30~39세(-1.5%p) 등 젊은층에서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짐.
 - 고용률(=취업자/15세이상인구, %) : ('07.1/4) 58.6 → (2/4) 60.6 → (3/4) 60.2 → (4/4) 60.0 → ('08.1/4) 58.5 → (2/4) 60.4 → (3/4) 59.9 → (4/4) 59.4 → ('09.1/4) 57.4
 - 실업률은 3.8%(계절조정 3.5%)로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하여 신용카드 버블 붕괴의 충격을 겪었던 2003년 4/4분기(0.6%p)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

실업률 및 취업자수



최근의 고용지표

(단위: 천명,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경제활동인구	24,216(1.0)	24,347(0.5)	23,852(0.7)	24,638(0.6)	24,503(0.6)	24,394(0.3)	23,812(-0.2)
취업자	23,433(1.2)	23,577(0.6)	23,051(0.9)	23,871(0.7)	23,752(0.6)	23,636(0.2)	22,904(-0.6)
실업자	783(-5.4)	769(-1.7)	801(-5.9)	767(-3.0)	752(-0.6)	757(3.2)	908(13.4)
비경제활동인구	14,954(1.2)	15,251(2.0)	15,575(1.8)	14,903(1.7)	15,154(1.9)	15,373(2.5)	16,088(3.3)
경제활동참가율	61.8	61.5	60.5 [61.6]	62.3 [61.6]	61.8 [61.5]	61.3[61.2]	59.7[61.2]
실업률	3.2	3.2	3.4 [3.1]	3.1 [3.2]	3.1 [3.2]	3.1[3.2]	3.8[3.5]
고용률	59.8	59.5	58.5[59.7]	60.4[59.6]	59.9[59.5]	59.4[59.3]	57.4[59.3]

주: 1)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2) []안은 계절조정.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2008년 이후의 취업자 증가세 둔화는 2009년 1/4분기의 취업자 감소세로 이어졌고, 실업자 수도 상반기 중 100만명을 넘을 전망

● 취업자는 2008년 3월 10만명대로 증가폭이 떨어진 후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다 2008년 12월을 기점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하고 2009년 3월 20만명에 육박

－ 취업자 증가폭(전년동월대비, 천명) : ('08.1월) 235 → (3월) 184 → (6월) 147 → (9월) 112 → (10월) 97 → (11월) 78 → (12월) -12 → ('09.1월) -103 → (2월) -142 → (3월) -195

● 실업자는 2008년 3/4분기 이후 급격한 증가세를 나타내었으며 2009년 2월과 3월에는 두 자릿수의 실업 증가율을 기록

－ 실업자 증가율(전년동월비, %) : ('08.1월) -9.0 → (4월) -4.0 → (7월) -3.2 → (8월) 1.0 → (9월) 0.5 → (10월) 0.4 → (11월) 2.3 → (12월) 6.9 → ('09.1월) 9.5 → (2월) 12.9 → (3월) 17.6

－ 실업자 수는 2009년 3월에 전년동월대비 14만2천명(17.6%) 증가한 95만2천명을 기록하였으며(3월 실업률은 4.0%), 고용지표의 경기후행성을 고려할 때 상반기 중 100만명을 넘을 전망

－ 1/4분기에 늘어난 실업자의 특성을 보면 남자·핵심근로연령대(30~50대)·고학력(대졸 이상)이 많음.

성별 · 연령계층별 · 학력별 실업자 증감

(단위: 천명,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전 체	-44(-5.4)	-14(-1.7)	-50(-5.9)	-24(-3.0)	-5(-0.6)	24(3.2)	107(13.4)
남 자	-16(-3.1)	-12(-2.4)	-43(-7.6)	-32(-6.1)	1(0.2)	25(5.2)	83(16.0)
여 자	-28(-9.5)	-1(-0.5)	-7(-2.4)	9(3.3)	-6(-2.3)	-1(-0.5)	24(8.5)
15 - 29세	-37(-10.0)	-13(-4.0)	-19(-5.4)	-3(-0.9)	-19(-5.8)	-12(-3.8)	40(12.3)
30 - 59세	-8(-1.9)	4(0.7)	-27(-5.8)	-21(-4.9)	21(5.2)	41(10.9)	67(14.9)
60세 이상	0(1.1)	-4(-12.2)	-4(-8.6)	0(-0.9)	-7(-20.8)	-7(-18.7)	1(1.6)
중졸 이하	-17(-12.2)	-1(-0.8)	-22(-14.9)	8(7.4)	8(7.3)	3(2.3)	15(11.8)
고 졸	-31(-7.4)	-5(-1.3)	-24(-5.6)	-11(-2.9)	3(0.8)	11(3.0)	36(9.0)
대졸 이상	3(1.1)	-7(-2.7)	-4(-1.3)	-21(-7.0)	-15(-5.6)	10(4.0)	56(20.6)

주: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고용시장의 악화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도 금년 들어 급속히 증가하는 모습

-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속도가 2008년 이후 급속히 빨라지면서 2009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51만4천명 증가(2008년 1/4분기에는 27만명 증가)
- 2007년 3/4분기 이후 꾸준히 늘어나던 취업준비자는 신규채용을 억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2008년 11월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에는 5만9천명(-8.9%) 감소한 59만7천명을 기록
- 경기둔화에 따른 실망실업이 늘어나면서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008년 9월 이후 급증하여 2009년 3월에는 전년동월대비 7만1천명(70.5%) 증가한 17만1천명을 기록
 - 18시간미만의 근로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도 2009년 3월 4만1천명(28.0%) 증가하여 일거리가 부족해서 발생하는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 경향을 반영
- 단순유휴자(쉬었음)는 2008년 9월 이후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9년 3월에도 전년동월대비 21만3천명(16.2%) 증가

최근 취업자 · 실업자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감추이

(단위: 천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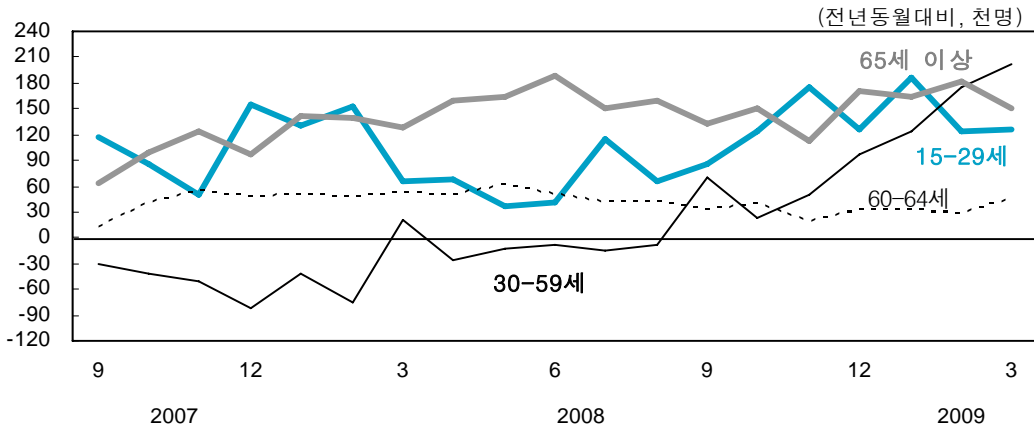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추가취업희망		취업준비	쉬었음	구직단념	
2004	418 (1.9)	44 (44.0)	42 (5.2)	-83 (-0.6)	38 (11.0)	127 (14.0)	11 (11.7)
2005	299 (1.3)	9 (6.3)	27 (3.1)	257 (1.8)	74 (19.2)	205 (19.8)	25 (24.7)
2006	295 (1.3)	-9 (-6.1)	-59 (-6.7)	227 (1.6)	69 (15.1)	40 (3.2)	-3 (-2.6)
2007	282 (1.2)	-17 (-12.0)	-44 (-5.4)	171 (1.2)	21 (4.0)	44 (3.4)	-14 (-11.1)
2008	145 (0.6)	6 (5.1)	-14 (-1.7)	297 (2.0)	52 (9.6)	31 (2.3)	11 (9.7)
'07.1/4	264 (1.2)	-10 (-6.4)	-64 (-7.0)	204 (1.4)	38 (7.7)	23 (1.6)	2 (1.6)
2/4	289 (1.2)	-11 (-7.5)	-25 (-3.1)	141 (1.0)	12 (2.2)	36 (3.2)	-19 (-16.6)
3/4	296 (1.3)	-12 (-8.6)	-42 (-5.3)	144 (1.0)	-12 (-2.4)	105 (8.5)	-11 (-9.5)
4/4	278 (1.2)	-36 (-26.0)	-47 (-6.0)	194 (1.3)	46 (9.0)	11 (0.9)	-26 (-20.5)
'08.1/4	209 (0.9)	-11 (-7.8)	-50 (-5.9)	270 (1.8)	80 (15.1)	36 (2.4)	-15 (-11.6)
2/4	173 (0.7)	4 (3.1)	-24 (-3.0)	256 (1.7)	62 (11.1)	14 (1.2)	8 (8.8)
3/4	141 (0.6)	17 (13.3)	-5 (-0.6)	289 (1.9)	66 (12.1)	-27 (-2.0)	16 (14.7)
4/4	54 (0.2)	16 (15.3)	24 (3.2)	372 (2.5)	2 (0.2)	99 (7.7)	33 (32.7)
'09.1/4	-146 (-0.6)	38 (28.7)	107 (13.4)	514 (3.3)	-46 (-7.5)	162 (10.6)	54 (47.2)

주: 2004~2008년은 1~12월 평균의 전년대비 증감, 2007~2009년은 전년동기대비 증감이며,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취업준비'와 '쉬었음'은 비경제활동인구의 경제활동 미참여 사유 중 일부만을 나타낸 것이며, '구직단념'은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1년 동안 구직활동 경험이 있지만 지금은 노동시장 사정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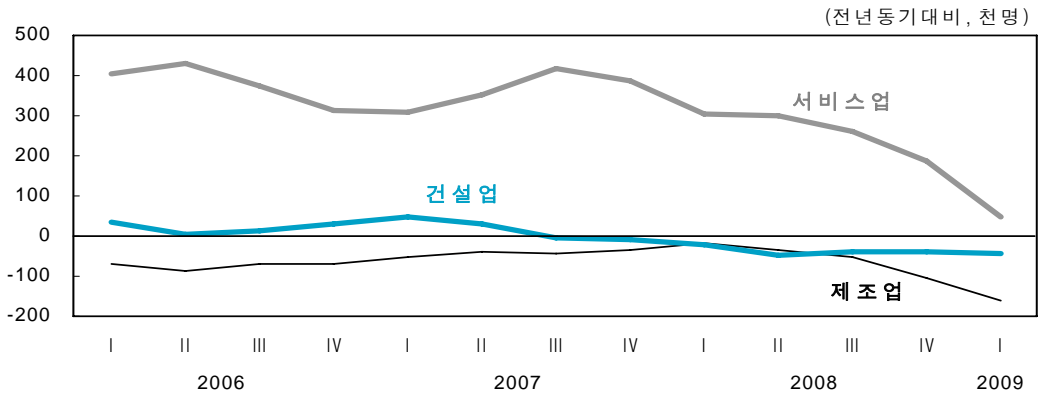
- 연령별로는 2007년 3/4분기 이후 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최근 경기악화에 따라 30~50대의 핵심근로연령대에서도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증가

연령집단별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 산업별로는 수출 감소에 따른 제조업의 고용부진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지는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고용부진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 제조업은 IT화·자동화·해외이전 등 구조적 요인과 함께 최근 수출 감소로 인해 2008년 1/4분기 이후 취업자 감소폭(-16만3천명, -4.1%)이 점차 확대
 - 주택경기 침체와 건설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2007년 3/4분기 이후 고용이 둔화되어 온 건설업의 1/4분기 취업자(-4만3천명, -2.5%)는 전분기(-4만1천명, -2.2%)의 감소세를 지속
 - 서비스업에서는 내수경기 부진으로 1/4분기 취업자 증가폭(4만7천명, 0.3%)이 전분기(18만6천명, 1.2%)에 비해 큰 폭으로 축소
 - 도소매·음식숙박업(-11만5천명, -2.0%)은 취업자 감소폭이 2007년 3/4분기 이후 확대
 -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3만6천명, 3.2%)의 취업자 증가폭은 2008년 3/4분기 이후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전기·운수·통신·금융업(-7만4천명, -2.6%)은 2008년 3/4분기 이후 감소세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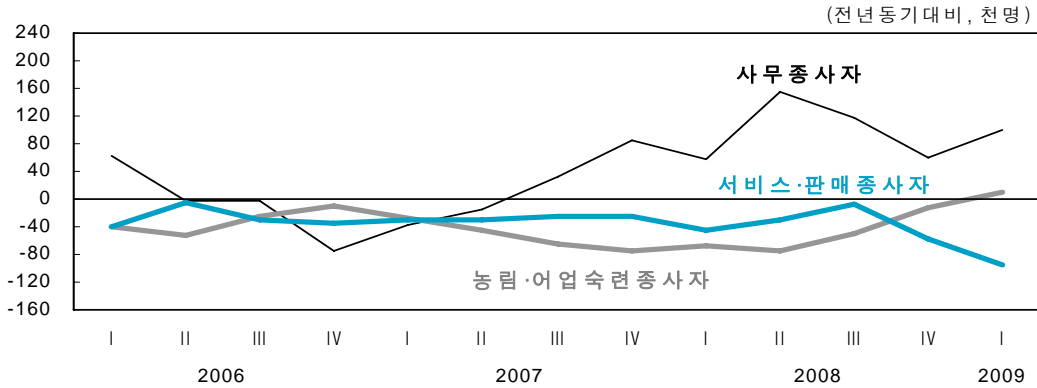
주요 산업별 취업자 증감



- 직업별로도 내수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1/4분기 중 서비스·판매종사자의 감소세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사무종사자의 증가추이는 지속
 - 소비 둔화의 영향으로 서비스·판매종사자(-9만5천명, -1.7%)는 전분기(-5만8천명, -1.0%)에 이어 감소폭이 크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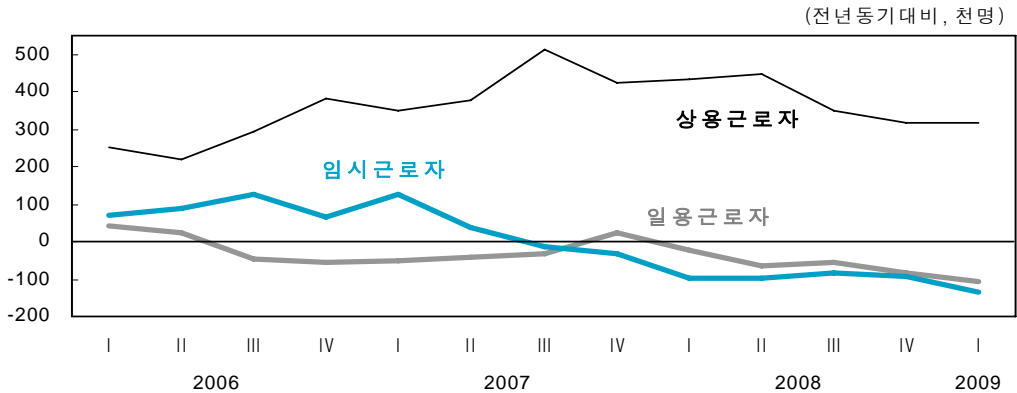
- 농림·어업종사자(9천명, 0.7%)는 소폭의 증가세로 반전하였고, 사무종사자(9만9천명, 2.9%)는 2007년 3/4분기 이후 증가세를 지속
- 한편 전문·기술·행정관리자(2만9천명, 0.6%)의 증가세는 2008년 1/4분기 이후 다소 둔화되었으며, 생산·단순노무종사자(-18만8천명, -2.4%)는 2008년 3/4분기 이후 감소세가 점차 확대

주요 직업별 취업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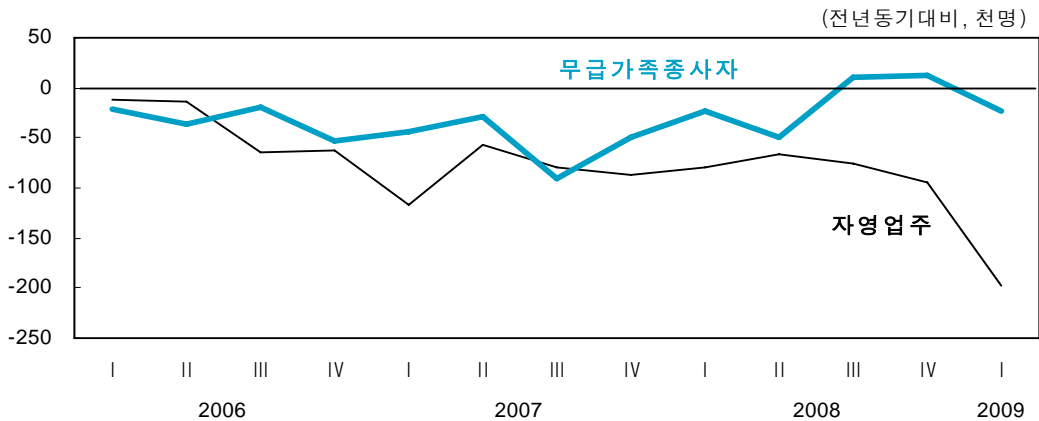
- 종사상 지위별로 임시직과 일용직 중심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상용근로자의 증가세도 둔화되었으며, 자영업주의 감소세가 점차 확대
- 임시근로자(-13만6천명, -2.7%)와 일용근로자(-10만8천명, -5.3%)는 감소세를 지속하고, 상용근로자(31만8천명, 3.6%)의 증가폭은 전년동기(43만5천명, 5.2%)에 비해 축소되어,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7만3천명(0.5%) 증가하는 데 그침.

임금근로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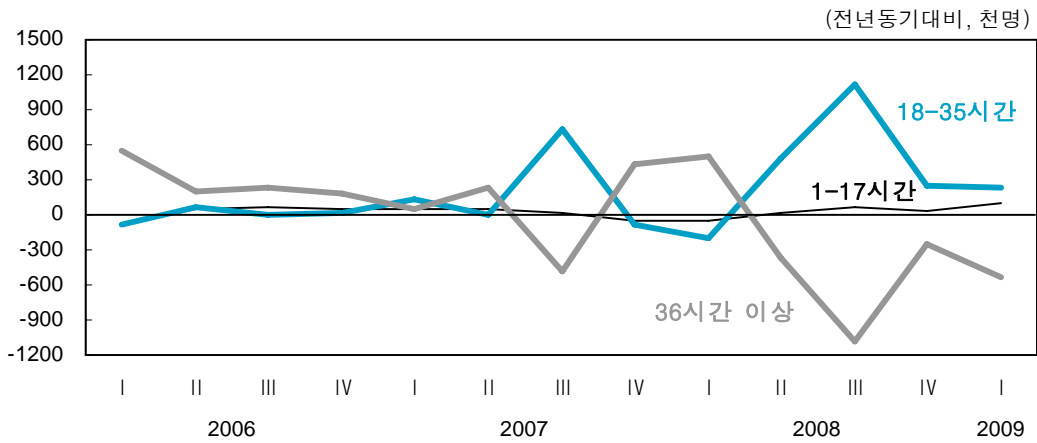
- 자영업주(-19만7천명, -3.4%)는 2008년 2/4분기 이후 감소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무급가족종사자(-2만3천명, -1.8%)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비임금근로자(-22만명, -3.1%)의 감소 규모가 크게 확대
 - 비임금근로자 증가율(전년동기비, %) : ('08. 1/4) -1.4 → (2/4) -1.5 → (3/4) -0.9 → (4/4) -1.1 → ('09. 1/4) -3.1

비임금근로자 증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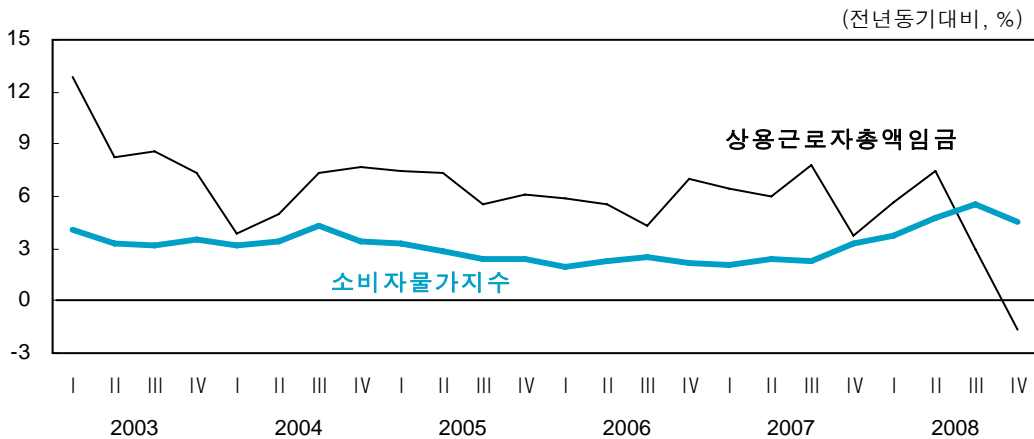
- 취업시간별로 취업자 수의 증감이 상이하게 나타나는 가운데 평균 취업시간은 소폭 감소
 - 주당 18시간미만의 단시간 취업자는 9만2천명(10.4%) 증가하여 전분기(3만8천명, 4.9%)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확대
 - 주당 18-35시간 취업자는 22만9천명(12.2%) 증가하여 전분기(24만6천명, 13.8%)에 비해 증가폭이 다소 축소
 - 잔업·특근 등의 감소에 따라 주당 36시간이상 취업자는 53만8천명(-2.7%) 감소하여 전분기(-25만5천명, -1.2%)에 비해 감소폭이 다소 확대
 -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5.2시간으로 전년동기(46.9시간)에 비해 감소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증감



- 한편 작년 4/4분기 명목임금 증가율은 -2.1%(전년동기대비)로 나타나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감소하였으며, 실질임금도 6.4% 하락을 기록
- 명목임금 하락은 상용직(-1.7%)보다 임시·일용직(-9.0%)에서 크게 나타났고, 초과급여(-9.4%) 및 특별급여(-22.2%)의 감소에 주로 기인했으며, 300인 이상 대기업(-3.8%)에서 두드러졌음.

명목임금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



8. 物 價

최근 물가는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및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

- 1~4월 중 소비자물가는 공업제품과 서비스 모두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3.8%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작년 3/4분기(5.5%) 이후 하락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
 - 상품물가는 농축수산물가격(8.4%)이 계절적 요인 등에 기인하여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한 반면, 공업제품가격(4.1%)은 국제원자재가격이 안정되면서 작년 7월 이후 지속적으로 둔화하여 5.0%의 상승률을 기록
 - 서비스물가도 경기 침체 등의 영향에 힘입어 개인서비스가격을 중심으로 3.1% 상승률을 기록
 - 기초적인 물가상승 추세를 반영하는 근원물가지수도 4.8%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작년 12월에 5.6%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품목별 소비자물가 추이

(전년동기대비 증가율, %)

	가중치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1~4월
소비자물가	1000.0	2.5	4.7	3.8 (1.3)	4.8 (2.0)	5.5 (1.4)	4.5 (-0.3)	3.9 (0.7)	3.7 (0.1)	4.1 (0.7)	3.9 (0.7)	3.6 (0.3)	3.8 (0.5)
근원물가	891.7	2.4	4.2	3.0 (1.4)	3.9 (1.8)	4.8 (1.2)	5.4 (0.9)	4.9 (0.9)	5.2 (0.2)	5.2 (0.4)	4.5 (0.4)	4.2 (0.2)	4.8 (0.3)
농축수산물	88.4	1.9	0.5	0.0 (-1.0)	0.8 (-1.1)	1.3 (2.8)	-0.1 (-0.8)	7.2 (6.2)	5.9 (3.5)	5.4 (0.6)	10.1 (1.9)	12.2 (2.4)	8.4 (2.1)
공업 제품	307.4	2.0	7.8	5.9 (2.0)	8.6 (4.2)	10.2 (2.1)	6.7 (-1.7)	4.4 (-0.3)	3.3 (-0.7)	5.0 (1.7)	4.7 (0.9)	3.4 (-0.1)	4.1 (0.5)
집 세	97.5	1.8	2.3	1.9 (0.6)	2.2 (0.7)	2.4 (0.7)	2.5 (0.6)	2.1 (0.2)	2.3 (0.1)	2.1 (0.0)	1.9 (0.0)	1.7 (0.1)	2.0 (0.1)
공공서비스	163.1	3.1	2.4	3.2 (0.5)	2.7 (0.6)	2.1 (0.2)	1.9 (0.5)	1.9 (0.5)	2.2 (0.4)	1.8 (0.0)	1.8 (0.3)	1.6 (0.2)	1.9 (0.2)
개인서비스	343.6	3.1	4.7	3.7 (1.8)	4.4 (2.1)	5.2 (1.0)	5.4 (0.4)	4.1 (0.5)	4.8 (0.0)	4.4 (0.2)	3.2 (0.7)	3.2 (0.3)	3.9 (0.3)

주: ()안은 전기대비 증가율.
자료: 통계청.

■ 1/4분기 중 수입물가(원화기준)는 환율 상승에도 불구하고, 유가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전분기(33.6%) 보다 크게 낮은 15.0%의 상승률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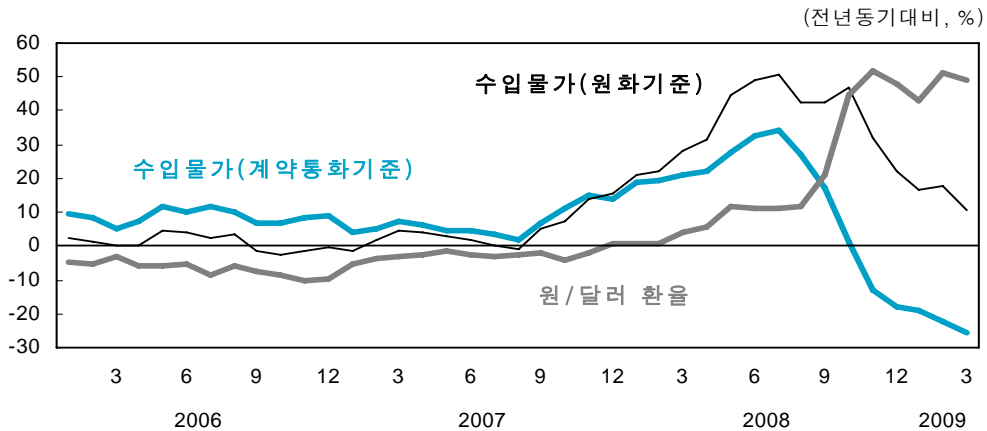
● 계약통화기준(환율효과 배제) 수입물가는 원자재(-18.6% → -36.9%)와 중간재(-7.0% → -17.1%)를 중심으로 전분기(-1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된 -22.4%의 상승률을 기록

-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전년동월대비,%): ('09. 1월) -19.2 → (2월) -22.4 → (3월) -25.4
- 두바이유(달러/배럴): ('09. 1월) 44 → (2월) 43 → (3월) 46
- 로이터지수(월평균): ('09. 1월) 1,890 → (2월) 1,893 → (3월) 1,868

● 한편, 원화 가치 하락 여파로 원화기준 수입물가의 상승률은 계약통화 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을 상당폭 상회

- 원화기준 수입물가(전년동월대비,%): ('09. 1월) 16.7 → (2월) 18.0 → (3월) 10.6
- 원/달러 환율(월평균): ('09. 1월) 1,346 → (2월) 1,429 → (3월) 1,462

환율 절하율 및 수입물가 상승률 추이



■ 1/4분기 중 생산자물가도 국제원자재 가격 안정에 기인해 전분기(8.0%) 보다 낮은 4.2%의 상승률을 기록하여 지난해 3/4분기 이후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는 모습

● 한편, 농림수산물물가는 출하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4.2%)보다 상승폭이 크게 확대된 12.5%의 높은 상승률을 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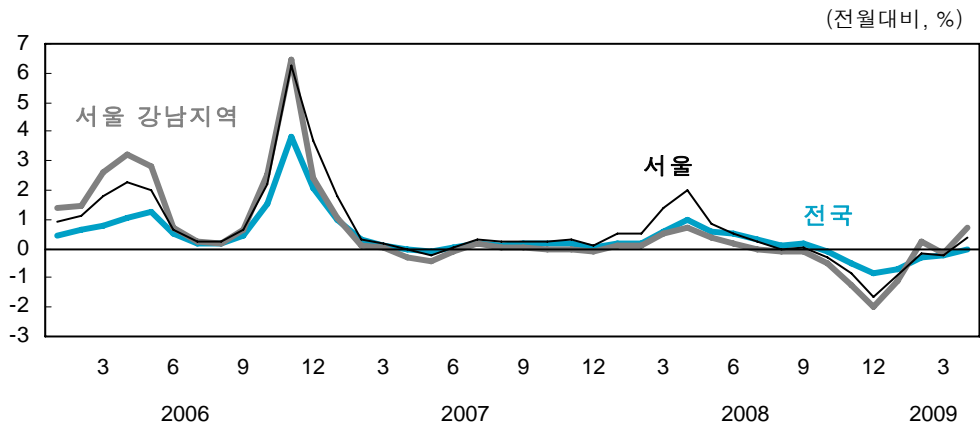
● 공산품물가는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석유 및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전분기(11.2%) 보다 낮은 4.6%의 상승률을 기록

■ 1~4월 중 아파트 매매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효과 및 계절적 수요증가에 힘입어 전분기(-1.5%)에 비해 하락세가 완화된 -1.2%의 상승률을 기록

● 특히, 강남의 경우 하락폭이 크게 둔화된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세가 완화되고 있는 모습

- 강남 아파트 매매가격(전월대비,%): ('09. 1월) -1.1 → (2월) 0.2 → (3월) -0.1 → (4월) 0.7
-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전월대비,%): ('09. 1월) -1.0 → (2월) -0.4 → (3월) -0.4 → (4월) 0.0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전월대비,%): ('09. 1월) -0.7 → (2월) -0.3 → (3월) -0.2 → (4월) 0.0

아파트 매매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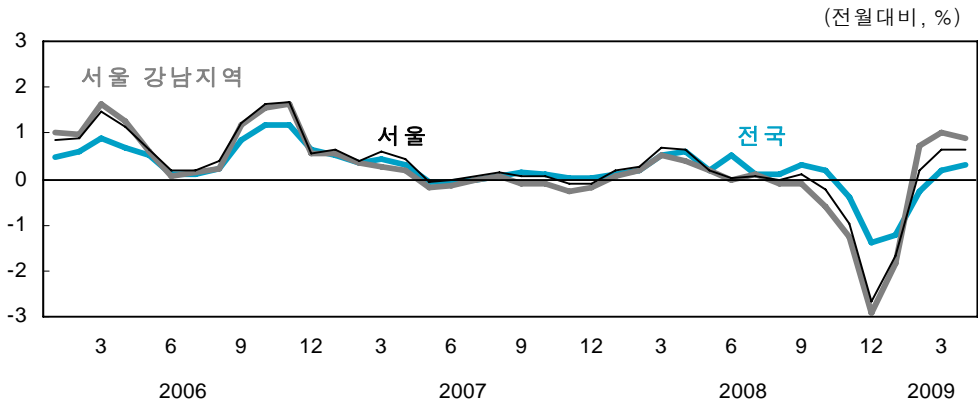


■ 1~4월 중 아파트 전세가격도 계절적인 이주 수요증가의 영향으로 작년 4/4분기(-1.6%)에 비해 하락세가 둔화된 -1.0%의 상승률을 기록

● 특히, 강남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락세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

- 강남 아파트 전세가격(전월대비,%): ('09. 1월) -1.8 → (2월) 0.7 → (3월) 1.0 → (4월) 0.9
-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격(전월대비,%): ('09. 1월) -1.9 → (2월) -0.3 → (3월) 0.4 → (4월) 0.4
-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전월대비,%): ('09. 1월) -1.2 → (2월) -0.3 → (3월) 0.2 → (4월) 0.3

아파트 전세가격 추이



주택가격 추이

(전기대비 증가율,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4월
주택 매매	3.1	3.1	1.4	2.1	0.8	-1.2	-1.0	-0.6	-0.3	-0.2	0.1
아파트	2.1	2.3	1.0	2.1	0.7	-1.4	-1.2	-0.7	-0.3	-0.2	0.0
서울 아파트 (강남지역)	3.6	3.2	2.4	3.3	0.2	-2.7	-1.3	-0.9	-0.2	-0.3	0.4
	(0.5)	(-1.9)	(0.7)	(1.3)	(-0.2)	(-3.6)	(-1.1)	(-1.1)	(0.2)	(-0.1)	(0.7)
주택 전세	2.6	1.7	1.1	1.2	0.8	-1.4	-1.1	-0.9	-0.2	0.1	0.2
아파트	1.9	0.8	0.8	1.3	0.6	-1.6	-1.3	-1.2	-0.3	0.2	0.3
(강남지역)	(0.5)	(-3.6)	(0.7)	(0.6)	(-0.2)	(-4.7)	(-0.1)	(-1.8)	(0.7)	(1.0)	(0.9)

주: 1) 연간 수치는 전년말대비 증가율, 2) 분기 수치는 전분기말대비 증가율, 3) 월별 수치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국민은행.

- 1/4분기 중 지가는 금융경색 및 부동산경기 침체로 하락 기초를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에 힘입어 전분기(-4.1%)에 비해 하락세가 크게 둔화된 -1.2%의 상승률을 기록
 - 특히, 서울(-6.3% → -1.4%), 경기(-4.3% → -1.6%), 인천(-3.6% → -1.4%) 등 수도권 지역이 전국의 지가 하락세 둔화를 주도하고 있는 모습
 - 또한, 서울의 경우 재건축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강남구(-6.8% → -1.2%), 서초구(-6.6% → -1.0%) 등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둔화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

지가 추이

(전기대비 증가율,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1월	2월	3월
전 국	3.9	-0.3	1.2	1.5	1.2	-4.1	-1.2	-0.8	-0.4	-0.1
서울	5.8	-1.0	1.8	2.2	1.6	-6.3	-1.4	-0.9	-0.4	-0.0
경기	4.2	-0.3	1.3	1.6	1.3	-4.3	-1.6	-1.0	-0.4	-0.2
인천	4.9	1.4	1.4	1.7	2.0	-3.6	-1.4	-0.9	-0.4	-0.1
충남	2.0	-0.1	0.8	0.8	0.9	-2.6	-1.0	-0.6	-0.3	-0.2
서울 용산구	11.7	0.8	3.4	3.3	2.3	-7.7	-1.7	-1.0	-0.5	-0.1
종로구	5.8	-1.2	1.7	1.9	1.6	-6.2	-1.8	-1.0	-0.7	-0.1
강남구	5.4	-2.0	1.6	2.0	1.5	-6.8	-1.2	-0.9	-0.4	0.1
송파구	5.7	-1.9	1.6	1.9	1.4	-6.6	-1.0	-0.8	-0.3	0.1
서초구	5.2	-2.0	1.5	2.0	1.4	-6.6	-1.0	-0.8	-0.3	0.1
경기 파주시	5.0	-0.2	1.6	1.7	1.4	-4.7	-1.5	-0.9	-0.4	-0.2
성남 분당	3.6	-2.3	0.9	1.0	0.9	-5.0	-1.7	-1.1	-0.3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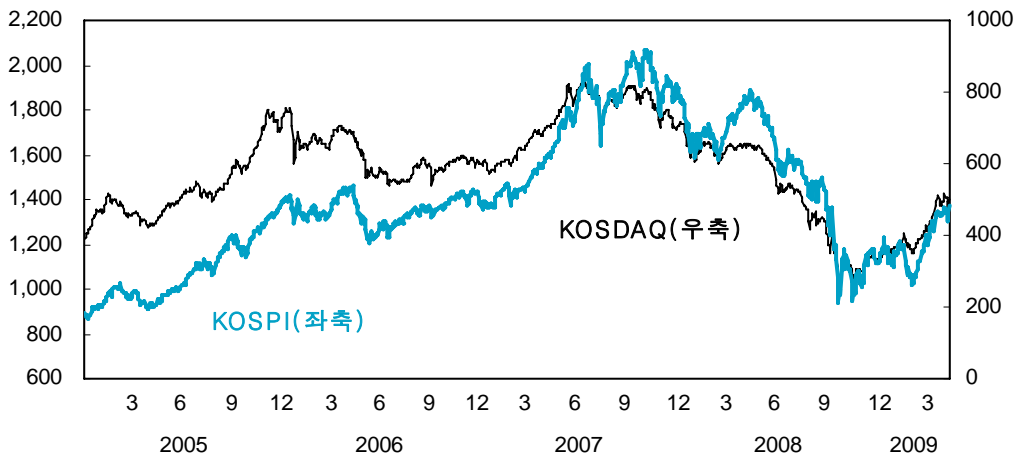
주: 1) 연간 수치는 전년 4/4분기대비 증가율, 2) 분기 수치는 전분기대비 증가율, 3) 월별 수치는 전월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토지공사.

9. 金融市場

금융시장은 최근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전반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적 불안요인은 잠재해 있는 상황

- 주가는 2008년 10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크게 하락하였으나 최근 국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진정되면서 회복세를 시현
 - 2008년 하반기 리만 사태 이후 투자심리가 급속히 악화되어 코스피지수가 900대로 하락하였으나,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 주요국의 금융안정 및 경기부양 조치시행 등으로 12월 이후 회복되기 시작
 - 2009.2월 동유럽 금융위기, 미국 상업은행 부실 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상승세를 나타내 4월말 현재 1,369.36 기록
 - 외국인의 국내주식 투자는 2008.12월 이후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으로 2009.4월에는 4.1조원의 순매수를 기록
 -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현 시점에서 여타 돌발변수가 없는 한 주식시장의 자금 사정이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가능성

일별 KOSPI · KOSDAQ 지수 추이



증시주변 자금동향

	2008					2009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거래대금	144.1	142.9	139.5	139.7	140.2	139.2	138.1	139.6	-	
투자자예탁금	8.1	9.4	10.0	9.6	9.3	9.9	10.5	13.0	14.7	
외국인순매수	거래소	-2,993	-2,670	-4,587	-1,644	855	769	-875	48	4,054
	코스닥	-171	-354	-297	-290	-30	-120	-261	-185	-134

주: 1) 주식형펀드, 고객예탁금은 말잔, 조원. 2) 외국인 순매수는 기간 중 누계, 십억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 원/달러 환율은 금년 들어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우려로 급등하였으나, 3월 이후 외화유동성 여건의 개선 및 안전자산 선호현상 약화 등의 영향으로 하락

- 2009년 들어 국내은행 외화유동성에 대한 우려 및 동유럽 금융위기에 따른 안전 자산 선호현상 강화 등의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기록
- 한편 한은의 외환보유액 관련 우려 진화 및 은행권 장기차입 성공 소식 등 외화 유동성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글로벌 달러화약세가 지속되며 급락하여 4월말 현재 1,348원 기록
 - 2009.1~3월중 경상수지는 흑자를 보이면서 외화유동성 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
 - 국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보이나, 외평채가산금리 등 해외차입 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

일별 환율 추이



■ 금리는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최근 원활한 국고채 입찰 및 외국인 채권투자 상승 등의 요인으로 다소 하락

- 금융위기 이후 한은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국채발행에 대한 부담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나, 4월 들어 국고채 입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가 크게 상승하는 등의 요인으로 하락
 - 국고채 수익률은 4월말 현재 2008년 말 3.41% 대비 18bp 상승한 3.59% 기록
 - 회사채 수익률(AA-)은 국고채수익률의 하락세가 반영되면서 4월말 현재 전년말 대비 243bp 하락한 5.29%를 기록
 -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확대되던 장단기 금리차는 4월 이후 국고채 수익률의 하락으로 174bp로 축소
- AA-등급 회사채와 BBB-등급 회사채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4월말 현재 600bp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신용경색이 부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모습
 - 국고채와 AA-등급 회사채 간의 신용스프레드는 금년 들어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4월말 현재 작년 9월중 수준인 170bp을 시현

금 리

(기말기준, %)

	2008						2009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Call(1일)	5.02	5.26	5.22	4.15	3.98	2.94	2.43	1.94	1.73	1.85
CP(91일물)	6.00	6.10	6.56	7.25	7.12	6.40	3.95	3.16	3.10	3.02
국고채(3년)	5.80	5.77	5.74	4.47	4.87	3.41	3.59	3.82	3.94	3.59
회사채(3년,AA-)	6.91	7.34	7.76	8.13	8.91	7.72	7.29	6.60	6.13	5.29
회사채(3년,BBB-)	9.78	10.27	10.81	11.32	12.53	12.02	12.16	12.35	12.19	11.52
장단기 Spread ¹⁾	0.78	0.51	0.52	0.32	0.89	0.47	1.16	1.88	2.21	1.74
신용 Spread ²⁾	1.11	1.57	2.02	3.66	4.04	4.31	3.70	2.78	2.19	1.70
신용 Spread ³⁾	2.87	2.93	3.05	3.19	3.62	4.30	4.87	5.75	6.06	6.23

주: 1) 국고채-Call 2) 회사채(AA-)-국고채 3) 회사채(BBB-)-회사채(AA-).

■ 협의통화(M1)는 2008.6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반면, 광의통화(M2)는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둔화되고 있어, 신용경색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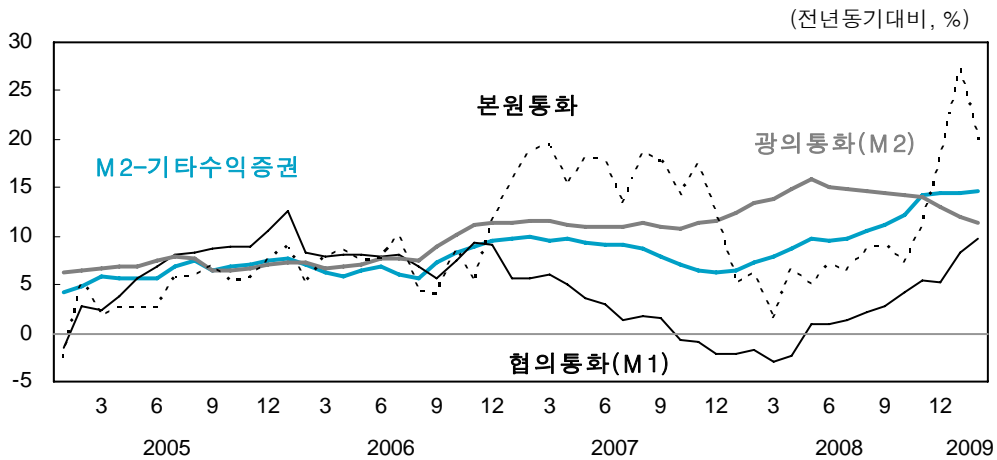
● 협의통화(M1)는 가계 및 기업의 단기자금운용이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세를 시현

－ M1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2008.6월 1.0 → 7월 1.4 → 8월 2.2 → 9월 2.7 → 10월 4.2 → 11월 5.5 → 12월 5.2 → 1월 8.3 → 2월 9.8

● 광의통화(M2)는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민간신용 증가폭이 축소됨에 따라 작년 6월 이후 증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

－ M2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 2008.6월 15.1 → 7월 14.8 → 8월 14.7 → 9월 14.5 → 10월 14.2 → 11월 14.0 → 12월 13.1 → 1월 12.0 → 2월 11.4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평잔)



주: 1) 법인 및 개인 MMF 전체가 제외된 M1임.
 2) 신M2 : 은행 및 비은행(생보, 증권금융제외) 금융기관의 만기 2년미만 예수금.
 3) 평잔기준.

자료: 한국은행.

■ 국내은행의 수신은 CD 등 시장성 수신이 감소하는 가운데, 예금수신의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반적으로 증가율이 감소하는 모습

● 전반적인 저금리 기조 하에서 예금수신의 증가세가 둔화되고, 금융시장 안정화대책에 의한 단기자금시장의 호조로 인해 CD 등 시장성 수신이 감소하는 추세

금융기관 수신

(기간중 증감,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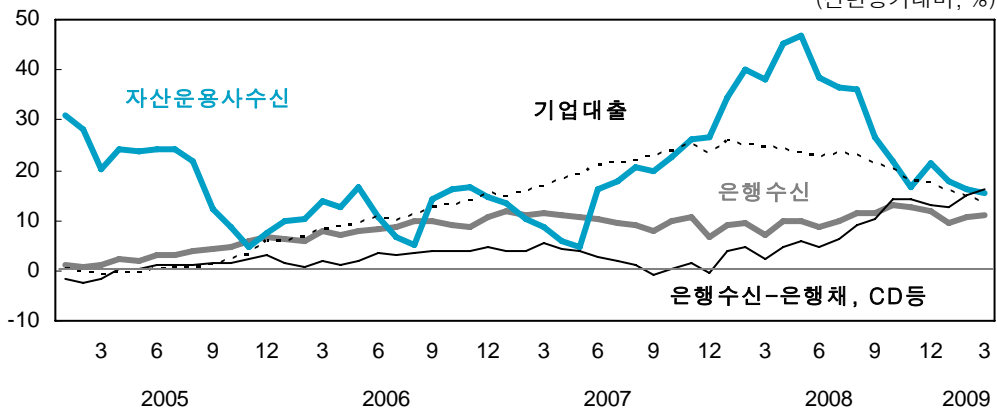
	2008							2009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은행수신	5.3	0.6	15.6	7.4	21.6	9.0	-11.1	-5.5	20.6	-5.2
수시입출식예금	4.1	-3.3	2.6	4.4	5.7	5.0	-4.0	-0.2	12.2	-0.5
정기예금	-3.7	1.9	6.7	2.0	19.0	1.9	-1.0	2.6	4.9	-1.7
CD+RP+표지어음	3.4	1.7	1.3	-4.7	-0.9	-3.0	-9.0	-4.9	0.9	-3.1
은행채	-0.2	2.7	3.9	2.9	0.4	2.1	-0.6	-3.0	-2.0	0.4

● 단기금융상품 중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MMF의 수신이 작년 4/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사 수신이 증가하고 있으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음.

- 3월중에는 MMF 수신이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자산운용사 수신도 감소로 전환

은행 여·수신 증가율 및 투신사수신 증가율 추이

(전년동기대비, %)



■ 은행의 기업대출 증가세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대기업 대출의 둔화가 두드러짐.

● 중소기업대출은 신용보증의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대기업 대출의 증가세는 작년 10월 이후 하락세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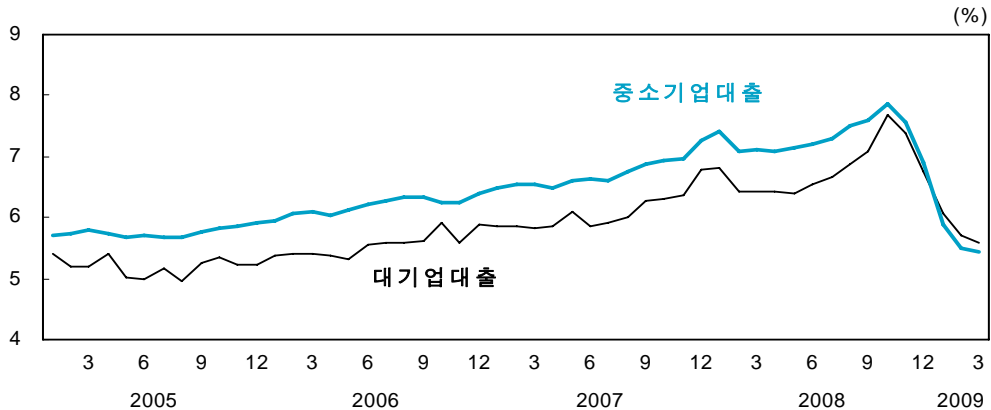
은행의 기업대출

(기간중 증감, 조원)

	2008							2009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기업대출	7.6	8.6	3.9	5.0	7.3	3.5	-6.6	5.8	1.5	2.1
대기업대출	1.4	3.1	2.1	3.2	4.8	0.9	-2.8	3.3	-1.3	-1.3
중소기업대출	6.1	5.5	1.8	1.9	2.6	2.6	-3.8	2.6	2.8	3.4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 (08년 9월) 7.6 → (10월) 7.86 → (11월) 7.56 → (12월) 6.91 → (09년 1월) 5.88 → (2월) 5.51 → (3월) 5.45
- 은행의 대기업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 : (08년 9월) 7.09 → (10월) 7.69 → (11월) 7.37 → (12월) 6.75 → (09년 1월) 6.08 → (2월) 5.71 → (3월) 5.58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



주: 신규취급액 기준.

■ 가계신용은 2008년중 57.6조원 증가하여 전년(+48.7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

●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주택대출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전년(+17.5조원)보다 증가폭이 24.9조원으로 확대

-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도 신용협동기구를 중심으로 17조원 증가하여 전년(+13.3조원)보다 증가폭이 확대
 - 다만, 여신전문기관 대출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연중 0.6조원 증가에 그침
- 2008년말 가계대출금잔액의 금융기관별 비중을 전년말과 비교해 보면, 예금은행(61.1% → 59.9%) 및 여신전문기관(5.2% → 4.8%)의 비중이 하락한 반면, 신용협동기구(17.0% → 18.2%), 기타기관(6.2% → 6.5%)의 비중은 상승

금융기관별 가계대출 비중 추이

(%)

	2006말	2007말	2008			
			3말	6말	9말	12말
예금은행	62.9	61.1	60.8	60.5	60.2	59.9
상호저축은행	1.4	1.1	1.1	1.1	1.1	1.1
신용협동기구	15.9	17.0	17.1	17.5	17.9	18.2
보험기관	9.2	9.4	9.3	9.3	9.5	9.5
여신전문기관	4.6	5.2	5.2	5.2	5.1	4.8
(신용카드사)	(3.2)	(3.4)	(3.6)	(3.5)	(3.5)	(3.4)
기타)	6.0	6.2	6.4	6.4	6.3	6.5
가계대출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신탁, 우체국예금, 국민주택기금 및 한국주택금융공사(2003년말이전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자료: 한국은행

- 만기별로는 ‘1년이상~2년미만’(15.0% → 16.1%) 및 ‘2년이상~5년미만’(21.6% → 23.7%)의 비중이 전년에 비해 상승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만기별 구성비 (신규취급액기준)

(%)

	2006	2007	2008				
	연중	연중	1/4	2/4	3/4	4/4	연중
1년미만	14.4	18.7	18.8	17.6	16.6	20.8	18.3
1년이상~2년미만	8.9	15.0	16.6	15.9	15.2	16.7	16.1
2년이상~5년미만	20.4	21.6	22.7	26.2	24.5	21.2	23.7
5년이상~10년미만	4.8	4.6	5.0	3.8	5.2	5.1	4.9
10년이상	51.5	40.1	36.9	36.5	38.5	36.2	37.0

● 2008년중 판매신용은 4.6조원 증가하여 전년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

가계신용 동향

(기간 중 증감액, 조원)

	2004	2005	2006	2007		2008			
	4/4	4/4	4/4	3/4	4/4	1/4	2/4	3/4	4/4
가계신용	9.5 (6.1)	15.3 (9.9)	23.1 (11.6)	14.2 (9.3)	20.0 (8.4)	9.8 (9.2)	19.8 (10.7)	15.7 (10.7)	12.2 (9.1)
가계대출	8.2 (6.8)	12.8 (9.8)	21.0 (11.5)	13.8 (9.3)	16.9 (8.2)	9.6 (9.0)	17.9 (10.3)	14.8 (10.2)	10.6 (8.9)
예금은행	5.7 (8.9)	6.0 (10.6)	14.6 (13.3)	6.0 (7.6)	6.8 (5.0)	4.0 (5.5)	9.3 (7.5)	6.7 (7.5)	4.9 (6.8)
비은행예금 취급기관	3.9 (16.1)	2.8 (10.7)	4.1 (10.7)	3.7 (14.0)	4.5 (13.7)	2.3 (15.1)	5.3 (15.4)	5.4 (16.4)	4.0 (15.4)
기타 금융기관	-1.4 (-5.1)	3.9 (6.8)	2.2 (6.8)	4.0 (10.3)	5.6 (13.3)	3.3 (14.6)	3.4 (14.6)	2.8 (13.0)	1.7 (9.1)
판매신용	1.3 (-5.1)	2.5 (10.9)	2.2 (12.5)	0.4 (9.5)	3.1 (11.9)	0.2 (13.6)	1.9 (18.0)	0.9 (19.2)	1.6 (13.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잔액 증가율.
자료: 한국은행.

10. 財 政

작년의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확대 재정정책에 기인하여 상당 수준 확대되었고, 금년의 적자규모 또한 증가할 전망이다

- 2008년도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는 전년(33.8조원)보다 크게 감소한 11.9조원을 기록
 - 총수입은 250.7조원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7.1조원, 2.9%)한 반면, 총지출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29.0조원, 13.8%)한 238.8조원으로 집계
 - － 총수입은 유가환급금 지급을 비롯한 감세조치(-9.1조원)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이월 및 세수실적 호조에 힘입어 예산을 3.5조원 상회
 - － 총지출은 추경 편성(4.6조원), 교부금 정산 증가 등에 기인하여 예산을 8.6조원 초과
 -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전년(3.6조원 흑자)에 비해 크게 악화된 15.6조원의 적자를 시현

연간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	결산
총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178.8 (4.0)	191.4 (7.0)	209.6 (9.5)	243.6 (16.3)	247.2 (1.5)	250.7 (2.9)
지출 및 순융자 (전년대비 증가율)	173.5 (5.6)	187.9 (8.3)	205.9 (9.6)	209.8 (1.9)	230.2 (9.7)	238.8 (13.8)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¹⁾	5.2 [0.7]	3.5 [0.4]	3.6 [0.4]	33.8 [3.8]	17.0 [1.9]	11.9 [1.3]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1.2	23.6	26.4	30.2	28.0	27.5
공적자금상환원금	12.0	12.0	12.0	-	-	-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¹⁾	-4.0 [-0.5]	-8.1 [-0.9]	-10.8 [-1.2]	3.6 [0.4]	-11.0 [-1.1]	-15.6 [-1.5]

주: 결산 기준이며, 2008년 결산은 잠정치.

1) 한국은행 『2008년 국민계정 잠정치』 발표(2009.3.27)에 따라 변경된 GDP를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 2008년도 국가채무는 2007년에 비해 3.1%(9.4조원) 증가한 308.3조원을 기록
 - 국가채무 증가는 외평채 증가(4.3조원) 및 일반회계 적자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증가(7.4조원)에 주로 기인
 - 2008년도 GDP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2007년(30.7%)에 비해 소폭 개선된 30.1%
 - 2007년도 세계잉여금을 활용한 채무상환(5.0조원)에 따라 국가채무 증가폭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 금융성채무는 176.4조원(전년대비 4.5조원 증가), 적자성채무는 131.9조원(전년대비 4.8조원 증가)으로 집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구 분	2004	2005	2006	2007(A)	2008(B)1)	증감(B-A)
국가채무 (C=A+B) [GDP대비]2)	203.1 [24.6]	248.0 [28.7]	282.8 [31.1]	298.9 [30.7]	308.3 [30.1]	9.4 -
금융성 채무(A) [GDP대비]2)	125.5 [15.2]	147.1 [17.0]	162.9 [17.9]	171.9 [17.6]	176.4 [17.2]	4.5 -
- 외평기금	51.3	67.1	78.6	89.7	94.0	4.3
- 국민주택채권	36.7	39.7	43.3	43.6	45.2	1.6
- 기타	32.7	40.3	41.0	38.6	37.2	-1.4
적자성 채무(B) [GDP대비]2)	77.6 [9.4]	100.9 [11.7]	119.9 [13.2]	127.1 [13.0]	131.9 [12.9]	4.8 -
- 일반회계 적자국채	31.9	40.9	48.9	55.6	63.0	7.4
- 공적자금 국채전환	29.4	42.4	53.2	52.7	49.2	-3.5
- 지방정부 순채무	7.0	9.2	9.6	9.8	10.4	0.6
- 기타	9.3	8.4	8.2	9.0	9.3	0.3

주: 1) 잠정치.

2) 한국은행 『2008년 국민계정 잠정치』 발표(2009.3.27)에 따라 변경된 GDP를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 2008년도 국세수입은 예산(165.6조원)을 1.7조원(1.1%) 상회하는 167.3조원을 기록

● 2007년 실적(161.5조원) 대비로는 5.8조원(3.6%) 증가한 수준

－ 유가환급금 등의 감세(9.1조원)를 감안할 경우, 작년 실적대비 9.3%(15.0조원) 증가

국세수입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실적	예산
총국세	122.1	117.8	127.0	127.4	135.3	138.0	147.3	161.5	165.6	167.3	164.0
일반회계	111.2	108.2	117.6	122.4	130.0	132.7	141.6	155.4	159.4	160.7	
－ 소득세	22.0	23.4	24.5	24.6	27.7	31.0	32.8	38.9	38.0	36.4	
－ 법인세	23.6	24.7	29.7	29.8	26.9	29.4	30.5	35.4	36.3	39.2	
－ 부가가치세	37.2	34.6	36.2	36.1	41.3	38.1	41.2	40.9	43.9	43.8	
특별회계	10.9	9.6	9.5	5.1	5.3	5.4	5.7	6.1	6.2	6.6	

주: 2009년은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세입은 232.2조원, 세출은 222.9조원으로 집계

● 세계잉여금은 6.5조원을 기록: 결산상잉여금 9.3조원 - 이월액 2.8조원

－ 불용액은 전년에 비해 상당 수준 증가(1.3조원, 30.2%)

세입·세출 결산 추이

(단위: 조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세입 결산액	188.1	197.8	206.2	216.0	232.2
세출 결산액	183.2	192.4	200.9	196.9	222.9
결산상 잉여금	4.9	5.4	5.3	19.1	9.3
이월액	4.1	2.4	2.9	2.6	2.8
세계잉여금	0.9	3.0	2.4	16.5	6.5
불용액	7.1	5.1	3.3	4.3	5.6

자료: 기획재정부.

■ 경제여건 악화에 따라 2009년도 예산은 수차례에 걸쳐 조정

- 당초 예산안(2008.9.30)은 경제성장률을 4.8~5.2%(경상 7.2~7.6%)로 전제하였으나, 수정예산안(2008.11.3)은 “경제난극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총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8~4.2%(경상 6.2~6.6%)로 하향조정
- 한편 국회의결(2008.12.13)을 통과한 수정예산안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내외로 재수정하여 총수입을 축소하고, 총지출은 소폭 확대
- 금년의 추경예산안(2009.3.23)상에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경상 0.5%수준)로 다시 수정하여 총수입을 11.2조원 축소하고, 총지출은 17.7조원 확대
 - 재원조달: 2008년 세계잉여금(2.1조원), 국고채발행(22.0조원) 등
 - 지출확대 분야: 저소득층 생활안정(4.2조원), 고용유지·확대(3.5조원), 중소기업·자영업자 지원(4.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3.0조원) 및 미래대비 투자(2.5조원)
- 추경예산안의 국회의결(2009.4.29)에 따라 총지출 확대폭은 17.2조원으로 축소
 - 추경 편성에 따라 관리대상수지는 2008년에 비해 상당 수준 악화되고(51.0조원 적자, GDP대비 -5.0%), 국가채무의 GDP대비 비중은 5.4%p 증가한 35.5%를 기록할 전망

2009년도 예산 확대 과정

(단위: 조원, %)

구 분	2008년 ¹⁾	2009년				
		예산안	수정예산안	국회의결 예산	추경예산안	국회의결 추경예산
총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274.2 (9.4)	295.0 (7.6)	293.2 (6.9)	291.0 (6.1)	279.8 (2.0)	279.8 (2.0)
총지출 (전년대비 증가율)	262.8 (10.2)	273.8 (4.2)	283.8 (8.0)	284.5 (8.3)	302.3 (15.0)	301.8 (14.8)
통합재정수지	11.4	21.2	9.4	6.4	-22.5	-22.0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²⁾	-16.6 [-1.6]	-10.4 [-0.9]	-21.8 [-2.0]	-24.8 [-2.2]	-51.6 [-5.0]	-51.0 [-5.0]
국가채무 [GDP대비] ²⁾	308.3 [30.1]	333.8 [29.9]	350.8 [31.8]	352.8 [32.0]	366.9 [35.6]	366.0 [35.5]
일반회계국채(순증)	7.4	7.3	17.6	19.7	36.9	35.5
성장률 전망치(실질)		5.0	4.0	3.0	-2.0	-2.0

주: 1) 추경 포함.

2) 한국은행 『2008년 국민계정 잠정치』 발표(2009.3.27)에 따라 변경된 GDP와 성장률 전망치를 이용.

자료: 기획재정부

II

世界經濟 動向 및 展望

1. 要約
2. 主要 國家別 經濟狀況
3. 換率 및 金利
4. 原資材와 半導體 價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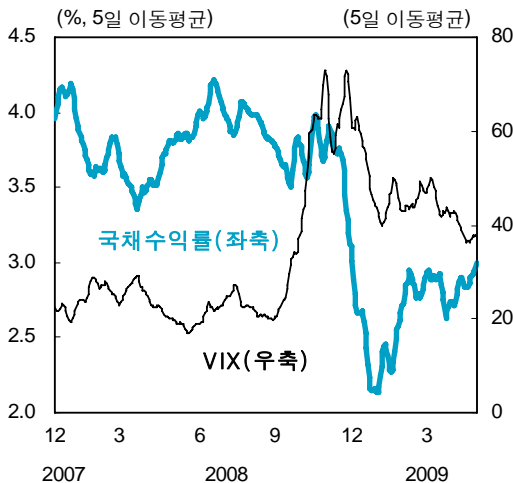
1. 要約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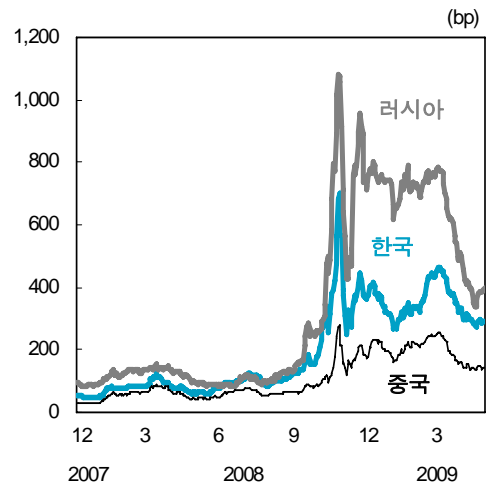
■ 각국 정부의 구제금융 및 정책금리 인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고 국제금융시장이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신흥국가들의 외채위기 가능성 등 불안요인들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 지난 1~2월 중에는 실물경기 침체의 장기화 전망 및 동유럽 국가들의 대외채무 불이행 가능성 등이 부각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
 - 작년에 금융시장에서 초래된 위기가 실물경제에 악영향을 미친 이후 금년 들어 실물경제의 부진이 다시 금융시장에 충격을 주는 양상으로 전개됨.
 - 특히,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심화되면서 각국의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한 가운데 경기부양을 위한 국채발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채수익률 등 시장금리가 상승함.

미국의 국채수익률과 VIX 지수



주요국의 CDS 프리미엄



자료: 국제금융센터, Chicago Board Options Exchange.

- 그러나 3월 이후 주요 선진국의 대규모 유동성 공급 조치와 저금리정책 유지 등으로 금융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
 - 미국 정부가 장기국채와 금융권의 부실자산을 매입하는 등 각국의 안정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개도국의 주가가 크게 상승
- 다만, 일부 신흥시장국의 유동성 위기가 지속되는 등 금융시장에서 경제주체들의 신뢰가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상대적으로 경제여건이 취약한 신흥개도국들에서 환율 불안 등으로 대외 차입 문제가 재현될 가능성도 상존

주요 개도국의 외채 및 예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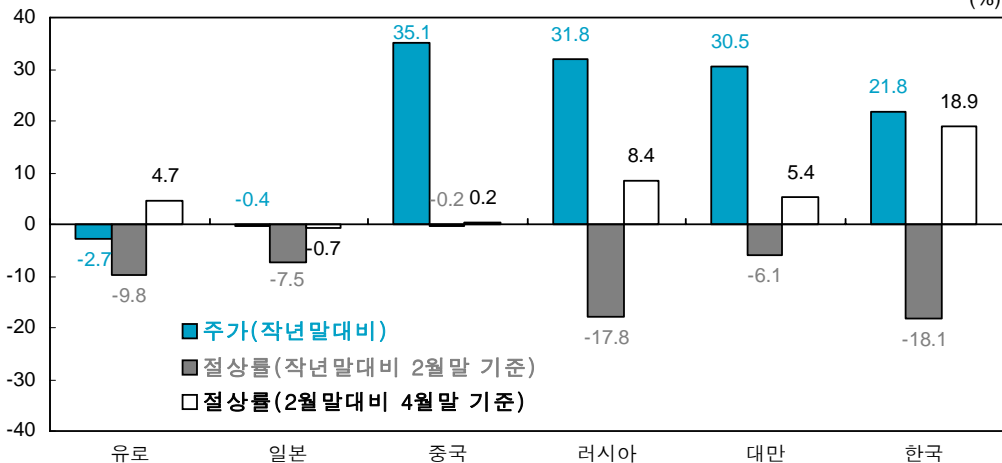
	체코	헝가리	폴란드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한국
유동외채/외환보유고	89	171	169	85	73	93
대출/예금	80	140	110	70	80	120

자료: 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09.

- 한편, 1~2월중 금융위기 재현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신흥시장국의 통화 가치가 급락하였으나, 3월 이후 국제금융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면서 달러화의 가치는 하락

주요국의 주가변동률과 달러화 대비 주요 통화의 절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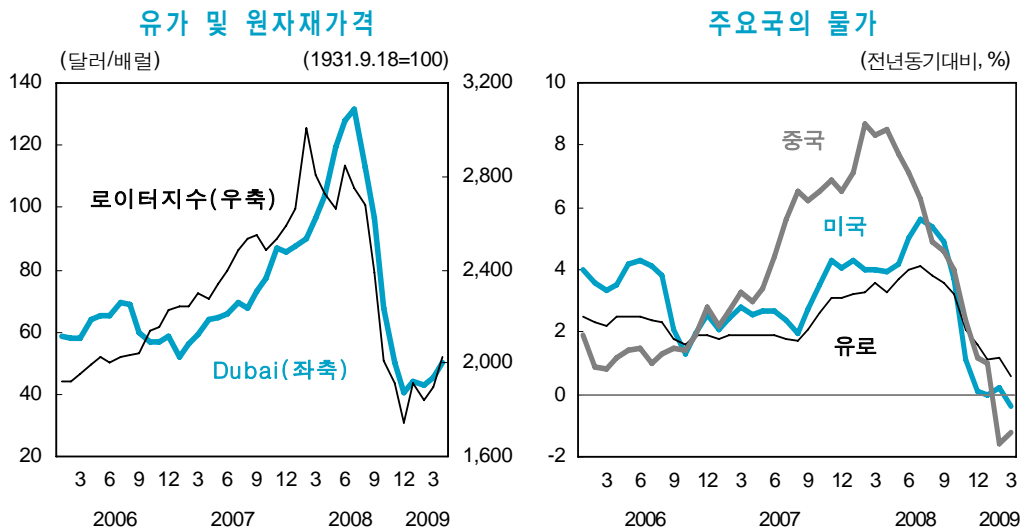
(%)



■ 선진국의 내수 및 고용 부진이 심화되는 가운데, 수출수요가 급감하면서 개도국의 경기도 위축되고 있으나, 최근 들어 일부 경제지표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

●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원유 및 원자재가격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였음.

- 주택가격의 하락 등 자산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각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급락
- 다만, 주요 재정 및 통화확대정책에 기인한 달러화 약세가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경우, 향후 물가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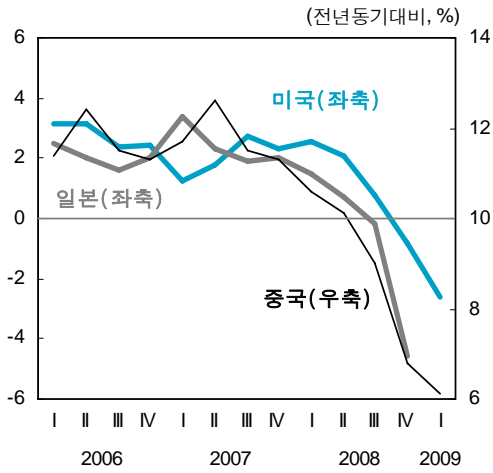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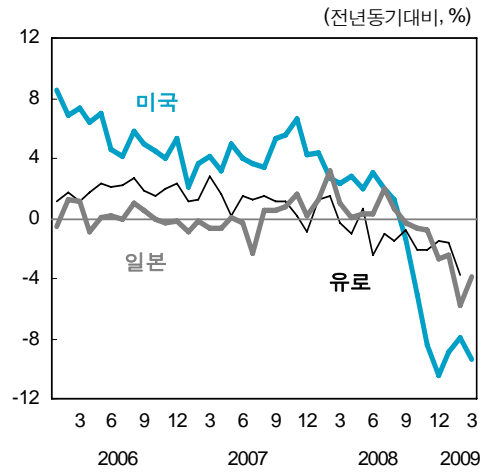
● 각국 정부의 다양한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소비 및 고용여건이 모두 악화되는 등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개도국의 경우에도 수출과 산업생산이 급감하면서 경기위축이 빠르게 진행

- 전반적으로 개인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저축과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소비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모습

주요국의 경제성장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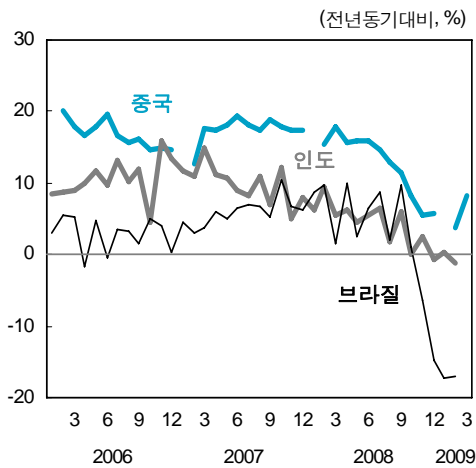


주요 선진국의 소매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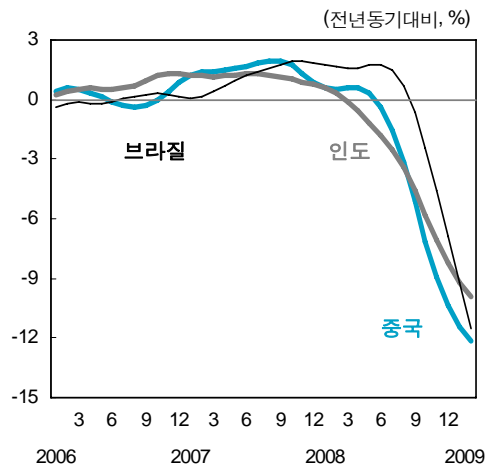


- 실물경제 지표의 악화 추세를 고려하면, 일부 국가의 경기침체 국면이 더욱 확장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 일본경제의 부진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나타났으며, 중국의 1/4분기 경제성장률이 6.1%까지 하락하는 등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경기하강이 뚜렷함.
- 이와 같은 전 세계적 경기하강이 세계교역량 감소로 이어짐에 따라 주요 신흥시장국과 개도국의 수출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주요 개도국의 산업생산



주요 개도국의 경기선행지수



- 최근 들어 미국의 주택시장과 일부 국가의 실물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경기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고용사정 악화 및 소비·투자 부진의 지속 등의 요인을 감안할 때 경기회복은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한편, 경제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가 지속되고 금융위기와 세계경제 침체에 대응하여 각국 정부가 국채발행을 크게 확대함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는 심각한 재정부실로 이어지는 모습

주요국의 2009년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 전망

(GDP 대비 비중, %)

	미국	유로	영국	일본	중국	한국
경상수지	-2.9	-0.5	-2.7	1.8	6.5	1.3
재정수지	-14.0 (-9.1)	-10.7	-4.7 (-9.8)	-9.4 (-9.4)	-2.5 (-3.6)	-6.6 (-3.2)

주: Global Insight 전망 기준. 단, ()안은 IMF의 전망치임.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009 ; IMF, *Update on Fiscal Stimulus and Financial Sector Measures*, April 2009.

■ 2009년 세계경제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가운데, 주요 선진국 경제의 침체국면이 지속되면서 선진국과 수출주도형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경기 하강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주요 전망기관들은 주요 국가의 대규모 경기부양조치와 일부 긍정적인 조짐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경기침체가 대외의존도가 높은 신흥국가들로 확산되는 상황을 반영하여 세계경제와 각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통화 및 재정정책이 지속되고 있으나, 주요 금융기업의 부실자산 처리가 지연되고 가계의 실질소득 감소로 소비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경기침체가 비교적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2009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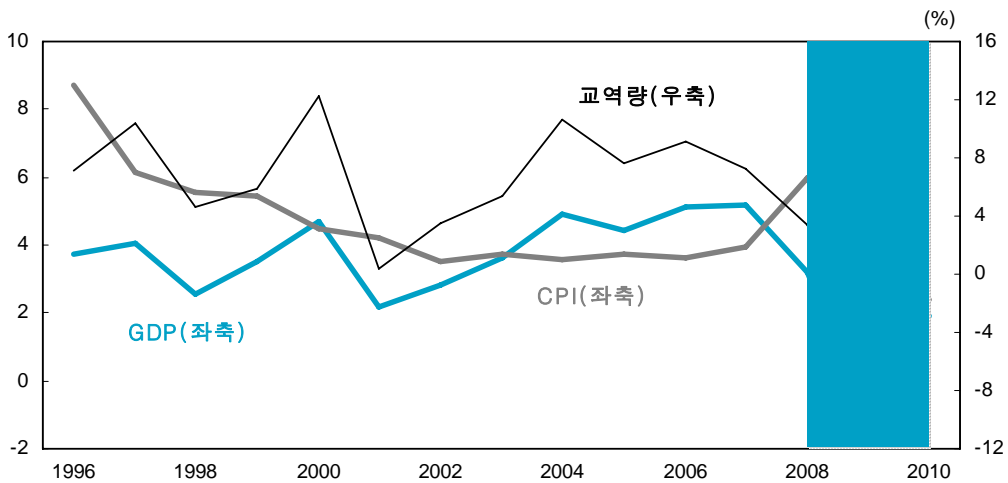
전망시점	World	미국	유로	일본	중국	NIEs ¹⁾
2008년 11월	2.2	-0.7	-0.5	-0.2	8.5	2.1 (2.0)
2009년 1월	0.5	-1.6	-2.0	-2.6	6.7	-3.9 (-4.0)
2009년 4월	-1.3	-2.8	-4.2	-6.2	6.5	-5.6 (-4.0)

주: 1) Newly industrialized Asian economies: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2) ()안은 한국에 대한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November 2008, January · April 2009.

- 미국경제는 주택시장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등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될 가능성은 있으나, 소비와 고용을 중심으로 주요 내수지표들이 악화되면서 2008년 1.1%에서 2009년에 -2.8%로 성장세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유로경제도 동유럽 국가들의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경색이 장기화되고 주요 경제주체들의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2008년 0.9%에 비해 2009년에 -4.2%로 성장률이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일본경제는 해외수요가 감소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하락세가 지속되고 기업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 위축 등으로 내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악화되면서 올해에는 여타의 선진국에 비해 크게 악화된 -6.2%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중국경제는 실물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당국의 조치 등으로 투자가 꾸준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경제의 침체가 심화되면서 수출과 생산 활동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2009년에는 6.5%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주요 세계 경제지표



주: 2009~2010년은 IMF의 전망치(2009년 4월).

세계 경제성장률 추이 및 전망¹⁾

(단위: %)

	2006	2007	2008	2009
세 계 ²⁾	5.1 (4.1)	5.2 (4.0)	3.2 (2.2)	-1.3 (-2.5)
선진국	3.0	2.7	0.9 (0.7)	-3.8 (-4.0)
미국	2.8	2.0	1.1 (1.1) [1.1]	-2.8 (-3.5) [-4.0]
일본	2.4	2.4	-0.6 (-0.7) [-0.6]	-6.2 (-6.7) [-6.6]
유로지역	2.8	2.7	0.9 (0.7) [0.7]	-4.2 (-4.0) [-4.1]
독일	3.0	2.5	1.3 (1.0) [1.0]	-5.6 (-4.8) [-5.3]
프랑스	2.4	2.1	0.7 (0.7) [0.7]	-3.0 (-3.2) [-3.3]
영국	2.8	3.0	0.7 (0.7) [0.7]	-4.1 (-3.8) [-3.7]
개도국	8.0	8.3	6.1 (5.9)	1.6 (0.4)
아시아 ³⁾	9.8	10.6	7.7 (5.7)	4.8 (2.4)
중국	11.6	13.0	9.0 (9.0) [9.0]	6.5 (5.9) [6.3]
한국	5.2	5.1	2.2 (2.2) [4.2]	-4.0 (-3.9)
대만	4.8	5.7	0.1 (0.1)	-7.5 (-4.9)
인도	9.8	9.3	7.3 (6.0) [6.0]	4.5 (4.3) [4.3]
중남미	5.7	5.7	4.2 (4.0)	-1.5 (-1.7)
브라질	4.0	5.7	5.1 (5.1) [5.1]	-1.3 (-1.6) [-0.3]
중동	5.7	6.3	5.9 (5.8)	2.5 (-0.6)
아프리카	6.1	6.2	5.2 (5.5)	2.0 (1.3)
중앙·동유럽	6.6	5.4	2.9 (3.1)	-3.7 (-3.0)
C I S	8.4	8.6	5.5 (5.5)	-5.1 (-3.6)
러시아	7.7	8.1	5.6 (5.6) [5.6]	-6.0 (-3.8) [-5.6]

주: 1) IMF 자료를 주로 참조하였으며, ()와 []의 수치는 각각 Global Insight와 OECD 자료에 근거.

2) IMF의 세계 전체 성장률은 PPP방식의 추정치.

3) 아시아 지역에서 Global Insight는 일본만을 제외하지만, IMF는 한국, 일본, 대만, 홍콩, 싱가포르를 제외 (선진국에 포함).

자료: Global Insight, *World Overview*, 2009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9.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09.

2. 主要 國家別 經濟狀況

가. 미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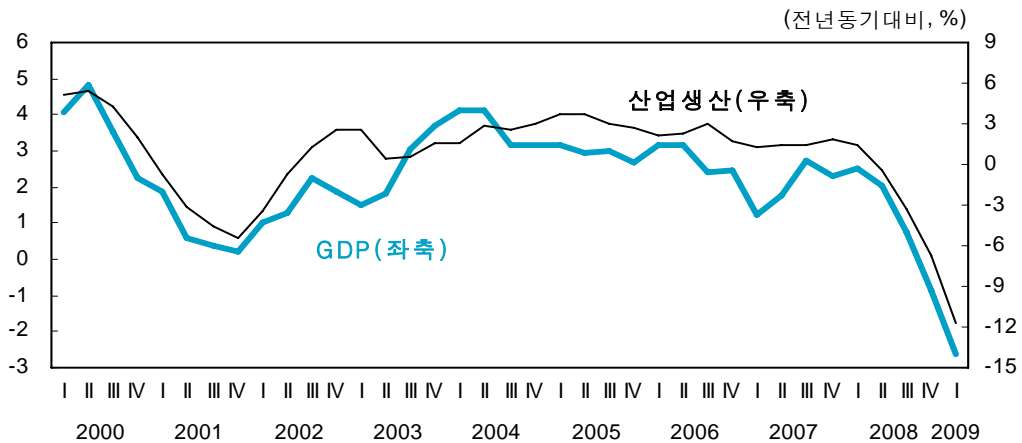
신용경색에 대한 우려와 주택경기의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나 주요 경제지표들의 하락세는 지속되는 모습

■ 미국경제는 전반적으로 경제지표들이 악화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경기하락세가 지속

● 금년 1/4분기 경제성장률(전년동기대비)은 -2.6%를 기록하여 작년 4/4분기(-0.8%)에 이어 감소세가 확대

— 1/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연율)로 -6.1%를 기록한 가운데 개인소비, 고정투자, 수출입 등 대부분의 지표들이 부진한 모습

미국의 경제성장률과 산업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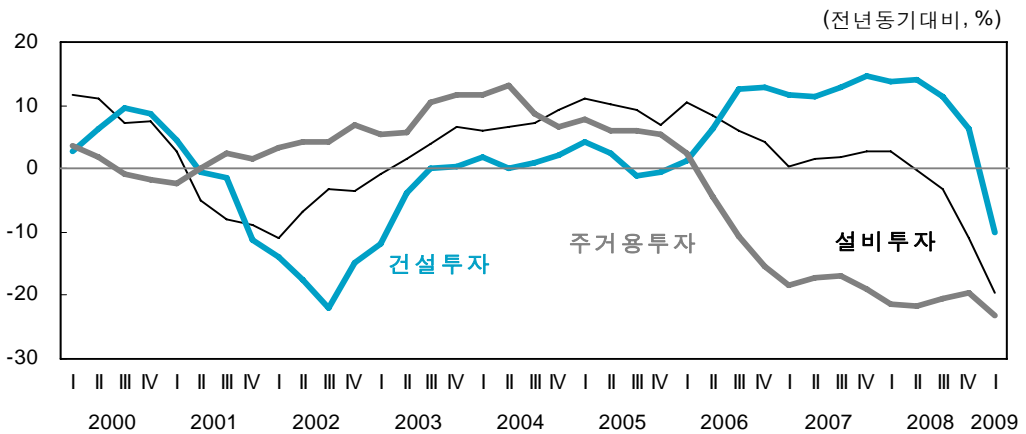


● 개인소비는 금년 1/4분기 중 -1.2%를 기록하여, 작년 3/4분기 이후 연속해서 감

소세를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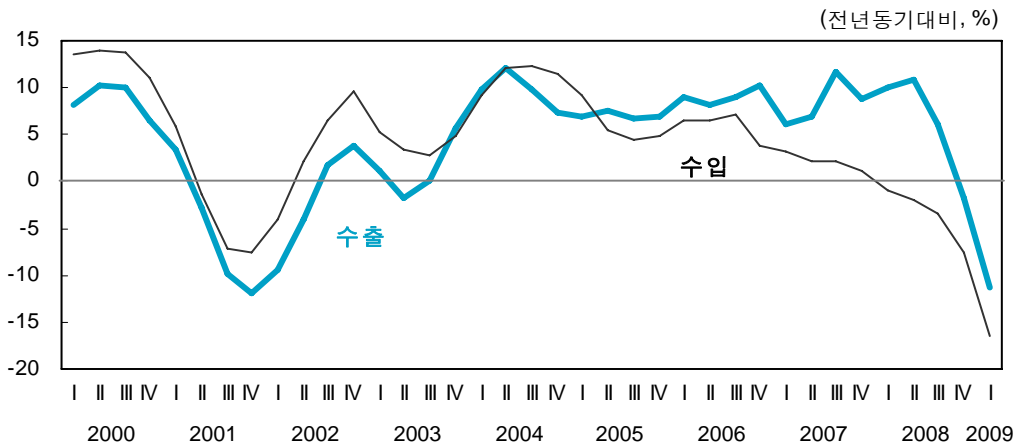
-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 등이 크게 감소하는 등 고정투자는 1/4분기 중 더욱 악화
 - 2006년 2/4분기 이후 급락했던 주거용 투자는 최근 들어 감소폭이 확대된 가운데 설비 투자와 건설투자의 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는 모습
 - 한편, 공장재 수주 및 내구재 수주 또한 2008년 4/4분기 이후 급격히 악화된 모습

미국의 고정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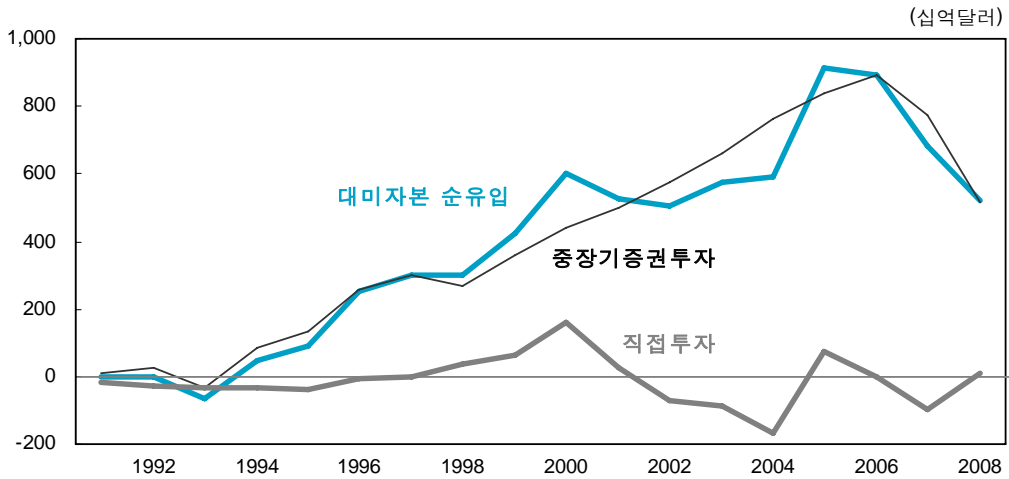
- 세계경기 둔화에 기인하여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 및 수입 증가세가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
 - 상품별로는 자동차 등 제조업 부문에서의 수출 및 수입이 크게 감소
 - 작년 7월 이후 수출과 수입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지만, 최근 수입이 급락하면서 무역수지는 개선되는 모습
 -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순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미국의 수출과 수입



● 한편, 금리 하락, 환율 불안 등으로 외국인의 주식 및 채권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2008년중 자본 순유입은 하락세를 나타냄.

미국의 대미자본 순유입



미국의 국민계정(실질)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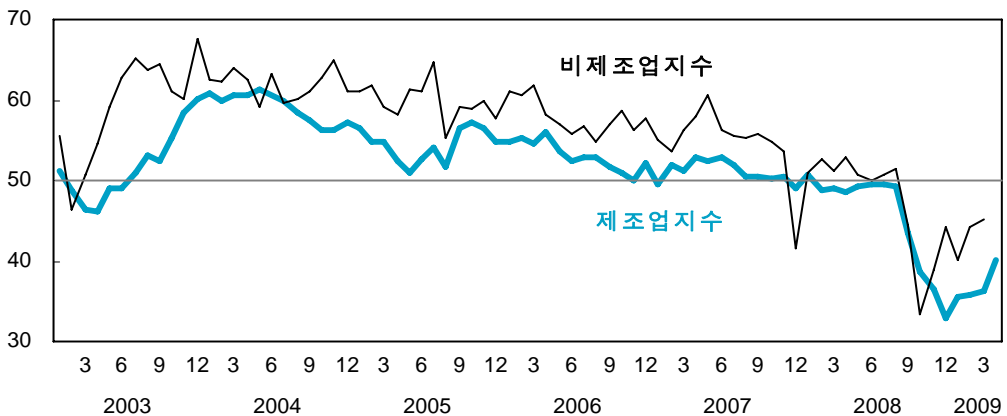
	2006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GDP (전기대비연율)	2.8	2.0	1.1	2.5 (0.9)	2.1 (2.8)	0.7 (-0.5)	-0.8 (-6.3)	-2.6 (-6.1)
개인소비	3.0	2.8	0.2	1.5	1.3	-0.2	-1.5	-1.2
고정투자	1.9	-3.1	-5.0	-2.5	-3.6	-4.7	-9.0	-18.1
설비	7.2	1.7	-3.0	2.7	-0.3	-3.1	-11.0	-19.6
주거용	-7.1	-17.9	-20.8	-21.3	-21.7	-20.6	-19.4	-23.2
총 수출	9.1	8.4	6.2	10.1	11.0	6.1	-1.8	-11.3
총 수입	6.0	2.2	-3.5	-1.0	-1.9	-3.1	-7.5	-16.5
정부소비 및 투자	1.7	2.1	2.9	2.6	2.6	3.1	3.2	1.7

자료: 미 상무부.

■ 최근 산업생산의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부진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등 침체상태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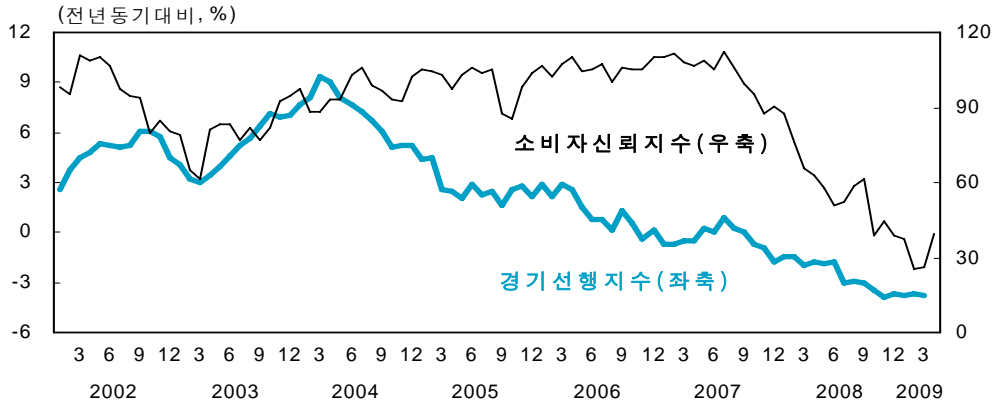
- ISM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 모두 증가세를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
 - 제조업지수가 저조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는 등 하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

미국의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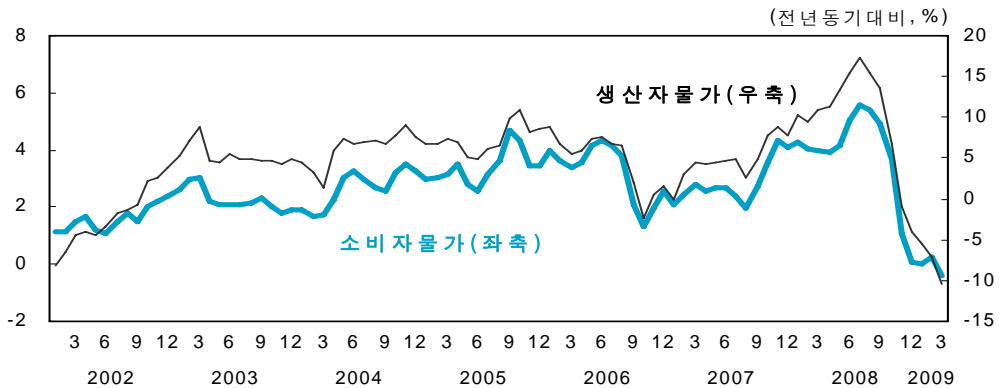
- 한편, 경기선행지수는 부진한 모습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비자신뢰지수는 소폭 상승하였으나 여전히 침체된 모습
 - 다만,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던 소비자신뢰지수가 최근 상승하여 향후 소비 및 전반적인 경기회복 가능성을 시사

미국의 경기선행지수와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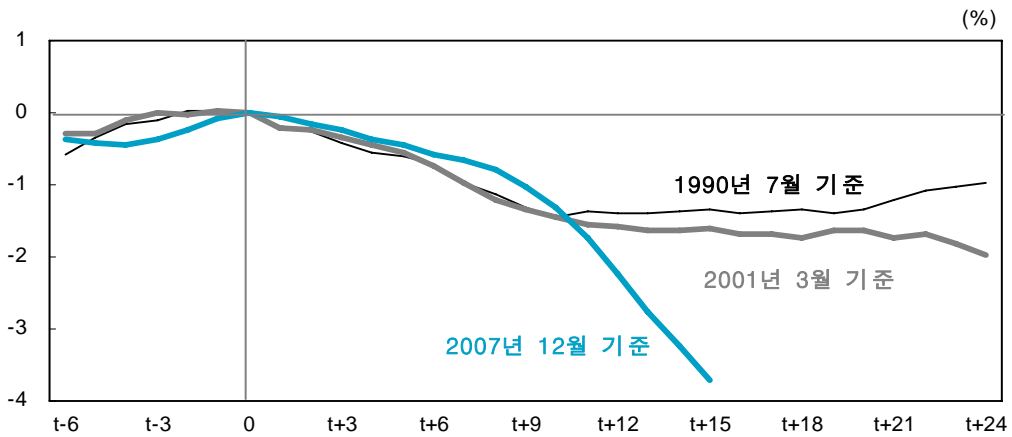
- 한편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는 2008년 7월 이후 큰 폭으로 둔화되는 모습
 - 작년 7월중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생산자물가상승률은 각각 전년동기대비 5.6%, 17.4% 까지 급등하였으나, 금년 3월에는 각각 -0.4%, -10.5%까지 하락
 - 물가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급락한 데에는 유가가격의 급락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이 주요 요인

미국의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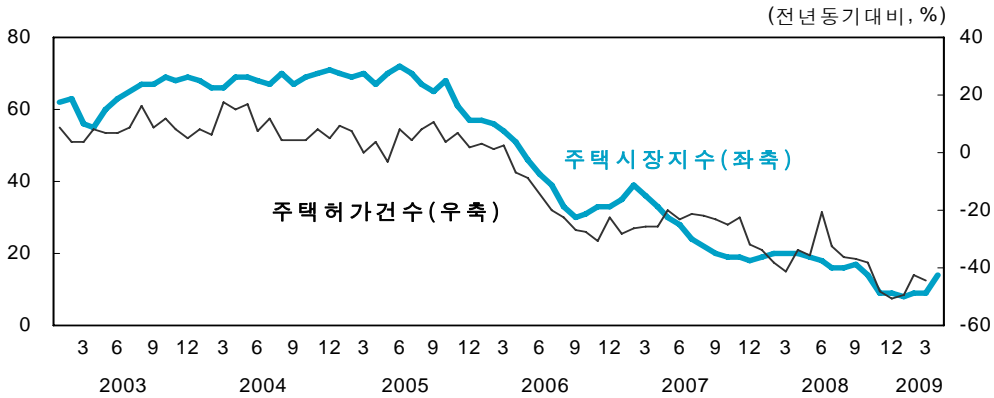
- 실업률은 4월에 8.9%를 기록한 가운데 취업자수도 2008년 6월 이후 감소폭이 점차 확대되는 모습
 - 2008년 5월에 5.0%이던 실업률은 이후 급등하여 10개월 만에 3.9%p 증가
 - 특히, 취업자수는 제조업, 전문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있어 1990년과 2001년 등 이전의 경기침체에 비해 감소폭이 더욱 확대되는 등 고용시장은 급격하게 악화되는 모습

미국의 취업자수 증가율



- 주택시장은 주택판매와 주택허가건수 등 일부 지표가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여전히 부진한 모습
 - 금년 들어 주택판매 및 주택허가건수 등 일부 지표의 감소폭이 둔화되었으나 본격적인 회복은 지연되는 모습
 - 신규주택판매가 2월 이후 감소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주택시장의 침체가 가속화되지는 않을 가능성을 시사
 - 주택시장지수는 2월 이후 상승세로 전환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주택건설 경기가 호조세로 전환되기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주택공실률이 1/4분기중 소폭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는 가운데 주택가격지수의 하락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
 - 감소폭이 확대되던 주택가격지수는 2009년 2월중 감소폭이 소폭 둔화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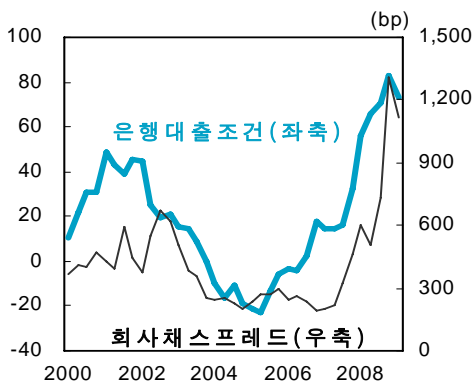
미국의 주택시장지수와 주택허가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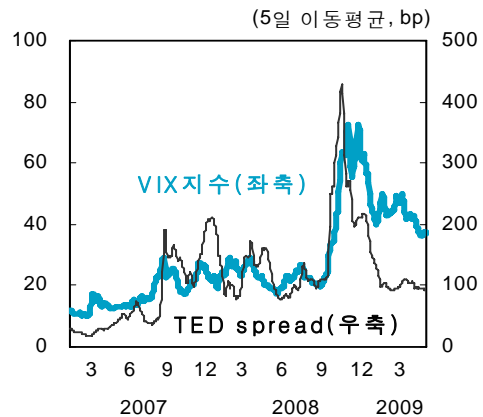
■ 미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구제금융 조치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안은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재정수지는 악화되는 모습

- 금년 들어 정부의 시장안정화 정책 발표 이후 신용스프레드는 소폭 축소되고 은행의 대출조건도 개선되었으며 주식시장의 급락세도 진정되는 모습
 - 여러 차례에 걸친 정책당국의 금융안정대책 관련 조치로 인하여 주가가 3월 이후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금융시장의 불안은 소폭 완화되는 모습
- VIX지수와 TED 스프레드 또한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다소 안정세를 회복
 - 특히, TED 스프레드의 경우 2008년 금융시장 불안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한 모습

미국의 은행대출조건과 회사채스프레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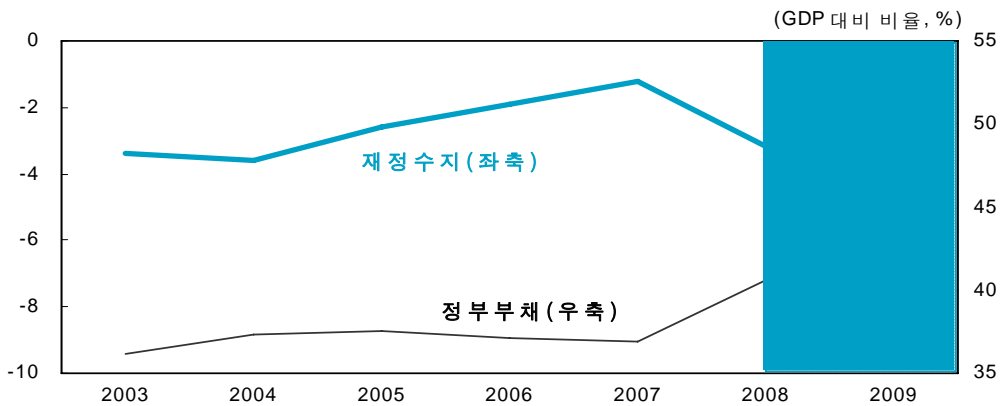


미국의 VIX지수와 TED spread



- 30년 고정모기지금리가 작년 11월 이후 큰 폭으로 하락함에 따라 향후 주택 및 기업 투자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 그러나 통화공급 확대 정책 등으로 정부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재정수지의 적자폭은 2009년중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통화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장기국채 및 모기지 증권 매입 등을 통해 유동성 공급을 더욱 확대할 예정
 - IMF는 금년 재정수지가 GDP대비 -9.1%까지 악화될 것으로 예상

미국의 재정수지와 정부부채



- 미국은 신용경색 및 고용시장 악화 등으로 경기둔화세가 당분간 지속된 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요 투자은행들은 금년 경제성장률이 -2%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일부 지표가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하락세를 지속한 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
- 향후 미국 경제는 정책당국의 재정책대 및 구제금융 조치의 효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
 - IMF에 따르면 경제성장률은 금년에 -2.8%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0.0%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주요 투자은행들은 상반기에는 감소폭이 다소 둔화되었다가 하반기에 증가세로 전환하여 2010년에는 경기침체에서 회복될 것으로 전망

주요 투자은행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국제투자은행	2009				2009	2010
	1/4	2/4	3/4	4/4		
Bank of America	-5.2	-3.2	0.5	1.6	-2.4	1.8
Barclays Capital	-5.5	-3.0	0.0	2.0	-2.5	2.3
Credit Suisse	-4.5	-1.0	1.8	3.2	-1.5	3.5
Citigroup	-5.1	-2.3	-0.5	0.8	-2.7	1.7
JP Morgan	-5.5	-0.5	1.5	2.5	-1.8	2.5
Deutsche Bank	-6.5	-2.8	0.0	1.0	-2.7	1.4
성장률 평균	-5.4	-2.1	0.6	1.9	-2.3	2.2

주: 1) 2009년 2월말 기준.

2)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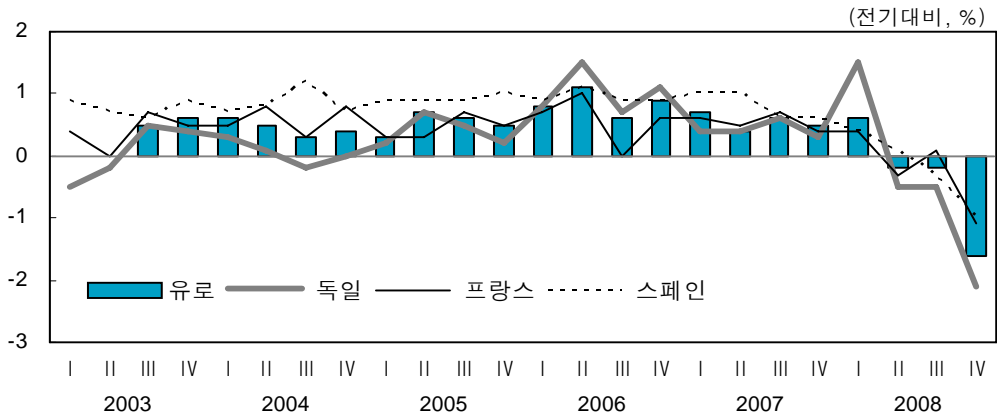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나. 유로경제

유로지역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대외수요 감소, 신용경색 및 고용악화 등으로 인한 내수부진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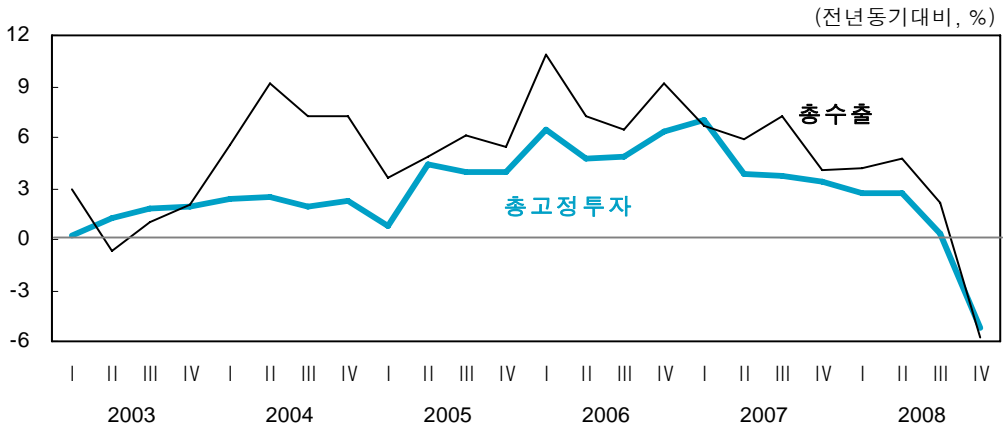
- 2008년 4/4분기 중 유로경제는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 심화로 민간소비, 고정투자, 수출이 모두 부진함에 따라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
- 유로지역내 총생산은 작년 2/4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4/4분기에는 전기대비 1.6% 감소하며 유로지역 출범 이후 최저 성장률을 기록함.
 - 국가별로는 독일(-2.1%) 및 이탈리아(-1.9%)가 3분기 연속, 스페인(-1.0%)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 프랑스도 전분기 0.1%에서 -1.1%로 전환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실질)



- 작년 4/4분기 유로지역의 민간소비는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 및 고용악화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전년동기대비 0.6%(전기대비 -0.3%) 감소하였으며, 고정투자 역시 기업투자 둔화 및 건설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5.2%(전기대비 -4.0%) 감소
- 한편 국내수요가 위축되는 가운데 주요 교역상대국의 경기둔화로 해외수요도 감소하면서 수출과 수입 증가율 역시 전년동기대비 -5.8%와 -3.3%로 크게 감소함.

유로지역의 총수출 및 총고정투자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실질)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역내총생산	2.9	2.7	3.1 (0.7)	2.6 (0.4)	2.7 (0.6)	2.3 (0.5)	0.8	1.9 (0.6)	2.1 (-0.2)	0.8 (-0.2)	-1.5 (-1.6)
민간소비	2.0	1.6	1.6	1.6	1.7	1.4	0.5	1.3	0.8	0.5	-0.6
정부소비	1.9	2.2	2.3	2.2	2.5	1.9	2.0	1.4	2.3	2.4	2.0
총고정투자	5.6	4.4	7.0	3.9	3.7	3.4	0.0	2.7	2.7	0.3	-5.2
총수출	8.4	6.0	6.7	5.9	7.2	4.1	1.3	4.2	4.7	2.2	-5.8
총수입	8.3	5.4	6.1	5.3	6.4	3.8	1.3	3.2	3.2	2.1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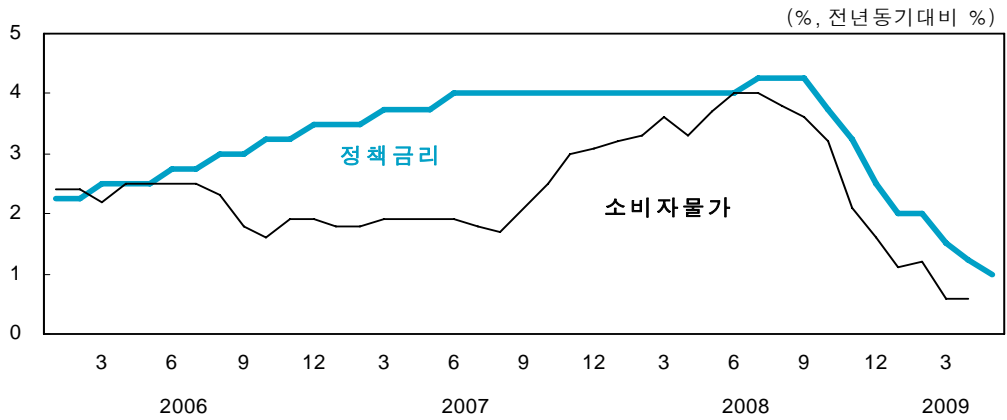
주: ()는 전기대비.
자료: Eurostat.

■ 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기인하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나, 자산가격 하락 및 고용악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소비관련 지표의 부진이 이어지는 모습

● 국제유가 하락 및 수요부진 등의 영향으로 유로지역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급격한 둔화세를 지속하고 있음.

- ECB가 지난 5월 7일 기준금리를 기존의 1.25%에서 0.25%p 인하한 1.0%로 결정한 가운데,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월(0.6%)에 이어 전년동기대비 0.6%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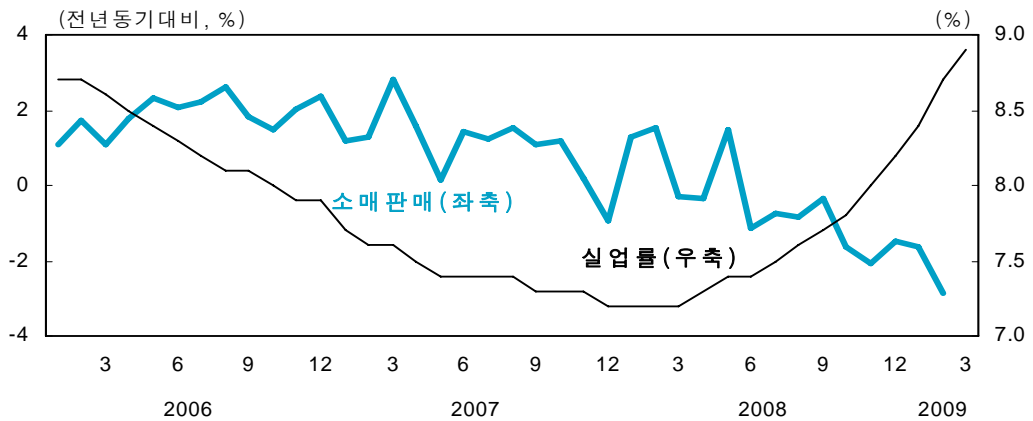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정책금리 및 소비자물가



●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 감소 등의 영향으로 실업률이 급등하면서 유로지역의 2월 소매판매는 전년동기대비 2.9% 감소하며 전월(-1.6%) 보다 감소 폭이 확대

- 2007년 12월 7.2%까지 하락하였던 유로지역의 실업률은 2008년 들어 상승세로 전환된 후 2009년 3월에는 8.9%까지 높아졌으며, 국가별로는 스페인 17.4%, 프랑스와 독일이 각각 8.8%, 7.6%를 기록함.
- 유로지역의 작년 4/4분기 고용은 전년동기대비 0.0% 증가에 그치면서 전기(0.6%)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었으며, 전기대비로는 3/4분기 0.1% 감소에 이어 4/4분기에 0.3% 감소하며 2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

유로지역의 소매판매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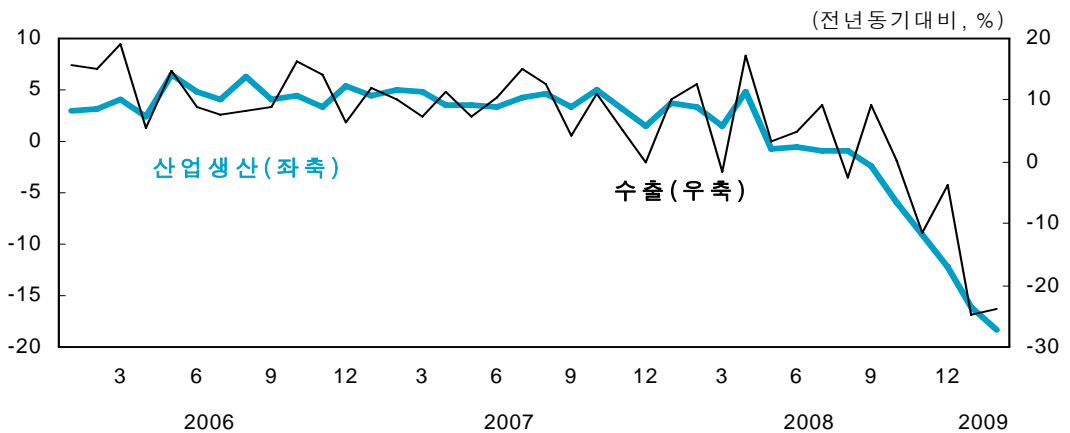


■ 심리지표의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나 산업생산과 수출이 큰 폭 감소하는 등 실물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는 모습

●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의 감소에 기인하여 유로지역의 2월 산업생산은 전년동기대비 18.4% 감소하였으며, 수출 또한 전년동기대비 23.9% 감소하며 전월(-24.8%)에 이어 큰 폭의 하락세 지속

— 수입증가율 역시 -21.4%로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 적자는 전월(54억유로)보다 축소된 40억유로를 기록

유로지역의 산업생산 및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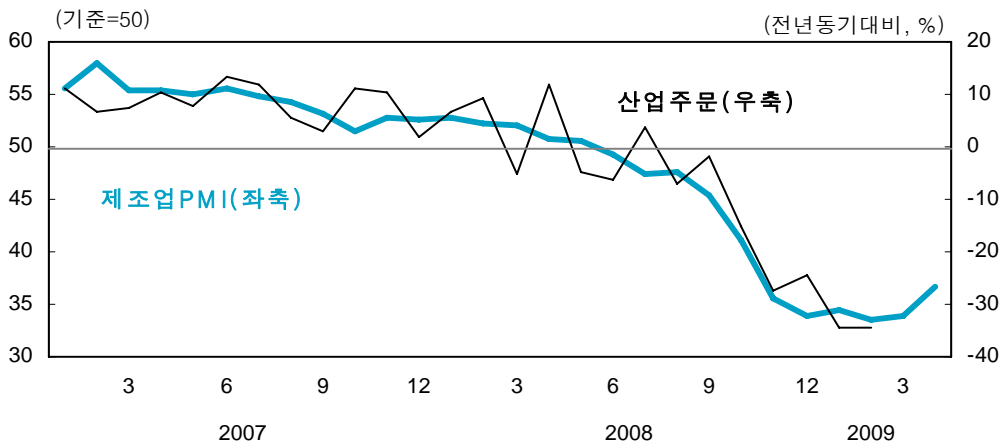


● 한편, 제조업 및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소폭 개선되는 모습이나 산업주문의 급락세가 지속되고 있어 산업생산 및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2월 산업주문은 전년동기대비 34.5% 감소하여 전월(-34.3%)에 이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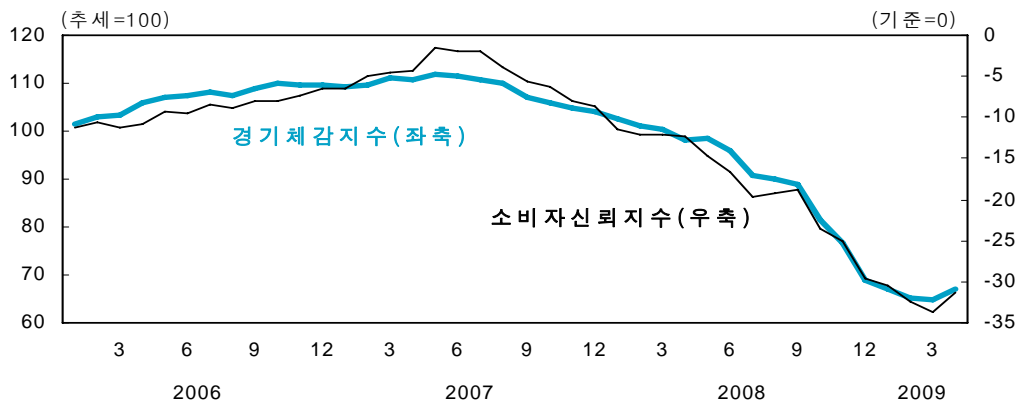
— 한편, 유로지역의 4월 제조업 PMI는 전월(33.9)보다 상승한 36.7을 기록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치(50)를 하회하고 있어 경기위축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함.

유로지역의 산업주문 및 제조업PMI



- 경기체감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의 급락세는 다소 진정되는 모습
 - 4월 경기체감지수는 전월(64.7)보다 상승한 67.2를 기록하였고, 소비자신뢰지수 역시 -31.3으로 전월(-34)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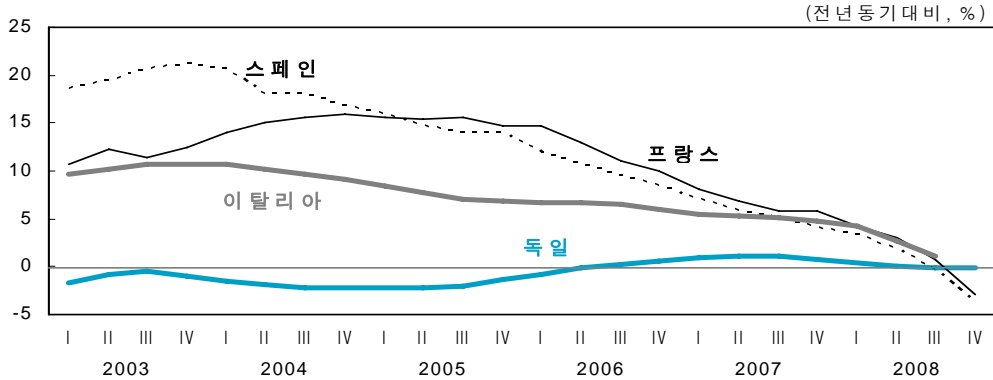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경기체감지수 및 소비자신뢰지수



- 기준금리 인하 및 유동성 공급확대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신용경색 및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2000년대 들어 6~7%대의 상승률을 보이던 유로지역의 주택가격은 2006년 이후 큰 폭으로 둔화되기 시작하여 최근 상당수 국가에서 하락세로 전환

- 스페인은 작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8% 하락하여 전월(-0.3%)에 비해 하락폭이 확대되었으며, 독일과 프랑스도 각각 0.2%와 2.9%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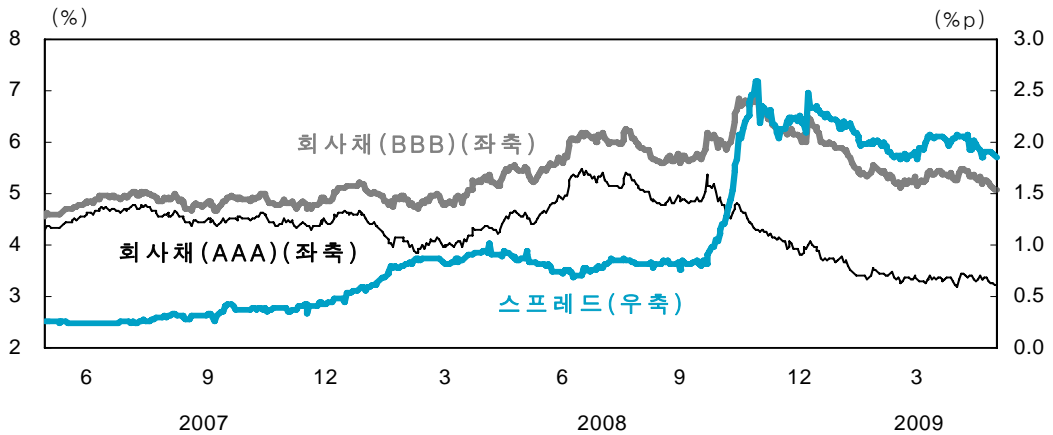
유로지역의 국가별 주택가격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9.

- 리스크 회피 성향 증대 등으로 은행의 대출기준이 강화되면서 대출 증가율의 둔화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3월 민간대출은 전년동기대비 3.2% 증가하며 저조한 수준을 지속
- 또한 회사채 관련 금리 스프레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4월말 현재 유로지역의 AAA와 BBB 등급 회사채 수익률간 신용스프레드는 186bp로 2008년 최고치(258bp)보다 축소되기는 하였으나 2007년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유로지역의 회사채 수익률 및 스프레드



유로지역의 경기관련지표

(전년동기대비, 지수, %)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1/4	2/4	3/4	4/4	1월	2월	3월
경제성장률	2.7	0.8	1.9	2.1	0.8	-1.5	-	-	-
소매판매	1.4	-0.5	0.8	0.0	-0.6	-1.7	-1.6	-2.9	-
실업률	7.5	7.6	7.2	7.4	7.6	8.0	8.4	8.7	8.9
소비자물가	2.1	3.3	3.4	3.6	3.8	2.3	1.1	1.2	0.6
산업생산 ¹⁾	3.8	-1.7	2.7	1.1	-1.4	-9.0	-16.2	-18.4	-
경기체감지수 ²⁾	109.8	91.2	101.7	97.5	89.9	75.8	67.2	65.3	64.7
제조업PMI ³⁾	54.3	46.5	52.4	50.2	46.6	36.9	34.4	33.5	33.9
서비스업PMI ³⁾	56.6	48.5	51.5	50.6	48.4	43.4	42.2	39.2	40.1
수출 ⁴⁾	11.4	3.8	6.8	8.5	5.6	-5.0	-24.8	-23.9	-
수입 ⁴⁾	8.9	7.3	8.6	11.1	12.5	-2.5	-22.9	-21.4	-
M3	11.2	9.7	10.9	10.2	9.1	8.2	6.0	5.8	5.1
환율(US\$/EUR) ⁵⁾	1.371	1.471	1.498	1.562	1.505	1.318	1.324	1.279	1.305
주가 ⁶⁾	4,316	3,320	3,809	3,706	3,279	2,498	2,345	2,160	1,994

주: 1) 건설업을 제외한 전산업, 2)100 기준, 3) 50 기준,
 4) 통관 기준(역내교역 제외),
 5) 기간 평균, 6) DJ EURO STOXX 50, 기간 평균.

자료: Eurostat, ECB.

■ 국제금융기관들은 신용경색이 장기화됨에 따라 투자와 소비가 둔화되고 세계 경기침체로 해외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2009년 유로지역 성장률이 -2% 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자산가격의 하락과 고용악화로 인한 실질소득 감소로 내수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한편, IMF는 4월 경제전망에서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 감소와 일부 국가에서의 주택가격 조정이 지속됨에 따라 유로지역의 2009년 성장률을 -4.2%로 전망

주요 국제금융기관별 유로지역의 경제성장률 전망

(%)

국제투자은행	분기별				2009	2010
	1/1	2/4	3/4	4/4		
Barclays Capital	-2.6	-1.4	1.3	0.9	-2.0	1.3
Bank of America	-4.0	-2.2	-0.2	1.3	-2.7	1.5
Citigroup	-5.3	-1.9	-0.4	1.3	-2.8	0.6
Credit Suisse	-4.1	-1.2	-0.2	1.4	-2.3	1.0
Deutsche Bank	-4.7	-3.2	0.1	0.4	-3.0	0.6
J.P Morgan	-5.0	-2.0	0.0	1.0	-2.8	0.8
성장률 평균	-4.3	-2.0	0.1	1.1	-2.6	1.0

주: 1) 2009년 2월말 전망 기준.
 2)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임.

자료: 국제금융센터.

다. 일본경제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수출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경기침체가 심화되는 모습

- 일본은 2008년 연간 성장률이 -0.6%를 기록하는 등 여타의 선진국에 비하여 경기하강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
 - 對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 급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시아를 비롯한 개도국으로의 수출 증가율도 크게 감소
 - 작년 4/4분기 총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2.8%를 기록
 - 특히, 수출부진으로 기업의 경상이익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투자심리가 위축되면서 설비투자 감소세도 확대
 - 수출 비중이 높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기업이익은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4/4분기 설비투자 증가율은 -11.8%로 크게 하락함.
 - 민간소비 증가율도 4/4분기 -0.3%를 기록하며 감소로 전환

일본의 국민계정

(전년동기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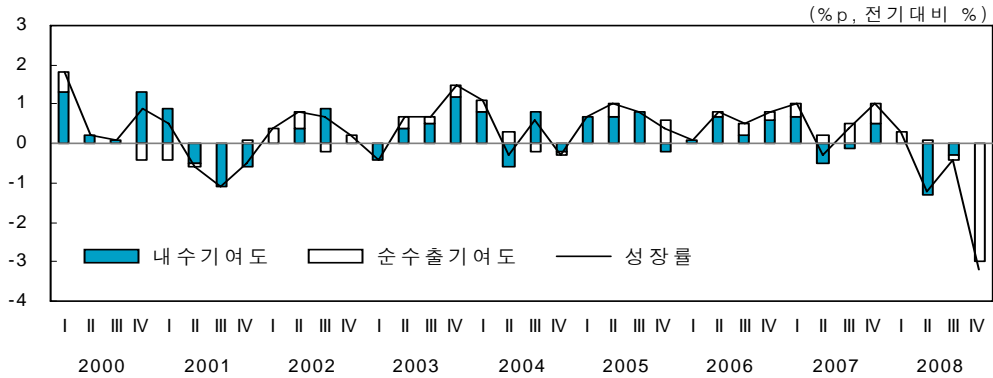
	2006	2007		2008					
	연간	연간	3/4	4/4	연간	1/4	2/4	3/4	4/4
국내총생산	2.0	2.4	1.9 (0.4)	2.0 (1.0)	-0.6	1.5 (0.3)	0.7 (-1.2)	-0.2 (-0.4)	-4.3 (-3.2)
민간소비	1.5	0.7	1.0	0.3	0.5	1.6	0.3	0.6	-0.3
주 택	0.5	-9.3	-11.0	-21.5	-6.9	-16.7	-15.9	-4.7	12.7
설비투자	2.3	5.8	3.8	2.8	-3.7	-0.6	0.7	-4.0	-11.8
정부소비	0.4	2.0	0.3	3.4	0.9	2.7	0.2	0.5	0.2
총 수출	9.7	8.4	8.4	10.2	1.7	11.0	5.9	4.4	-12.8
총 수입	4.2	1.5	1.2	2.0	1.1	2.8	-1.7	0.3	3.1

주: ()는 전기대비.
자료: 내각부.

- 이에 따라 2008년 4/4분기 성장률은 연율로 -12.1%를 기록하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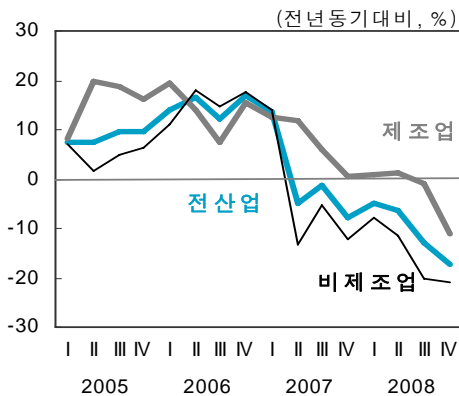
- 특히, 수출 증가율이 급락함에 따라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크게 하락하는 모습
- 내수의 성장기여도도 설비투자가 급락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하락세를 유지

일본의 경제성장률 및 부문별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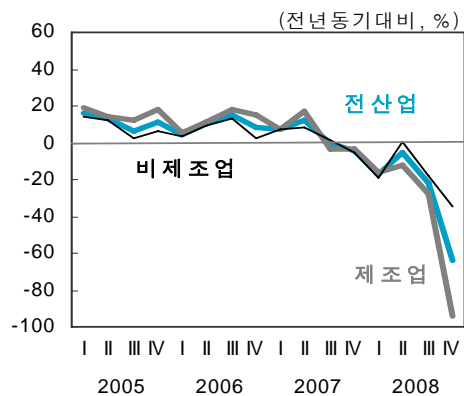


-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산업생산의 급락세가 이어지는 등 실물경제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모습
- 일본 법인기업의 작년 4/4분기 설비투자는 수출부진 심화와 엔화강세 지속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전분기보다 감소세가 확대
 - 4/4분기 경상이익은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교역조건이 전분기보다 개선되었으나, 대내외 수요 감소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22.4%까지 하락하는 등 감소세가 확대

법인기업 설비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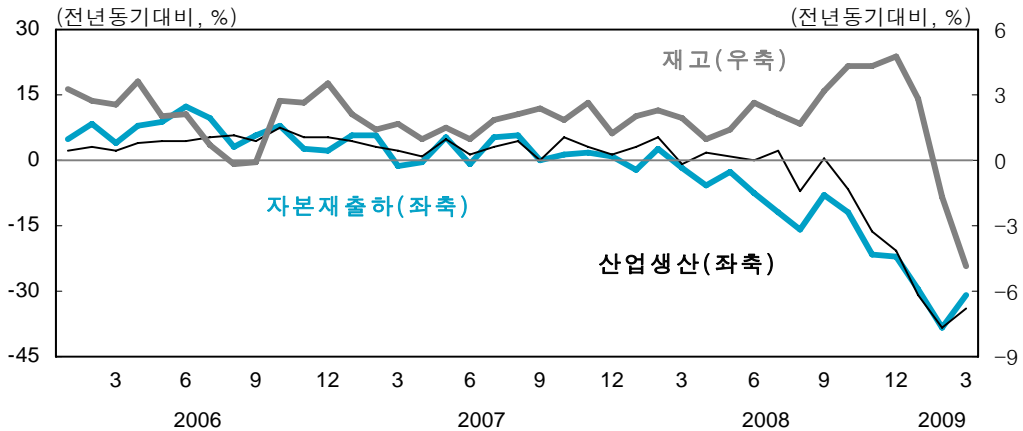


법인기업 경상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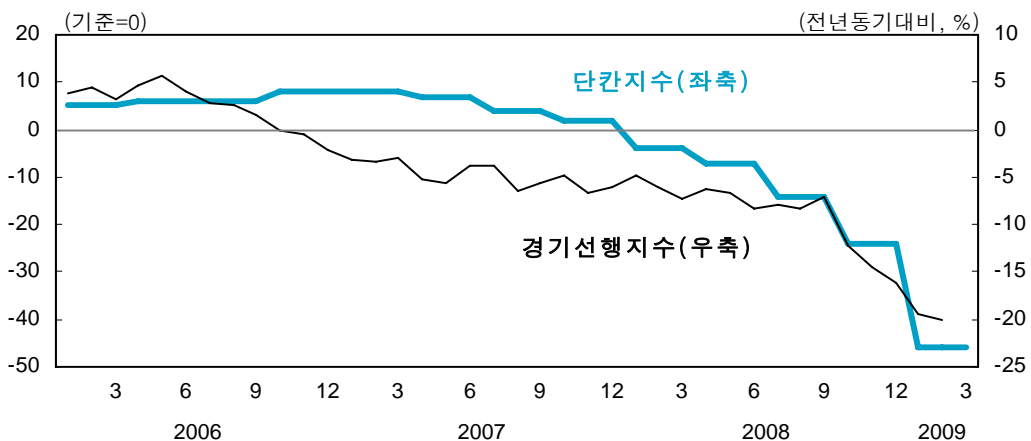
- 산업생산은 급락하는 가운데 투자의 동행지표인 자본재출하지수는 감소세를 지속
 - 한편, 지난 2월 이후 재고가 감소세로 전환되는 등 재고조정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모습

일본의 자본재출하, 산업생산 및 재고



- 단칸지수는 8분기 연속 감소하였으며 경기선행지표는 빠르게 하락하여 경기침체의 장기화 가능성이 확대
 - 3월 단기경제관측조사 결과 업황판단 DI는 8분기 연속하락하며 1998년(-49) 이후 최저 수준(-46)을 기록하는 등 수익악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경기선행지수는 감소세를 유지하고, 투자의 선행지표인 민간기계수주 또한 6개월 연속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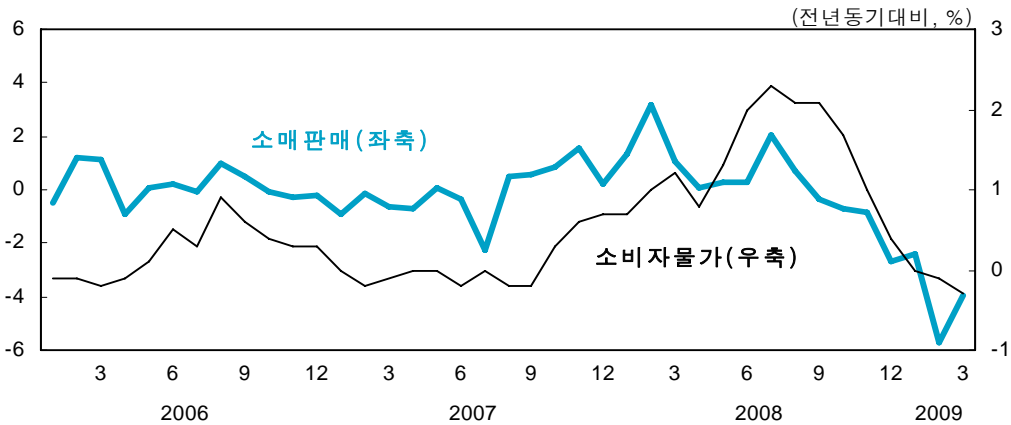
일본의 단칸지수 및 경기선행지수



■ 소비자물가는 하락하는 가운데 고용에 대한 불안으로 소비는 위축되고 주요 소비심리도 악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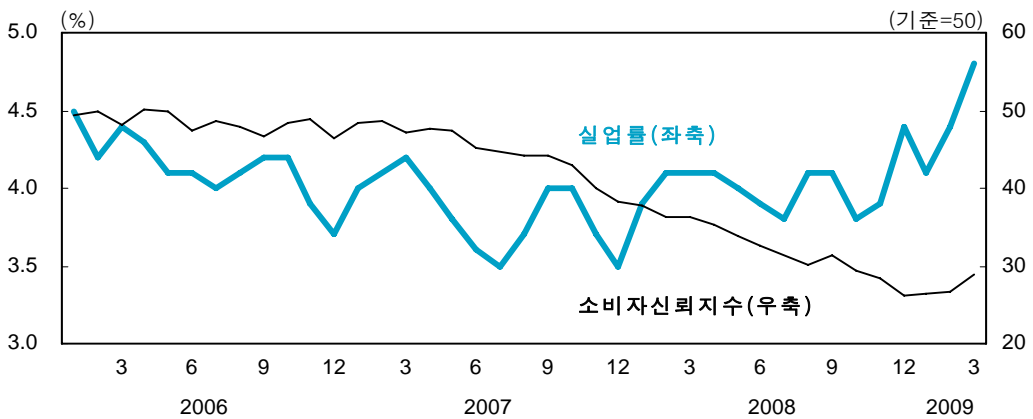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의 오름세는 진정되어 작년 9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가운데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소매판매는 부진한 모습

일본의 소매판매 및 소비자물가지수



● 실업률은 꾸준히 상승하여 3월 중 4.8%까지 증가한 가운데 유효구인배율도 하락하는 등 고용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소비자신뢰지수는 기준치를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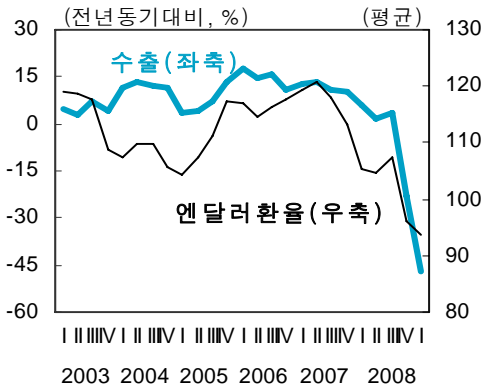
일본의 실업률 및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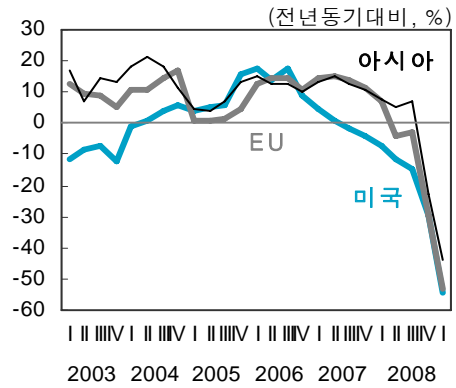
■ 세계경기 침체와 엔화강세의 지속으로 수출이 급락함에 따라 경상수지 흑자는 대폭 감소

● 엔/달러 환율이 지난 1월 90엔을 하회하는 등 엔화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선진국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율은 빠르게 하락하여 1/4분기 수출증가율은 -46.9%를 기록

수출 및 엔/달러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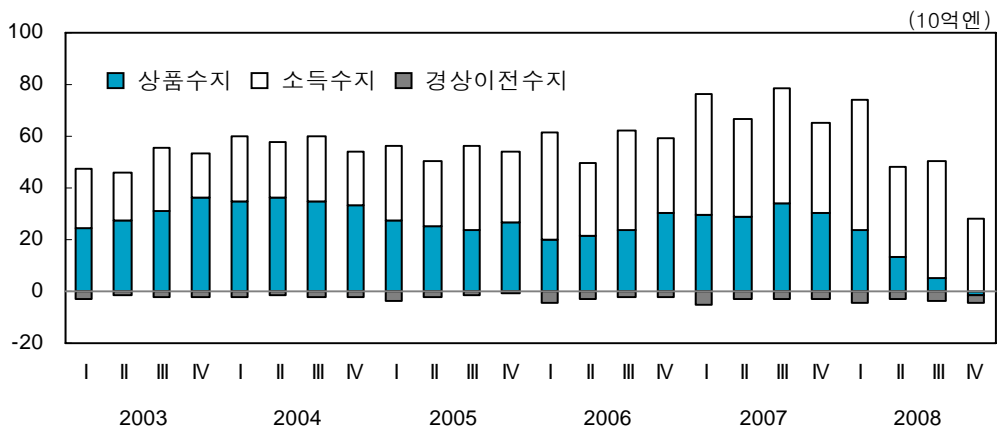
일본의 국가별 수출입



● 상품수지는 적자로 전환되었고, 소득수지도 악화되면서 경상수지 흑자폭은 크게 축소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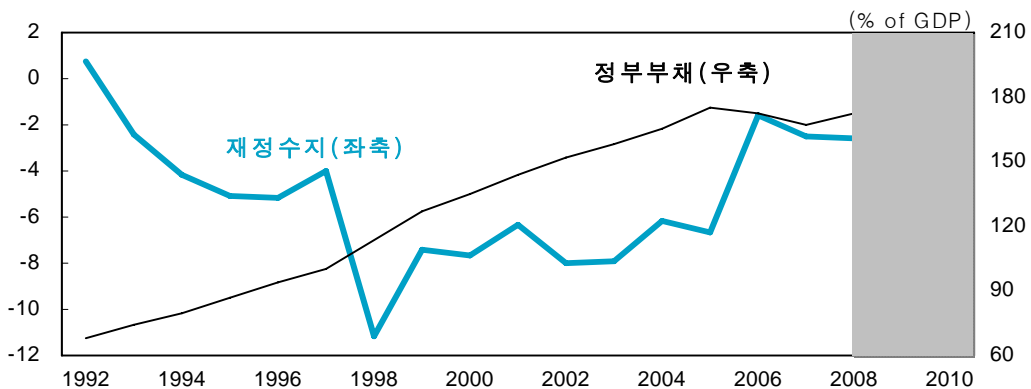
— 소득수지는 세계경기 침체로 일본기업의 해외 자회사 수익성이 악화되고 엔화강세 등으로 증권투자수익이 줄어들면서 흑자규모가 축소

일본의 경상수지



- 일본정부는 실물경기 침체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금리를 인하하고, 감세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1%까지 인하하였고, 위험자산인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장기국채 매입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등의 이례적인 조치를 단행
 - 또한, 작년 9월 이후 세 차례의 경기부양책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경기침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
 - 재정지출규모는 27.4조엔('08년 GDP의 3%)에 해당하며 감세, 기업자금 지원, 가계 소비 활성화를 통한 경기부양을 목적으로 함.
 - 그러나, 감세로 인한 세수 감소 및 국채발행에 따른 정부채무 증가로 향후 재정 건전화에 대한 압력이 높아질 전망

일본의 재정수지 및 정부부채



주: 2009~2010은 전망치.

자료: OECD Interim Economic Outlook, March 2009.

- 주요 전망기관들은 일본경제가 수출 급락 및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2009년 -5% 대의 비교적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경기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외의존적인 일본경제는 조기에 회복세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 IMF는 4월 경제전망에서, 2009년에는 -6.2% 성장할 것으로 전망

주요투자은행별 일본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09				2009	2010
	1/4	2/4	3/4	4/4		
Bank of America	-0.6	-0.7	0.0	0.8	-1.9	1.2
Barclays Capital	-9.8	-2.5	-0.1	1.9	-5.9	1.1
Credit Suisse	-8.0	1.5	0.0	0.5	-4.7	1.2
Citigroup	-12.0	-2.9	-1.7	0.8	-6.7	0.4
Deutsche Bank	-10.4	-6.7	-4.9	-3.1	-7.6	-1.9
JP Morgan	-12.0	-2.5	-1.0	2.0	-6.5	2.2
성장률 평균	-8.8	-2.3	-1.3	0.5	-5.6	0.7

주: 1) 2009년 2월말 전망 기준.

2)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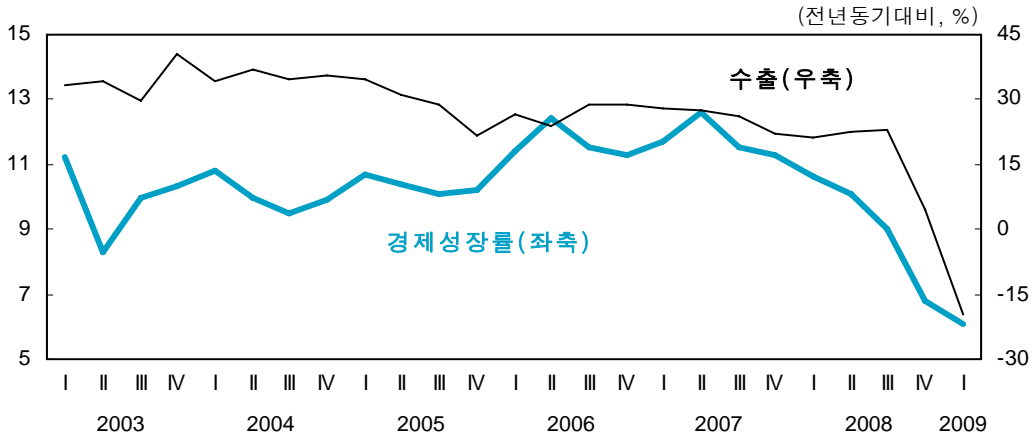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라. 중국경제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성장률이 둔화된 가운데 대규모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경기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중국의 2008년 연간 성장률은 9.0%로 7년래 최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경기둔화세가 지속되는 모습
- 2009년 1/4분기 수출증가율이 감소로 전환되는 등 대외부문이 빠르게 위축됨에 따라 성장률은 6.1%까지 하락
 - 1/4분기 총수출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19.7%로 대폭 감소하였고, 총수입은 -30.8%로 급락하는 등 대외부문의 성장견인력이 약화되는 모습

중국의 경제성장률 및 수출 증가율



- 수출 감소의 영향으로 공업생산 증가율이 대폭 축소된 가운데 소매판매 증가율도 크게 둔화
 - 2009년 1/4분기 공업생산 증가율은 5.1%까지 하락하였고 소매판매 증가율은 15.0%로 전분기(20.5%)에 비해 부진한 모습
- 반면, 정부의 인프라 투자관련 경기부양책 등으로 1/4분기 고정자산투자 증가율은 28.6%를 기록하며 높은 증가세를 유지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년동기대비, %)

	2006	2007		2008					2009
	연간	연간	4/4	연간	1/4	2/4	3/4	4/4	1/4
GDP성장률	11.6	13.0	11.3	9.0	10.3	10.1	9.0	6.8	6.1
공업생산	16.6	18.5	17.5	12.9	16.4	15.9	13.0	6.5	5.1
소매판매	13.7	16.8	19.0	21.6	20.6	22.2	23.2	20.5	15.0
고정투자 ¹⁾	24.5	25.8	25.8	26.1	25.9	26.8	27.6	26.1	28.6
수출 ²⁾	27.2	25.7	22.2	17.4	21.4	22.4	23.0	4.5	-19.7
수입 ²⁾	20.0	20.8	25.4	18.4	28.6	32.4	26.0	-9.0	-30.8

주: 1) 누계액 기준, 2) US\$ 기준.

자료: 중국 국가통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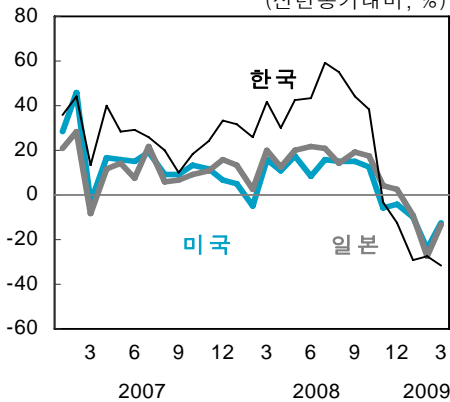
■ 선진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로의 수출이 급락하고 산업생산은 급격히 둔화되는 등 주요 경제지표가 부진하면서 경기둔화가 지속되는 모습

● 세계 금융위기의 영향이 아시아 국가로 파급되면서 작년 하반기 이후 수출 및 수입이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

- 중국의 최대수출국인 미국을 중심으로,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로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2009년 2월 수출증가율은 25.7%까지 감소
- 또한, 전체수입의 80%(금액기준)를 차지하는 기계 및 전자제품, 하이테크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은 크게 하락
- 수입의 감소폭이 수출에 비해 크게 나타남에 따라 작년 11월 무역수지 흑자는 400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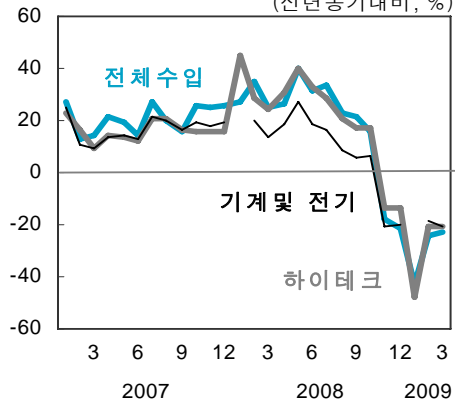
중국의 국가별 수출

(전년동기대비, %)



중국의 상품별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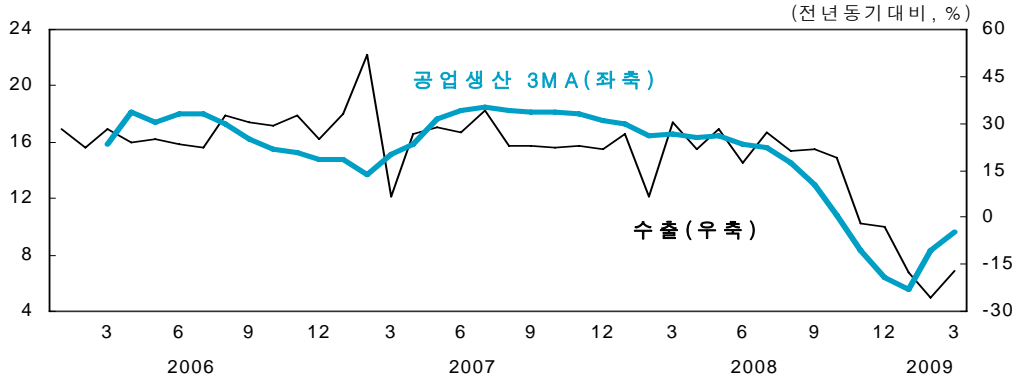
(전년동기대비, %)



- 또한, 수출 급락 등으로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공업생산 증가율은 둔화되는 모습

– 작년 12월 공업생산 증가율은 전년동기대비 5.7%까지 하락함에 따라 '08년 공업생산 증가율은 12.9%로 전년(18.5%)수준을 크게 하회

중국의 공업생산(3개월 이동평균) 및 수출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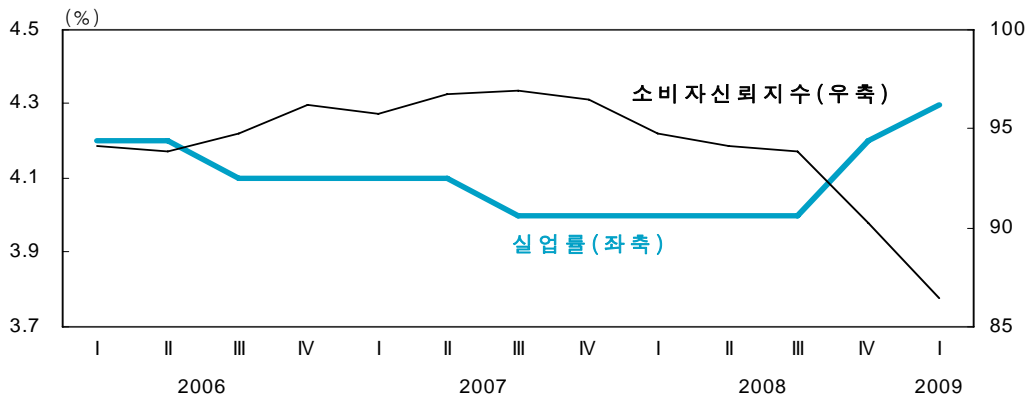


- 수출 부진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실업률이 증가하는 등 고용사정은 악화되었고, 가계소득은 위축되어 소비도 둔화되는 모습

- 수출기업의 도산이 증가하면서 실업률은 상승하는 등 작년 하반기 이후 고용사정은 악화되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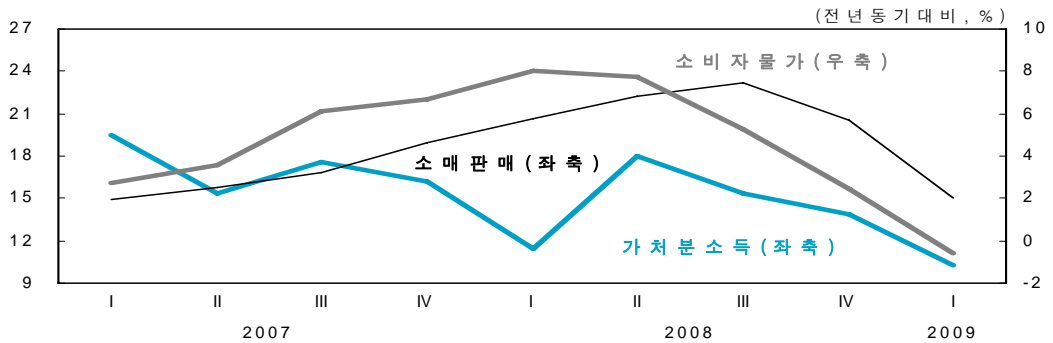
– 2009년 1/4분기 도시지역의 공식 실업률이 4.3%까지 상승한 가운데 향후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의 증대로 소비자신뢰지수는 4분기 연속 하락

중국의 실업률 및 소비자신뢰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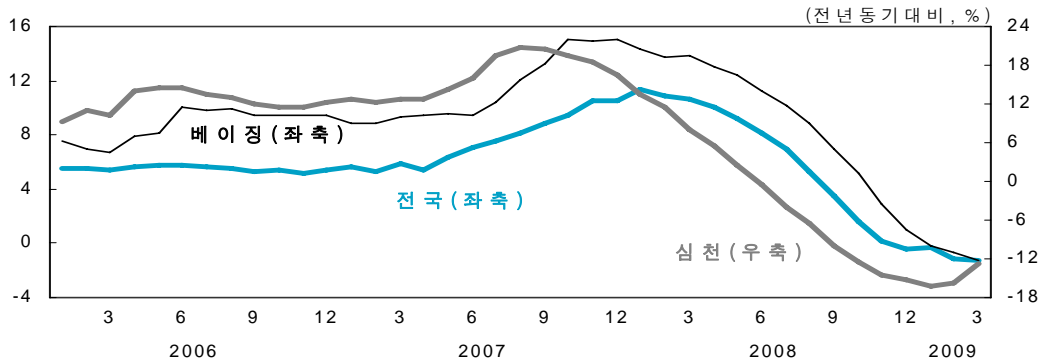
- 소비자물가는 내림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고용사정의 악화 등으로 가계소득의 증가율이 둔화되면서 소매판매는 부진한 모습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료품부문의 오름세 둔화에 기인하여 작년 6월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 도시가처분소득 증가율이 축소되면서 1/4분기 소매판매 증가율은 15.0% 증가하는 등 전기(20.5%)에 비해 크게 둔화

중국의 가처분소득, 소매판매 및 소비자물가



- 한편, 주택가격 하락 지역이 빠르게 확산되어 70대 도시 주택가격상승률은 '07년 말 이후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는 모습
 - 베이징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도시들도 상승폭이 크게 축소됨에 따라 전국 주택 가격상승률은 지난 1월 마이너스 증가율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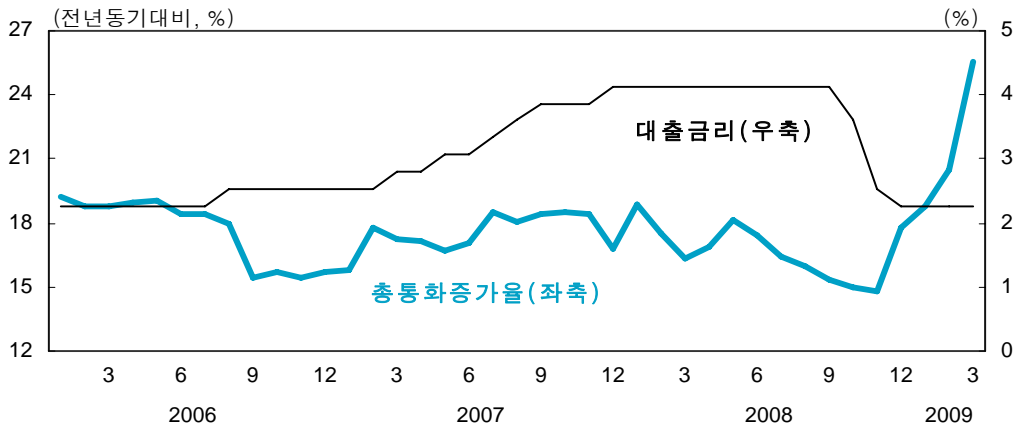
중국의 주택가격 상승률



■ 경기둔화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정부는 4조위안(약 6,000억달러)에 달하는 재정 투자계획 및 금융경색완화 등을 포함한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인프라투자 및 소비를 활성화 시키는 등 내수 진작에 맞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상대적으로 대외의존비중이 낮으므로 국내소비 부양을 위해 감세 및 보조금 지급을 실시하고, 총 4조 위안 중 인프라분야에 45% 투자하는 등의 계획을 발표
- 또한, 물가오름세가 진정됨에 따라 금리 및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는 등 금융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완화로 전환
 - 정부의 대출확대 정책 등에 따라 11월 이후 총통화 증가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

중국의 통화증가율 및 금리



-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효과로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가 상승하는 등 일부 경제지표는 개선되는 모습
 - 2009년 1월 이후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기준=50)는 꾸준히 상승하여 3월 52.4를 기록
- 그러나, 경기대책이 주로 투자분야에 집중되어 투자의 비효율화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부지출 확대 및 감세 등으로 재정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 중앙정부의 세출이 지난해 대비 20.1% 증가하지만, 감세 등으로 세입 증가율은 4.8%에 그칠 것으로 보임.

중국의 재정규모와 재정수지

(억위안)

	2005	2006	2007	2008	2009
재정수입(A)	17,250	21,232	28,589	34,712	36,365
재정지출(B)	20,249	23,982	30,589	36,512	43,865
재정수지(A-B)	-3,000	-2,750	-2,000	-1,800	-7,500

주: 2005년~2008년은 결산, 2009년은 예산.
자료: 중국 재정부.

■ 주요 전망기관들은 수출 및 생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중국경제의 경기 둔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정부는 고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내수를 촉진시키는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단행하였고, 대외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선진국의 경기둔화 여파는 완충될 것으로 보임.
- 다만,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부진은 생산 및 소비의 위축으로 연결되어 2009년 성장률은 다소 둔화될 전망
 - IMF의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09년에는 6.5%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요투자은행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

(%)

	2009				2009	2010
	1/4	2/4	3/4	4/4		
Bank of America	(7.5)	(7.8)	(8.2)	(8.3)	8.0	9.1
Credit Suisse	5.7	9.5	10.0	10.4	6.7	8.5
Citigroup	-	-	-	-	7.6	8.3
Goldman Sachs	-	-	-	-	6.0	9.0
JP Morgan	5.1	10.0	11.7	12.6	7.2	8.5
Morgan Stanley	-	-	-	-	5.5	8.0
성장률 평균	7.5	7.8	8.2	8.3	6.8	8.6

주: 1) 2009년 2월말 전망 기준.
2) 분기별 전망은 전기대비 연율임.
3) ()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임, 분기별 평균치는 전년동기대비 기준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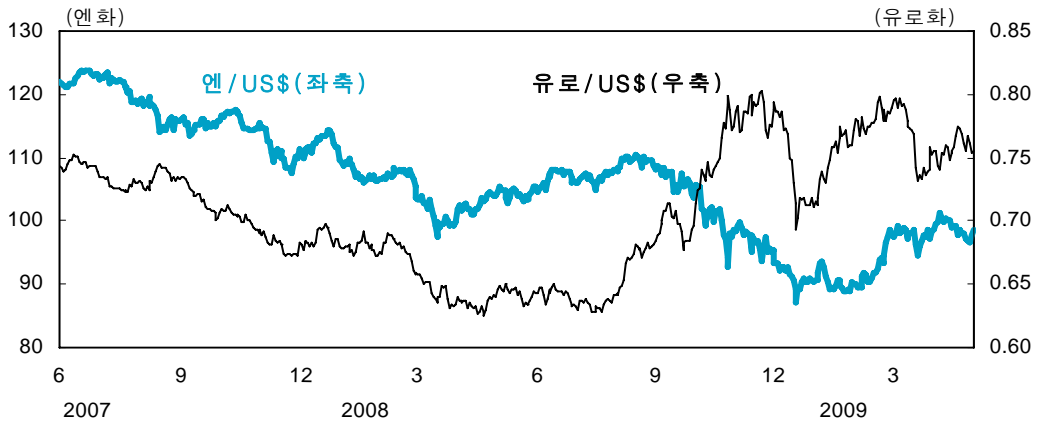
자료: 국제금융센터.

3. 換率 및 金利

달러화는 주요통화 대비 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주요 선진국의 장기금리는 국채공급물량 확대 전망으로 상승

- 달러화는 금융시장의 불안 등으로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면서 강세기조를 지속하였으나, 지난 3월 미 FRB의 양적완화 계획 발표 이후 강세기조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
 - 엔/달러 환율은 일본의 경제침체 심화 우려로 상승세
 - 유로/달러 환율 역시 ECB의 정책금리 인하 및 유로지역의 경제지표 악화 등으로 상승세

엔/달러 및 유로/달러 환율



자료: 국제금융센터.

-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은 향후 달러화 가치가 엔화 및 유로화에 대해서 소폭의 약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엔/달러 환율의 경우 전망시점(4월)부터 3개월 후 97.6엔으로 하락한 이후, 1년 후에는 100.7엔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유로/달러 환율의 경우 전망시점(4월)부터 3개월 후 0.740유로, 6개월 후 0.733유로, 1년 후에는 0.727유로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주요 투자은행의 환율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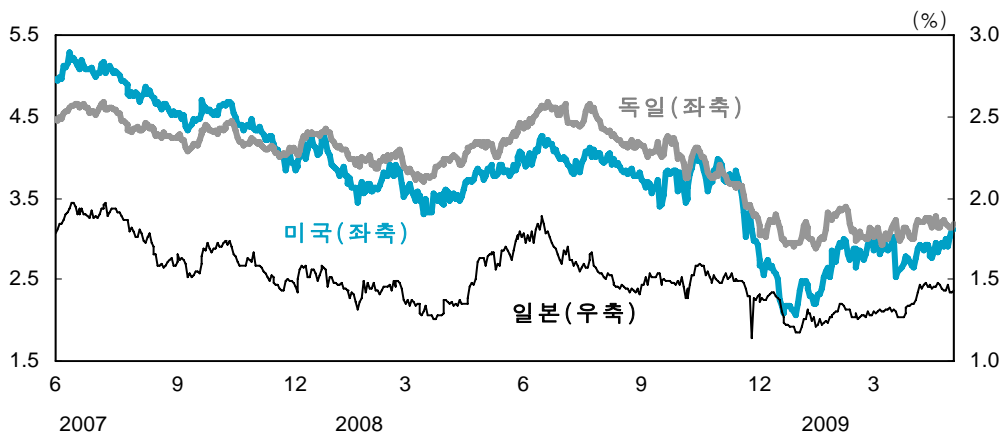
	엔/달러			유로/달러		
	3개월	6개월	1년	3개월	6개월	1년
Barclays Capital (4.23)	98.0	95.0	95.0	0.741	0.714	0.690
JP Morgan (4.24)	92.0	98.0	107.0	0.769	0.758	0.741
Goldman Sachs (4.9)	105.0	100.0	100.0	0.714	0.690	0.690
Morgan Stanley (4.23)	93.0	85.0	85.0	0.741	0.741	0.690
Merrill Lynch (4.24)	100.0	108.0	115.0	0.781	0.806	0.833
Deutsche Bank (4.22)	100.0	103.0	103.8	0.769	0.800	0.840
HSBC (4.8)	100.0	100.0	105.0	0.714	0.690	0.667
Standard Chartered(4.23)	93.0	92.0	95.0	0.690	0.667	0.667
평 균	97.6	97.6	100.7	0.740	0.733	0.727

자료: 국제금융센터.

- 금년 초 동유럽 금융위기로 인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각국의 금융안정화 정책 등의 영향으로 3월 이후 안정되는 모습

- 주요국의 장기국채금리(10년물)는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완화되고, 각국의 금융구제안 및 경기부양책에 따른 국채 공급물량 확대 전망 등으로 인해 다소 반등

주요국 국채 수익률



-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은 동유럽발 금융위기의 확산으로 2월말 다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후 4월말 현재 큰 폭 하락한 모습이며, 외평채 가산금리 또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주요 개도국의 CDS 및 외평채 가산금리

(bp)

	CDS 프리미엄(5yr)			외평채 가산금리		
	2008년말	2월말	4월말	2008년말	2월말	4월말
한국	316	437	249	408	345	297
중국	193	246	127	310	226	222
인도네시아	639	647	409	944	803	570
말레이시아	220	298	170	353	270	225
필리핀	383	447	294	584	444	365
러시아	741	761	360	-	-	-

자료: 국제금융센터.

주요 국제금융기관들은 주요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

- 주요국의 장기금리는 금융시장 불안 완화에 따라 차츰 상승할 것으로 전망

주요 국제금융기관의 2009년 주요국 장기 금리 전망

(%)

	미국 국채(10년물)			유로화 채권(10년물)			일본 국채(10년물)		
	'09 2/4	'09 3/4	'09 4/4	'09 2/4	'09 3/4	'09 4/4	'09 2/4	'09 3/4	'09 4/4
Bank of America	2.75	2.75	2.40	2.75	2.75	3.35	1.05	1.05	1.50
Credit Suisse	2.50	2.50	2.75	2.75	2.75	2.75	1.00	1.05	1.25
Goldman Sachs	2.70	2.80	2.90	2.70	2.90	2.90	1.10	1.20	1.20
Morgan Stanley	2.75	2.75	3.50	2.75	3.00	3.20	1.40	1.40	1.20
Merrill Lynch	2.75	2.75	2.40	2.75	2.75	3.35	1.05	1.05	1.50
평 균	2.69	2.71	2.79	2.74	2.83	3.11	1.12	1.15	1.33

자료: 국제금융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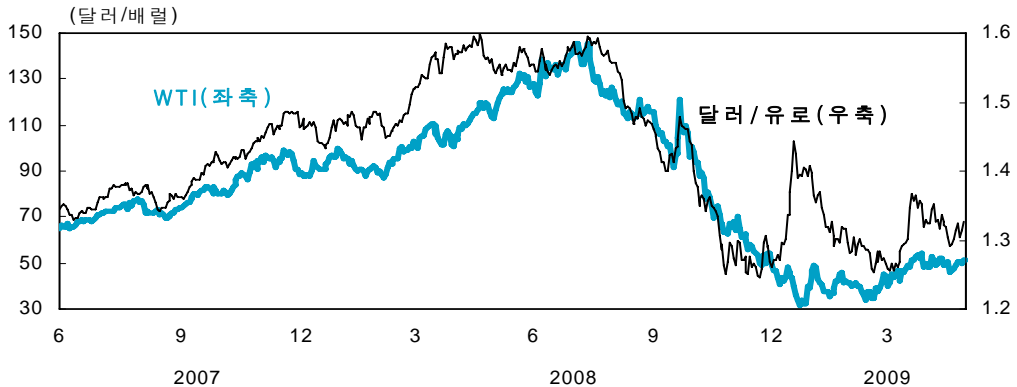
4. 原資材와 半導體 價格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제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로 하락세를 지속하였으나 금년 들어 완만히 회복하는 모습

■ 국제유가(두바이 기준)는 경기침체로 인한 수요 둔화로 약세를 지속하다 최근 들어 상승하는 모습

- 최근 국제유가는 세계 경기침체의 완화 가능성 및 OPEC의 감산 지속 등으로 인해 상승
 - 두바이유 가격은 4월말 현재 49.86달러로 작년말 대비 35% 상승함.
- 한편 최근 들어 국제유가와 환율(달러/유로)간의 연관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모습

국제유가와 환율



유가

(달러/배럴, 평균기준)

	2007	2008					2009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두바이	85.7	113.0	96.3	67.7	49.9	40.5	44.1	43.1	45.6	50.0
브렌트	91.0	113.5	98.2	72.0	52.7	40.4	43.6	43.2	46.5	50.4
서부텍사스	91.3	116.6	103.7	76.6	57.3	41.7	41.8	39.2	48.0	49.8

자료: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망.

■ 주요 석유분석 기관들의 전망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2009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최근 일부 경기지표의 개선 및 달러화 가치 하락 등의 요인이 유가의 상승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봄.

주요 기관 유가 전망

(단위: 달러/배럴)

기관 (전망시기)	기준 유종	2007년 평균	2008년 평균	2009년					비고
				1/4	2/4	3/4	4/4	평균	
CGES (4월)	Brent	72.9	97.6	44.5	52.1	55.2	59.4	53.1 (63.1)	기준유가
		72.9	97.6	44.5	53.4	60.8	74.0	58.4 (82.7)	고유가
		72.9	97.6	44.5	49.0	47.2	44.9	46.4 (47.5)	저유가
CERA (4월)	Dubai	68.5	93.6	44.9	53.5	52.5	53.5	51.1 (86.0)	기준유가
	Brent	72.5	97.1	45.7	55.5	54.5	55.5	52.8 (90.0)	
	WTI	72.2	99.7	43.3	56.0	55.0	56.0	52.6 (91.0)	
	Dubai	68.5	93.6	44.9	61.0	74.0	79.0	64.7 (103.0)	고유가 (공급 부족)
	Brent	72.5	97.1	45.7	64.0	78.0	83.0	67.7 (107.0)	
	WTI	72.2	99.7	43.3	65.0	79.0	84.0	67.8 (108.0)	
	Dubai	68.5	93.6	44.9	46.7	47.0	51.0	47.4 (73.0)	저유가 (수요감소)
	Brent	72.5	97.1	45.7	47.8	48.0	52.0	48.4 (77.0)	
WTI	72.2	99.7	43.3	46.5	47.0	51.0	47.0 (78.0)		
EIA (4월)	WTI	72.3	99.6	42.9	52.7	56.0	59.0	52.6 (112.0)	기준유가
PIRA (4월)	Brent	72.5	97.0	44.4	51.6	57.3	61.6	53.7 (74.5)	기준유가
	WTI	72.3	99.6	43.0	52.0	58.0	62.7	53.9 (75.8)	

주: 1) CGES: 런던 소재 세계에너지센터(Center for Global Energy Studies).
 CERA: 美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Cambridge Energy Research Associates).
 EIA: 美 에너지정보청(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PIRA: 석유산업연구소(Petroleum Industry Research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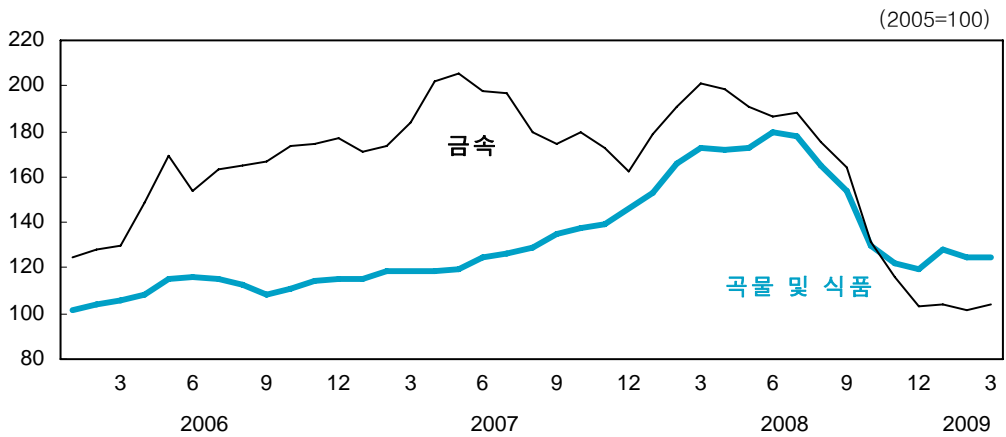
2) 2009년 ()안의 수치는 2008년 10월 전망시점의 유가전망치임.

자료: 석유정보망.

■ 원자재가격은 금융불안 완화 등으로 인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로이터상품지수는 4월 24일 현재 2,028을 기록하여 작년 말 대비 16% 상승
- 주요 곡물가격의 경우 주요 생산지역에서의 기후여건 악화 및 공급차질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점진적인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초금속 가격은 경기회복 추이에 따라 변동할 것으로 예상

식품 및 금속가격 지수



자료: IMF.

로이터 및 CRB지수

(지수, 평균기준)

	2007	2008					2009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로이터지수 ¹⁾	2,593	2,676	2,387	2,012	1,916	1,747	1,913	184.5	1,898	2,028
CRB지수	349.4	394.2	361.3	288.9	249.1	221.2	224.7	212.2	215.5	222.5

주: 1) 로이터지수는 기간말 기준(4월 24일 기준).

자료: 국제금융센터,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 반도체(1Gb DDR2 기준) 현물가격은 주요 업체들의 감산 및 수요증대로 인한 공급과잉 해소 기대로 상승
- SD램(1Gb DDR2, 아시아 현물시장 기준) 가격은 현재(4월 24일 기준) 개당 1.21 달러로 3월말 대비 21% 상승
- 낸드 플래시 메모리(16Gb MLC)가격 역시 3월에 비해 19% 상승

반도체 현물가격

(달러/개, 기말기준)

	2007	2008					2009			
	12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24일 현재
1Gb DDR2 SD램	1.90	1.66	1.26	0.98	0.65	0.73	0.85	0.85	1.00	1.21
16Gb NAND Flash ¹⁾	5.83	-	-	-	-	2.20	2.59	3.58	3.94	4.67

주: MLC 기준.

자료: 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第2部

經濟展望 및 政策方向

I

現 經濟狀況에 대한 認識

■ 최근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위기 이후의 경기 급락세가 부분적으로 진정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침체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 내수와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세계경제의 침체로 인해 수출도 저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간에 본격적인 회복세가 나타나기는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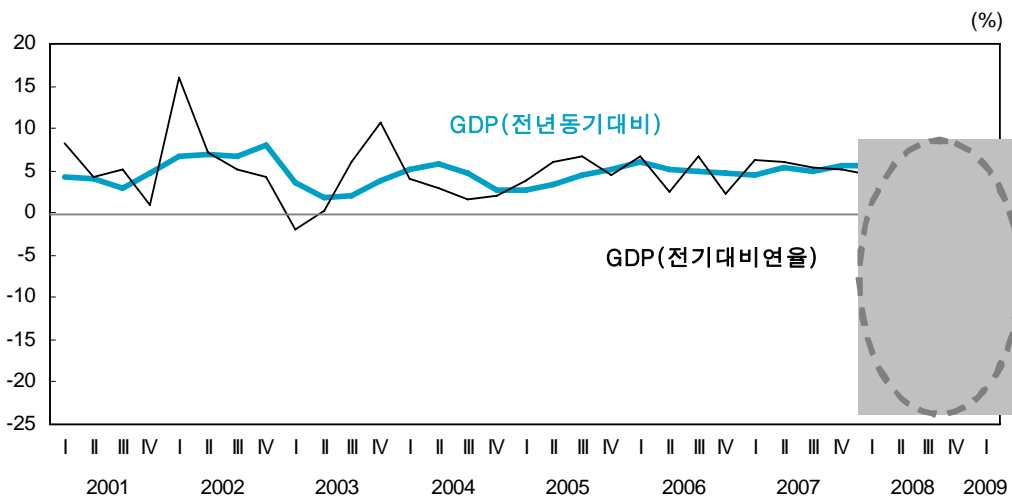
■ 국제금융위기로 인해 성장률이 급락했던 우리 경제는, 금년 들어 급락세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작년 1/4분기 이후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국면에 있었던 우리 경제는 국제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작년 4/4분기에 전년동기대비 -3.4%(전분기대비 연율 -18.8%)의 충격적인 성장률 급락을 경험

● 금년 1/4분기의 전년동기대비 성장률(-4.3%)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전분기대비 연율로는 0.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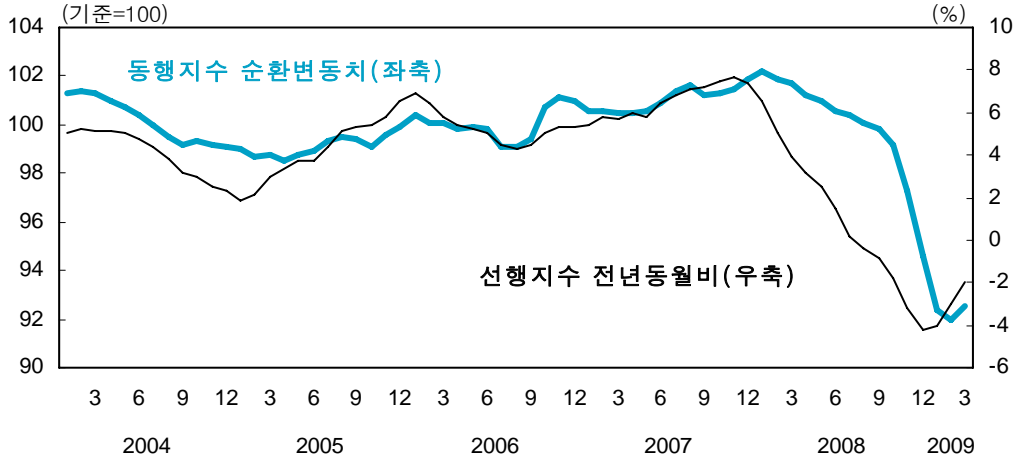
— 광공업생산지수도 전월대비 증가율이 금년 들어 3월까지 플러스를 유지하는 등 생산의 감소세가 완화

GDP 성장률: 전년동기대비 및 전분기 대비 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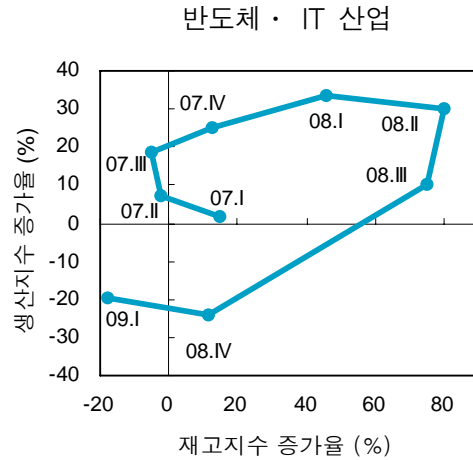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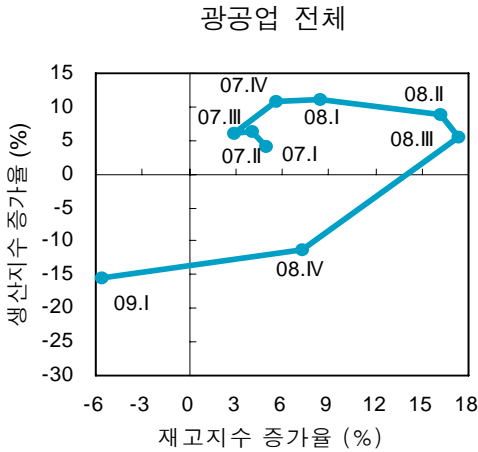


- 경기동행지수의 급락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도 금년 들어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광공업 분야의 재고 조정이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점도 생산이 개선되는 추세가 단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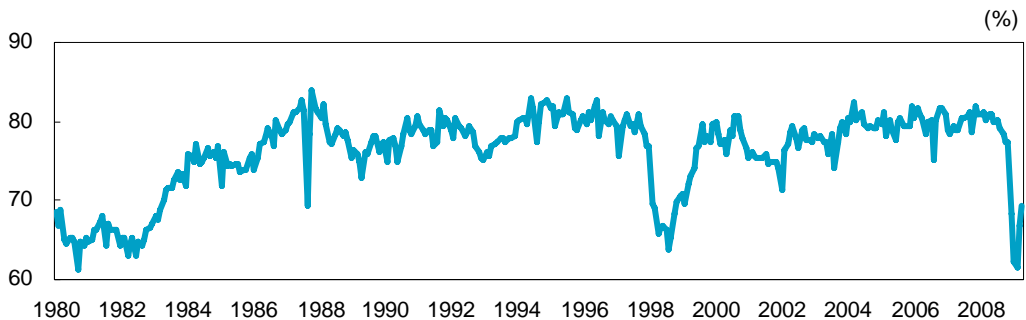
생산·재고 순환



■ 이와 같은 경기 급락세 완화는,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 개선 및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정책에 따라 **내수의 급격한 위축이 부분적으로 완충됨과 동시에 수출 수요도 소폭 개선되었던** 데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 따른 외환수급 여건 개선 및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금융시장에서의 신용경색이 부분적으로 완화되었고, 이에 따라 주가 및 환율이 점진적으로 정상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민간소비의 급락세도 진정
 - 국제금융시장이 점차 진정되는 가운데, 경상수지가 2분기 연속으로 큰 폭의 흑자('08년 4/4분기: 75.2억달러 → '09년 1/4분기: 85.8억달러)를 기록
 - 1/4분기중 민간소비는 전년동기대비 증가율(-4.4%)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나, 전분기대비로는 0.4% 상승
- 확장적인 경기 안정화 정책으로 정부 지출도 빠르게 확대되면서 공공부문의 SOC 투자를 중심으로 건설투자가 빠르게 증가
 - 1/4분기중 정부소비가 전분기대비로 3.6%(전년동기대비 7.2%) 증가했으며, 건설투자의 경우에도 5.3%(전년동기대비 1.7%) 증가
- 이와 더불어, 2월 이후 수출 급감세가 진정되는 가운데, 재고조정도 빠르게 진행되면서 제조업 가동률이 급락세에서 벗어난 것도 경기 급락세 완화에 기여
 - 1월중 -34.2% 급감하였던 수출은 2월 이후 중국의 수입 급락세 완화 등에 기인하여 증가율이 -20% 내외로 소폭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냄.
 - 이에 따라 수출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광공업부문의 재고가 급속히 감소했는데, 이는 198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던 제조업 가동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제조업 평균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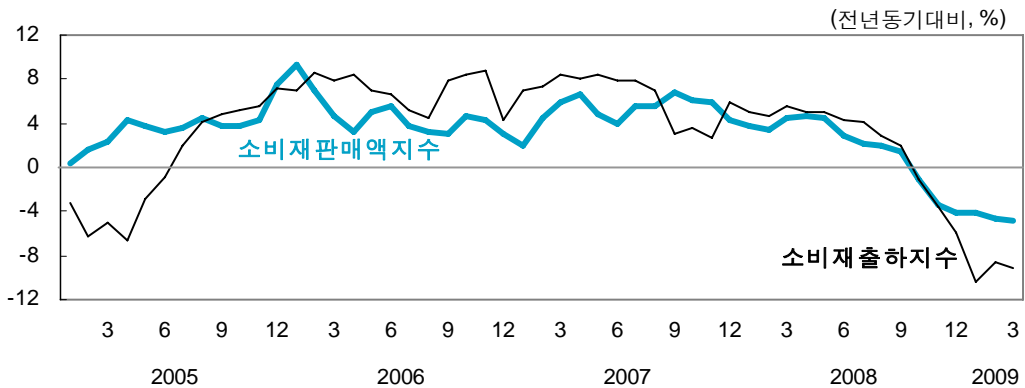


■ 그러나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이 상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국면을 벗어나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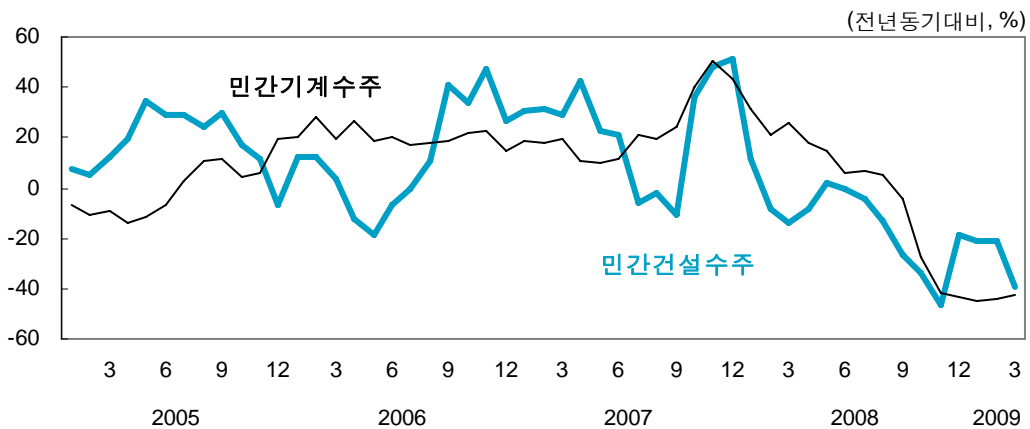
● 내수관련 지표들은 민간의 소비·투자가 2003년의 신용카드 버블 붕괴 시기보다 더 큰 폭으로 위축된 상황임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들의 선행지표들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지속하고 있음.

－ 건설투자의 경우, 공공부문의 투자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문의 건설수주는 여전히 위축된 상태

소비재판매액지수 및 소비재출하지수 추이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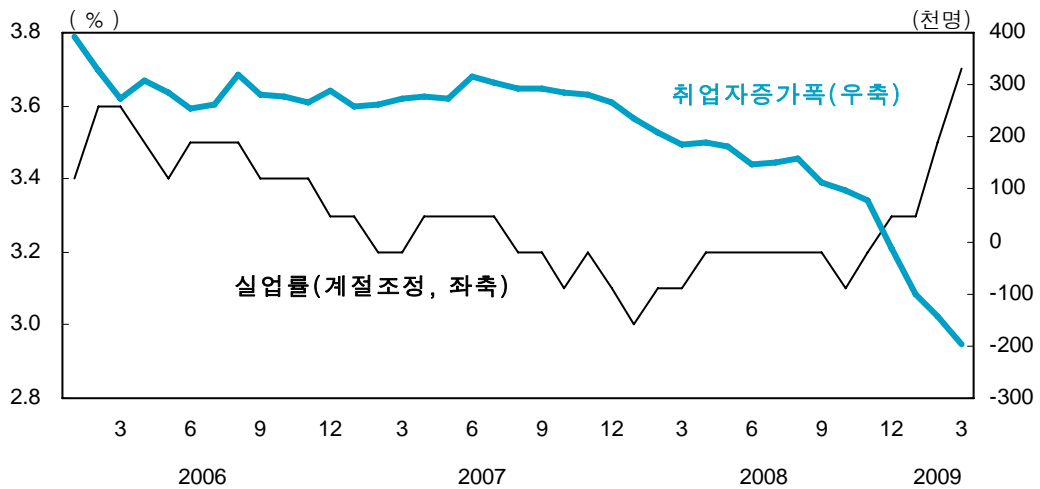


민간부문의 국내기계수주 및 건설수주 (3개월 이동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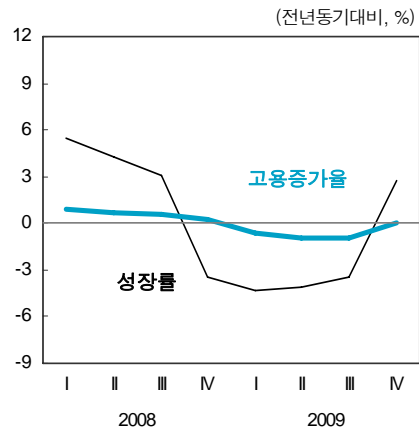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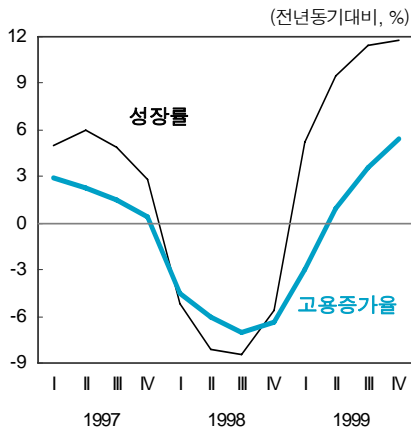
- 경기에 후행하는 고용 상황도 실업률이 상승하고 취업자 수 감소폭이 확대되는 등 당분간 부진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실업률 및 취업자 증가폭



외환위기 당시와의 고용증가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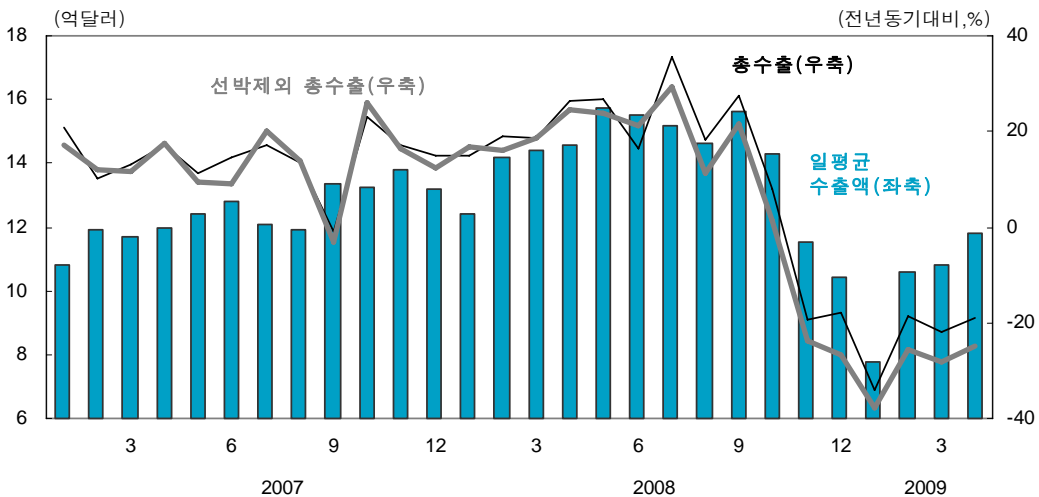
- 최근의 고용 상황은 외환위기 당시보다 심각하지는 않지만, 향후 성장률이 완만하게 개선되더라도 취업자 수 감소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대외거래 부문에서도, 무역수지가 2월 이후 흑자를 확대하고 있으나 수출은 선박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위축된 모습을 유지

- 수출이 급락하면서 지난 1월에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무역수지는 2월 이후 수입이 더욱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흑자로 반전
 - 최근 수입의 감소세가 급격히 확대되는 데에는 국내 경기침체로 인한 수입수요 감소와 더불어 원유 등 국제원자재 가격이 급락한 데에도 상당 부분 기인
- 수출은 2월에 소폭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계약기간이 장기인 선박 수출을 제외할 경우 감소율이 더욱 크게 나타나는 등 세계경기 침체로 인해 수출수요가 위축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총수출 및 일평균 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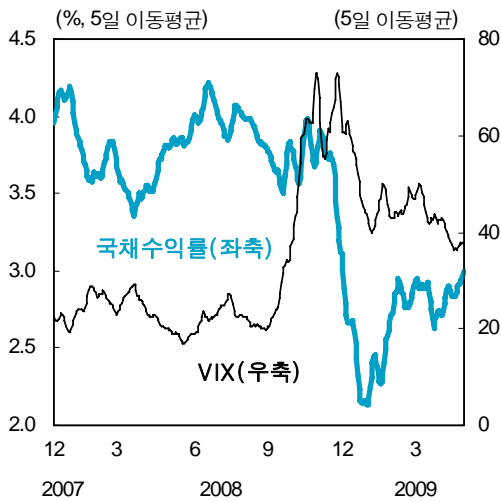


- 각국 정부의 공조된 과감한 부양정책에 따라 금년 하반기에 수출수요의 위축이 부분적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있으나,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전반적인 수출 부진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
 -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이 상대적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재 및 내구소비재 비중이 높은 수출구조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세계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우리 수출의 회복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 (현안분석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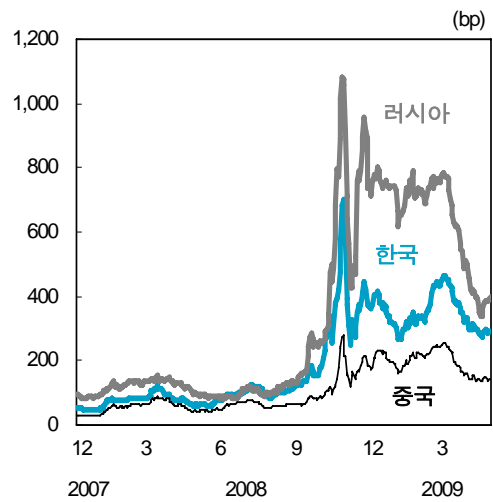
■ 국제금융시장에서도 금융상품에 대한 리스크 프리미엄이 감소하는 등 불안이 완화되고 있으나, **금융시장 정상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

- 미국 정부가 신용경색 완화를 위해 장기국채와 금융권 부실자산 매입을 결정하는 등 각국의 안정화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국제금융시장 불안은 다소 완화

미국의 국채수익률 및 VIX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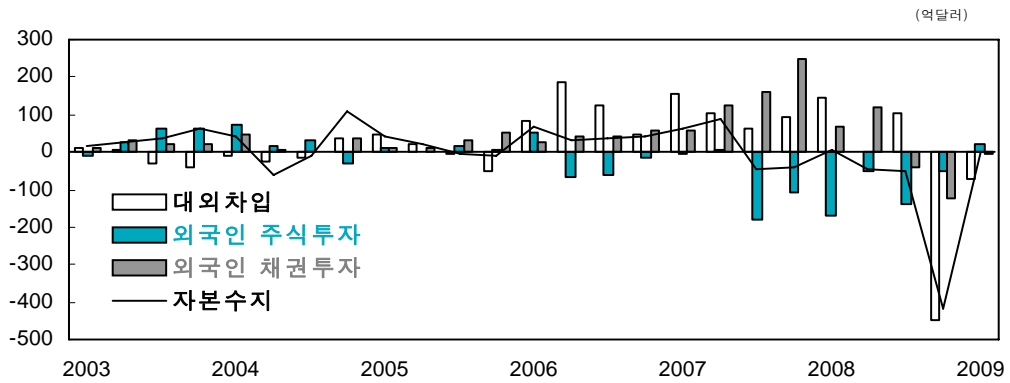
주요 개도국의 CDS 프리미엄



주: VIX(Volatility Index)지수는 S&P500지수 옵션의 향후 30일간 변동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나타내는 지수.

- 이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외국자본의 유출압력이 작년 4/4분기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모습이며, 금리와 환율 등 가격변수들의 변동성도 낮아지고 있음.
 - 작년 4/4분기 중 418억달러의 순유출을 기록했던 자본수지가 금년 1/4분기 중에는 균형에 접근하여, 선진국 금융기관들의 부채축소(de-leveraging) 과정에서 발생했던 급격한 자금회수 압력이 크게 완화되었음을 시사
 - 정책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의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면서 대부분의 시장금리는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국 통화에 대한 원화가치도 회복되는 모습

자본수지



- 그러나 동유럽 국가들의 외채 지급불능 가능성으로 인한 유럽계 은행들의 부실 확대 우려와 더불어, 주요 선진국의 주택경기 침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제금융시장의 근본적인 안정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
 -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주요국 금융기관의 손실이 더욱 확대되면서 금융시장 불안요인으로 부각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 이와 더불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선진국의 대규모 국채발행으로 신흥시장국 및 개도국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경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특히 미국의 경우, 금년도 국채발행 순증액이 GDP의 7.5%에 이를 것으로 계획되어 있음.

주요국의 국채발행 순증액

(단위: 십억달러)

	2006	2007	2008	2009
미국	201	101	338	1,063
유로	138	77	163	257
영국	70	66	159	170
일본	196	19	26	64

주: 2008년과 2009년은 예상치임.
 자료: Barclays Capital(2008년 12월).

- 이러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은 세계경제의 회복을 상당 기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에서 촉발된 국제금융위기는 전 세계적인 실물경기 침체로 확산되었으며, 이는 아시아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성장률을 급락시킨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
 - 미국 등 선진국들의 실물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국제교역도 위축된 모습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는 수출주도형 국가들의 성장률 전망에 상당한 부정적 요인이 되고 있음.
 - 부동산 경기의 침체국면 장기화 및 고용상황 악화 등으로 선진국들의 실물경기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IMF 등 전망기관들은 선진국들의 금년도 성장률을 -4% 내외로 전망하고 있음.
 - 특히 IMF는 일본의 금년도 성장률을 -6.2%로 전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국들의 성장률도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최근 우리 경제의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하방위험(downside risk)이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IMF의 세계경제 전망

(단위: %)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망	
									2009	2010
세계	2.2	2.8	3.6	4.9	4.4	5.1	5.2	3.2	-1.3	1.9
선진국	1.2	1.6	1.9	3.2	2.6	3.0	2.7	0.8	-3.8	0.0
미국	0.8	1.6	2.5	3.6	3.1	2.9	2.0	1.1	-2.8	0.0
개발도상국	3.8	4.7	6.2	7.5	7.1	7.9	8.3	6.1	1.6	4.0
중국	8.3	9.1	10.0	10.1	10.4	11.6	13.0	9.0	6.5	7.5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09.

■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당분간은 현재 수준의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최근 우리 경제가 작년 4/4분기의 급락세에서 점차 진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큰 충격이 도래하지 않는 한, 현재의 금리수준과 이미 계획되어 있는 추경만으로도 경기를 안정시키는 데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러나 세계경제 여건이 여전히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거시경제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신속적인 정책대응이 추가적으로 가능하도록 여지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경기가 단기간에 본격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거시경제정책의 전반적인 기조를 변경할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됨.

● 외화유동성과 관련해서도, 선진국·주변국과의 통화스왑을 당분간 유지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감안하여 당분간 외화유동성 경색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지속할 필요

■ 이와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장기적 안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실이 극심한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이를 통한 민간부문의 부채구조조정 노력도 지속될 필요

● 극심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은 많은 차입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주로 최근 2~3년간에 집중된 중소기업 대출 급증을 반영 (Box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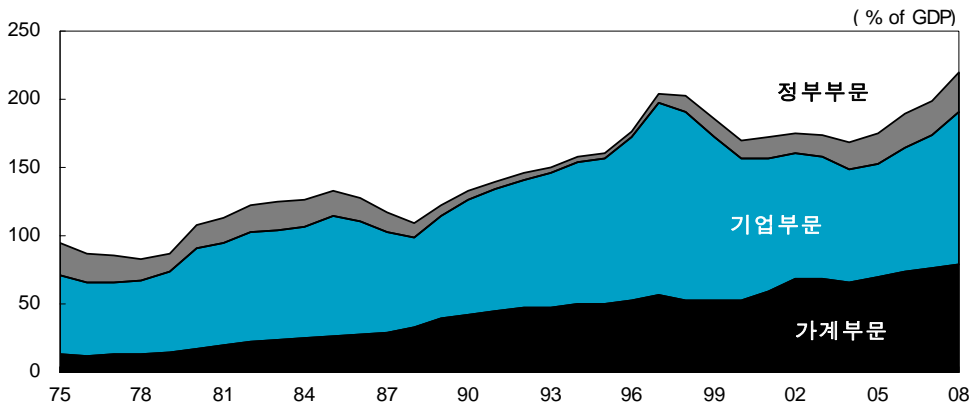
● 따라서 국제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기 위해 추진되었던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으로 인해 지체되었던 부채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중소기업금융의 은행의존 성향이 높은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대출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은행의 시장성 수신을 통한 자금조달 증가 등 재무구조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도 금융시장의 불안을 지속시킬 우려가 있음.

비금융부문의 GDP 대비 차입금 비율

- 우리나라 비금융부문의 GDP 대비 차입금 비율은, 2005년 이후 기업부문의 차입금 급증에 주로 기인하여 빠르게 상승
 - 가계부문의 차입금이 점진적인 증가세를 나타내는 가운데, 기업부문의 경우 외환위기 이후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2~3년간 중소기업 대출이 급증함에 따라 GDP 대비 차입금 비율이 11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상승
 - 우리나라 기업부문의 GDP 대비 차입금 비율은, 과도한 leverage로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낮지 않은 수준
 - *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2009)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기업부문의 GDP 대비 차입금 비율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110% 수준으로 나타나는 반면, 일본의 경우 100% 내외, 미국의 경우에는 80%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이 비금융부문의 차입금 비율이 크게 높아진 상황은, 앞으로 금융시장의 구조적인 안정을 위해서는 상당 수준의 부채 구조조정(de-leveraging)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

우리나라 비금융부문의 GDP 대비 부문별 차입금 비율



■ 한편,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의 규율이 이완되지 않도록, **구조개혁 정책은 단기적인 경기부침에 연연하지 않고, 일관된 방향에서 지속적으로 추진**

- 시장의 기본 질서를 확립하는 구조개혁 정책이 경기부침에 따라 자주 변경될 경우, 이는 시장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정책신뢰를 훼손하는 한편 시장규율을 이완시킬 우려
- 따라서 위기극복 과정에서 추진되는 대책들이 중장기적으로 경제시스템에 초래할 수 있는 부작용을 축소시키기 위해서는 경제시스템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제도적 장치 혹은 미시경제 정책들의 급격한 변경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
 - 예를 들어 부동산시장 규제와 관련된 정책의 경우, 단기적인 주택가격의 등락과 관계 없이 중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시장 정책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여 결정
- 향후 수개월 동안 경기 안정세(혹은 회복세)가 유지될 경우, 현재의 확장적인 정책기조를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시작할 필요
 - 확장적인 거시경제 정책을 적시에 정상화시키는 데에 실패함으로써 위기 이후에도 경기불안을 겪었던 과거 경험(외환위기 이후의 코스닥 시장 버블, 2001년 IT 버블 붕괴 이후의 신용카드 버블 등)을 반복하지 말아야 할 것임.
- 특히 재정정책의 경우에도, 위기 극복을 위한 일시적인 재정적자는 불가피하나, 향후 정부부채의 급증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도 보다 많은 노력을 경주할 필요
 - 적자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은, 민간의 부채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불안 및 경기급락 가능성을 완충한다는 차원에서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임.
 - 그러나 정부부채 급증에 따른 시장의 신뢰 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한시적임을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중기 재정운영방향 및 국가부채 관리목표를 설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됨.

II

2009~10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2. 2009年 國內經濟 展望
3. 2010年 國內經濟 展望

1. 對外 與件에 대한 主要前提

- **세계경제**: 2009년에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기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2010년에는 완만한 속도로 회복될 것으로 전제
 - 2009년에는 국제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미국·유럽 등 선진국 경제가 침체상태를 지속하고 개도국의 경제도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는 등 세계경제 성장률(IMF의 PPP환율 기준)이 -1% 내외의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제
 -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경기안정화 대책의 영향으로 세계경제는 금년 하반기부터 침체상태에서 완만히 회복되어 2010년에는 2% 내외의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제
- **유가**: 2009년 원유도입단가는 2008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연평균 배럴당 50달러 내외를 기록하며, 2010년에는 세계경제의 회복에 따라 70달러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가정
- **실질실효환율**: 실질실효환율로 평가한 원화가치는 최근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점차 상승하는 추이를 유지할 것으로 전제
 - 2009년 1/4분기 통화가치(실질실효환율 기준)는 2008년 연평균 수준에 비해 비교적 크게 하락한 상태이나,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이 정상화되면서 변동성 축소와 더불어 점진적으로 상향 안정화되는 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가정

2. 2009年 國內經濟 展望

- **경제성장률**은 대외여건 악화 및 내수침체로 인해 -2%대 중반을 기록할 전망
 - 상반기까지 -4%대의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후, 하반기에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면서 0%에 가까운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2009년 상반기까지 하락세를 지속한 후 2009년 하반기에 다소 회복하면서 연간으로는 -2%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상반기까지는 환율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압력, 금융위기에 따른 자산가치의 하락 및 경기하강에 따른 고용여건 악화 등으로 민간소비가 둔화될 전망이나, 하반기에는 저금리와 물가안정에 기인하여 소득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설비투자**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신용경색 및 세계적인 경제성장 둔화 등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로 인해 -16% 내외의 급락세를 나타낼 전망
 - 2009년 상반기에는 국제금융시장 위기에 따른 국내 금융시장 불안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08년 4/4분기에 이어 상당한 폭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2009년 하반기에는 내수의 점진적 회복 및 대내외 불확실성의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예상되나 연간으로는 2008년 수준에 비해 크게 부진한 수준일 것으로 전망
- **건설투자**는 재정지출 확대의 상당부분이 SOC 관련 투자에 배정됨에 따라 토목 부문을 중심으로 비교적 빠른 회복이 예상되나, 민간 건물건설 부문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는 연간 2%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토목부문은 정부 및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SOC 관련 투자 확대에 힘입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상업용 및 공업용 건물건설 부문의 부진이 예상되며, 미분양 주택의 누적부담으로 인해 주거용 건설의 회복도 지연될 것으로 보임.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침체의 여파로 2008년(4.1%)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9%대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도 원화 가치 하락의 시차효과 및 내수침체 등으로 인해 2008년(4.6%)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10%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원자재 가격 안정 및 내수부진 등에 기인하여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200억달러 내외의 흑자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8년(60억달러)보다 크게 확대된 280억 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세계경기 침체로 인한 수출물량 감소 및 수출단가 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2008년(14.4%)보다 크게 하락하여 -18% 내외의 감소를 기록할 전망

- 수입(달러금액)은 경기침체와 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안정에 따라 2008년에 22.3%에서 큰 폭으로 하락한 -24%의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2008년(124억달러)에 비해 적자규모가 크게 축소된 80억달러 내외의 적자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3.8% 내외까지 상승하며 취업자 수는 연평균 15만명 내외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실업률(구직기간 4주 기준)은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자수의 증가와 더불어 비경제활동인구도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전년(3.2%)에 비해 상승한 3.8% 내외를 기록할 전망

● 취업자 수는 상반기에 18만명 내외 감소하였다가, 하반기에 감소폭이 11만명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09년중 점진적으로 안정되면서 2009년 연평균으로 2%대 후반을 기록할 전망

● 2009년초 4%에 근접하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원자재 가격과 환율의 하향 안정, 낮은 수준의 총수요압력 등에 기인하여 빠르게 낮아질 전망

- 한편 근원물가의 경우 상승세가 소비자물가보다 천천히 둔화됨에 따라 2009년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상회하는 3%대 중반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

3. 2010年 國內經濟 展望

■ 향후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0년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대 후반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요인들의 점진적 완화와 세계교역 여건 개선 등으로 내수 및 수출이 정상화되면서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 **민간소비**는 환율, 물가 및 고용상황 등 경제여건이 안정됨에 따라 소득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의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 **설비투자**는 2009년에 급속히 위축되었던 설비투자 수요가 본격적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큰 폭의 증가세가 예상
- **건설투자**는 SOC 관련 공공부문의 투자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민간 건설부문의 부진이 점차 개선되면서 전년의 증가세와 유사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상품수출(물량기준)**은 세계경제 회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2009년의 비교적 큰 폭의 하락에 따른 기저효과에 기인하여 6%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상품수입(물량기준)**은 원화 가치의 안정 및 내수회복 등에 기인하여 8% 내외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세를 소폭 상회하면서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전년에 비해 하락할 것으로 예상
- **경상수지**는 수출부문에서 상당한 수준의 회복이 예상되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흑자규모가 축소될 전망
- **상품수지**는 흑자규모가 2009년 수준보다 축소되어 210억달러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수출(달러금액)은 15% 내외의 증가세가 예상되나, 수입(달러금액) 역시 20%에 가까운 증가세가 예상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는 축소
-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는 환율안정 및 내수회복에 기인하여 적자규모가 110억달러 내외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실업률**은 경기회복에 따라 고용여건이 점차 개선되면서 3.5% 수준으로 낮아지고 취업자 수는 20만명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하향 안정되면서 2%대 중반의 수준을 유지할 전망

2009~10년 경제전망

(전년동기대비, %, 억달러)

	2008	2009					2010
	연간 ^p	1/4 ^p	2/4	3/4	4/4	연간	연간
국내총생산	2.2	-4.3	-4.1	-3.4	2.7	-2.3	3.7
총소비	1.6	-2.0	-1.1	-0.7	3.8	0.0	4.0
민간소비	0.9	-4.4	-3.6	-2.7	3.0	-2.0	3.6
총고정투자	-1.7	-7.5	-6.4	-5.5	2.9	-3.9	4.9
설비투자	-2.0	-22.1	-23.0	-19.0	2.0	-16.0	10.5
건설투자	-2.1	1.7	1.8	1.5	4.0	2.3	1.8
총수출(물량)	5.7	-10.5	-14.3	-10.6	0.4	-8.8	6.0
상품수출	4.1	-14.1	-15.1	-11.8	2.5	-9.8	6.3
총수입(물량)	3.7	-18.4	-17.5	-12.3	6.9	-10.7	8.4
상품수입	4.6	-18.1	-16.6	-11.2	7.6	-10.0	8.1
경상수지	-64	86	57	39	26	208	101
상품수지	60	83	74	64	66	287	211
수출(금액)	4,334	782	840	908	1,003	3,533	4,088
(증가율)	(14.4)	(-24.0)	(-29.0)	(-22.5)	(5.5)	(-18.5)	(15.7)
수입(금액)	4,274	698	765	845	937	3,246	3,877
(증가율)	(22.3)	(-32.9)	(-32.0)	(-30.0)	(4.0)	(-24.1)	(19.5)
서비스·소득·경상이전수지	-124	2	-17	-25	-40	-80	-110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4.6 (4.3)	3.9 (4.9)	2.9 (4.0)	2.1 (2.9)	2.2 (2.2)	2.8 (3.5)	2.5 (2.2)
실업률 (계절조정)	3.2	3.8 (3.5)	3.8 (3.9)	3.7 (3.9)	3.7 (3.7)	3.8	3.5

주: 1) p는 잠정실적치(preliminary)임.
2)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III

政策方向

1. 財政政策
2. 通貨政策
3. 金融政策
4. 勞動市場政策

1. 財政政策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현재의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경기여건 악화 및 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지출 확대에 기인하여 재정정책 기조는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상당히 확장적으로 나타날 전망
 - － 작년에는 유가환급금 등의 감세조치 및 추경편성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재정정책기조가 확장적인 모습을 띤 것으로 평가됨.
 - * 2008년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15.6조원으로서 과거에 비해 상당히 큰 수준이며, 재정충격지수(FI)는 2%를 상회하여 최근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 － 금년에는 감세 및 마이너스 성장에 따른 재정수입 부진과 예산 수정 및 추경 편성에 따른 재정지출 급증으로 인해 재정정책기조가 더욱 확장적으로 나타날 전망
 - * 2009년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는 2008년 수준의 3배를 초과하는 51조원(GDP대비 5%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됨.

연간 통합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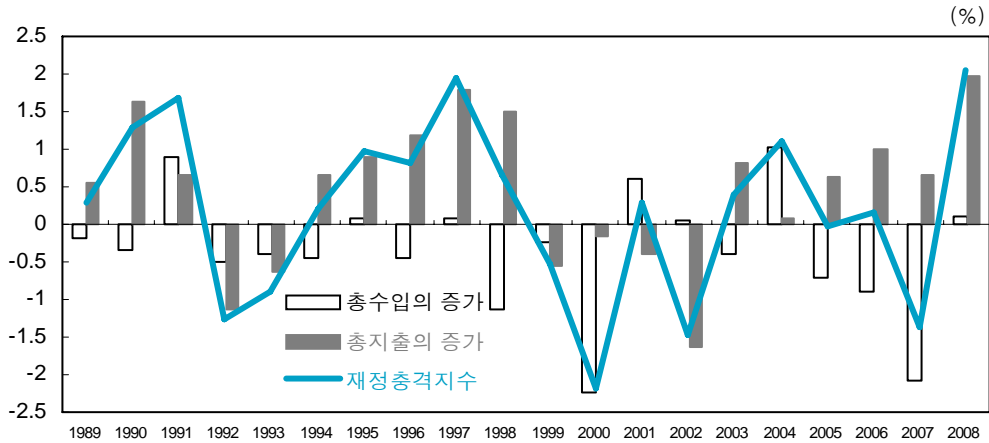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총수입 (전년대비 증가율)	178.8 (4.0)	191.4 (7.0)	209.6 (9.5)	243.6 (16.3)	250.7 (2.9)	
지출 및 순융자 (전년대비 증가율)	173.5 (5.6)	187.9 (8.3)	205.9 (9.6)	209.8 (1.9)	238.8 (13.8)	
통합재정수지	5.2	3.5	3.6	33.8	11.9	-22.0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21.2	23.6	26.4	30.2	27.5	29.1
공적자금상환원금	12.0	12.0	12.0	-	-	-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¹⁾	-4.0 [-0.5]	-8.1 [-0.9]	-10.8 [-1.2]	3.6 [0.4]	-15.6 [-1.5]	-51.0 [-5.0]

주: 2004~08년은 결산 기준, 2009년은 추경예산 기준.

1) 한국은행 『2008년 국민계정 잠정치』 발표(2009.3.27)에 따라 변경된 GDP를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재정충격지수 추이



주: 재정충격지수(FI)는 당해년도의 재정정책이 직전년도에 비해 확장적(+)인지 긴축적(-)인지를 나타냄.

● 이러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역할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추진되고 있음을 반영

— 국제금융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완충하기 위한 적극적 정책대응의 일환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추진되고 있는 확장적 재정지출의 규모는 이미 60조원을 상회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도 작지 않은 수준

* 2008년(조원): 유가환급금 등의 세제지원 4.4, 추가경정예산 4.6

* 2009년(조원): 세제개편(감세) 10.3, 수정예산 10.7, 공기업투자 1.0, 추가감세 0.9, 추가경정예산 28.4,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추가 세제지원(입법추진중)

※ 주요국의 경기부양책 규모

- 세계 전체: 총 2.5조달러(GDP대비 3.8%) 규모의 경기부양책 추진중
- 미국: 7,870억달러(GDP 대비 5.5%) 규모의 경기부양법안 발표 (2009.2)
- 일본: 7조엔(2009년 예산 기반영) + 10조엔(추경 계획) = 17조엔 (GDP대비 3.4%)
- 중국: 4조위안 규모의 내수부양책(2008.11)을 위해 2,300억위안의 재정집행계획 발표
- EU: 2,000억유로(GDP대비 1.5%) 규모의 경기회복대책 발표 (2008.11)

■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및 민생안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

- SOC 분야를 비롯하여 진행사업의 조기 완료 및 확정사업의 조기 착수에 집중하는 한편, 예산의 조기집행을 도모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적시성을 제고
 - 1/4분기 지출계획 대비 집행율은 주요사업비 전체의 경우 110.1%(연간진도율 32.5%), SOC를 포함한 4대 중점관리분야는 123.1%(연간진도율 38.4%)로 집계되어, 예산의 조기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취약계층 지원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달체계의 효율화와 추진체계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해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집중성 및 효율성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노력할 필요
 - 소비성향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민생안정 효과뿐만 아니라,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 또한 상대적으로 크다는 측면을 고려

■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재정기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바람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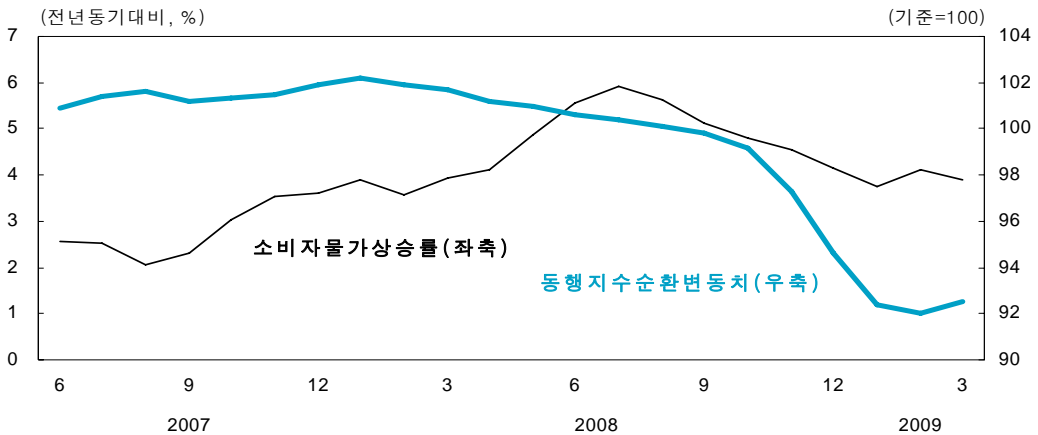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들은 경기회복 추세에 맞추어 과감히 축소함으로써 재정지출 확대의 한시성을 최대한 견지
 - 지방에 추가로 지원되는 재정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사업 위주로 투입하여 재정책대의 고착화를 최대한 억제
- 예산편성 단계부터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불요불급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한편,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 개선을 통해서도 재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세출조정을 도모
- 세입 측면에서는 비과세·감면 및 소득·세액공제를 축소하여 과세표준을 확대하는 동시에, 세무행정의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소득과약물을 제고함으로써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갈 필요
 - 지금까지 추진된 다양한 감세조치로 인해 세수감소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므로, 추가 감세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

2. 通貨政策

■ 통화정책은 당분간 현재의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경기 급락세가 진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 필요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한편, 경기회복이 완만한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물가상승세도 하향 안정될 것으로 보여 조속한 금리 인상 필요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원자재가격 등 해외물가의 안정, 환율의 하향 안정화,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간의 시차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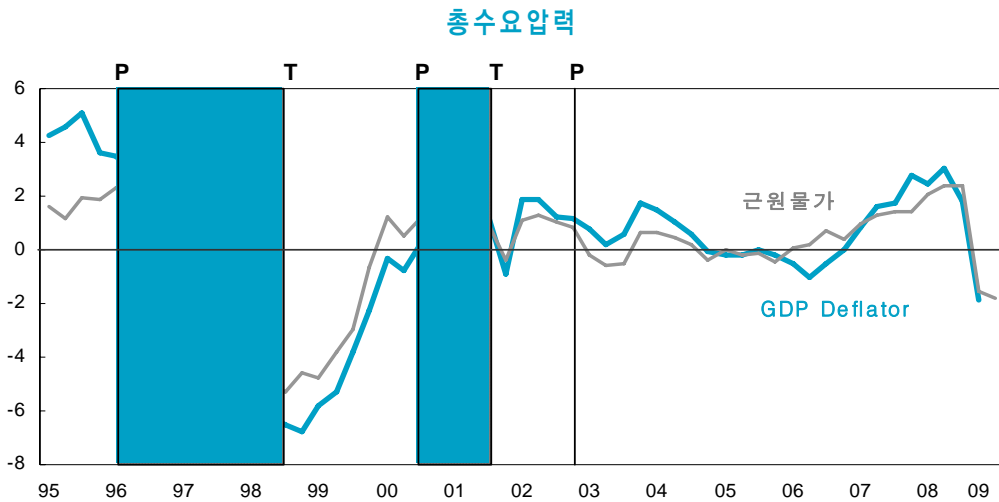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경기종합지수 순환변동치



■ 다만, 통화당국은 자산시장에 거품이 형성될 위험에 유의하여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 및 저금리 정책기조를 적기에 정상화시키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 필요

- 현재는 신용경색으로 인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확대 조치 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유동성 증가세가 높지 않으나, 향후 국제금융위기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급증하면서 자산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따라서 급락하였던 총수요압력이 경기회복에 따라 상승하기 시작할 경우, 우선 은행채 매입과 같은 비전통적 방식의 유동성 공급 확대정책을 정상화시키는 한편 정책금리도 점진적으로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
 - 자산가격이 경기에 선행하는 경우가 많고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음을 감안할 때, 자산가격 거품에 따른 불필요한 경기변동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기 이전이라도 유동성 공급의 조절이 필요할 수 있음.



3. 金融政策

- 금융시장의 구조적 안정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
 -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부분적으로 완화되고는 있으나, 은행권의 부실채권비율이 상승('08.1/4분기말 0.79% → '08.4/4분기말 1.14% → '09.1/4분기말 1.47%)하는 등 국내 금융시장의 구조적 위험요인들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
 - 특히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신용공급이 최근 빠르게 확대되어 왔음을 감안할 때,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 차원에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 및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

■ 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펀드와 기금의 설립목표와 운영원칙 등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책지원 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

- 현재 은행의 자본확충을 보완하기 위해 “은행 자본확충펀드”가 운영되고 있으며, 부실정리를 위한 “구조조정기금”과 금융산업 전반의 자본확충 지원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금융안정기금”의 조성이 추진되고 있음.
- 먼저, 부실채권 정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기관의 자본 부족에 대해서는 증자 등 자율적인 자본확충을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만 펀드와 기금을 투입한다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
- 펀드와 기금의 설립목표도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를 통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유동성 공급 지원 등 경기 안정화 기능은 한시적이며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바람직
 - 현재는 펀드와 기금의 운영목표로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와 ‘실물지원기능 강화’의 두 가지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과제
 - 물론, 국제금융위기 충격 완충을 위한 선제적 정책 지원은 불가피하나, 실물지원기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여신 확대 등의 정책이 지속될 경우,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체되면서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도 장기적으로 저하될 수 있음.
- 이와 더불어, 펀드와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능의 중첩 또는 자의적 운영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원칙을 확립
 - ‘금융안정기금’의 경우, 자본확충펀드와 기능이 중첩되는 측면이 있으며, 대출 및 보증 등 지원방식이 다양하고 지원조건도 불명확하여 자의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펀드와 기금의 운용절차 및 관리 등 운용원칙을 분명히 함으로써 ‘선제적 정책 대응의 필요성’과 ‘자금지원의 효율성’ 간에 균형과 조화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

■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은행차입 의존성향 축소 및 가계의 부채 관리능력 제고**를 통해 **점진적이고 상시적인 금융기관의 부채구조조정(de-leveraging)**을 유도

- 기업금융의 은행차입 의존성향이 높은 상황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은행의 시장성 수신비중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유동성 관리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불안이 지속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회사채 시장 활성화, 벤처캐피탈 및 엔젤캐피탈 육성 등 기존의 금융시장 균형발전 정책을 기업의 자금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가계부문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 부채상환능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가계가 스스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 한편, 금융기관의 단기외채 증가와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국내 외화 수요의 구조적 개선** 차원에서 대응
 - 여타 신흥시장국에 비해 높은 단기외채 비중이 외환시장의 급변동을 초래했던 주요 요인중 하나로 거론되면서, 일부에서 국내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도와 금융시장의 상호 연계성을 감안할 때,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한계가 있음.
 - 금융기관의 단기 외화차입도 국내 외화수요를 충족시키는 주요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장기 외화채권 발행 등 대체적 외화공급원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기 외화차입에 제한을 두기는 어려움.
 - 또한 최근의 단기외채 증가가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단기 외화차입에 대한 직접규제가 채권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 (현안분석 참조)
 - 따라서, 기업의 외화대출 심사에 있어서 외화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도록 함으로써, 우량의 외화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부문에 대출하도록 유도하는 등 외화수요의 구조개선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방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
 - 또한 외화유동성 감독기준의 개선을 통해 단기외채 비율을 축소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외화리스크 관리 능력을 제고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
 - 이와 더불어, 현재 만기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는 금융기관의 외화유동성 감독기준에 시장성(marketability) 및 유동성(liquidity) 등이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

4. 勞動市場政策

■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유지라는 단기적 목표 하에서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현재의 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나누기는 고용창출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은 고용유지를 목표로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
 -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려면 상급노사단체의 건설한 합의와 노동시장 유연성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사민정 합의는 대표성과 구속력이 부족하며 정규직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높은 편이 아님.
- 일자리 나누기를 경제 전체적인 전략으로 추진하기보다는 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도록 자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정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
 - 근로시간 및 근무일수 조정, 교육훈련 실시, 임금 삭감 등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고용유지 방안을 개별 노사가 자율적으로 실행하고,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 적절
 - 특히, 정부의 고용유지 지원제도는 교대제 전환, 전환 배치, 다양한 직무훈련에 대한 지원 등으로 경기변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운영
- 한편, 고용유지 지원제도가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업의 고용을 연장하는 데에 사용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가능성에 대해 상시적으로 점검할 필요

■ 실업자에 대한 한시적 구제와 함께 내실 있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도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고용시장의 상황을 감안할 때, 고용보험 대상 실업자에 대한 구직급여의 한시적 확대는 불가피한 대책으로 판단됨.
 - 고용의 경기후행성을 고려하면 고용여건이 연내에 빠르게 호전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므로 개별연장급여의 수혜자격 완화와 특별연장급여의 실시 준비는 필요한 조치로 판단됨.
- 그러나 현금지급의 확대보다는 취업알선·교육훈련·보육지원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하여 실직자의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것을 기본적인 정책방향으로 삼아야 함.
 - 고용지원센터의 서비스를 개선하고 직업능력개발 계좌제의 활용을 장려하여 청년층을 포함한 실업자의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이며, 민간의 고용지원 서비스도 활성화

■ 비정규직 근로자와 영세자영업자 등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소홀한 **취약근로계층**에게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비정규직 및 영세자영업 실업자는 저소득층 취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재취업을 돕는 것이 현실적인 대책
 -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취업자 중 41%(대부분 상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혜자가 실업자 중 40%에 불과한 상황에서, 고용보험 사각지대는 우선 기존 사업을 활용하여 대응하되, 향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실직과 휴폐업 등으로 갑작스런 생계곤란에 직면한 신규빈곤층에 대해서는 긴급복지지원을 신속히 제공
 - － 긴급한 사정으로 빈곤 위험에 직면한 경우 긴급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신속히 생계비·의료비·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해 일선 사회복지인력을 확충할 필요

■ 향후 경기회복이 충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최근 고용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노동시장 제도 개혁 논의도 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기간 연장 등 비정규직 고용문제에 맞추어지고 있으나, 향후 정규직 고용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혁이 필요
 - －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 연장, 파견근로범위 확대, 불법파견(사내하도급) 규율 문제 등 비정규직 문제뿐 아니라, 대기업·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한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 완화까지 포함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됨.